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제 주 전 래 동 화 연 구

— 제주 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 語 教 育 專 攻

朴 宰 亨

1998年 2月

제 주 전 래 동 화 연 구

— 제주 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논문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11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 出 者 朴 宰 亨

朴宰亨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7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제주 전래동화 연구

- 제주 설화의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

朴 宰 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제주 설화가 제주 전래동화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용 양상을 밝히고 전승 방향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를 토대로 설화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동화 작가들이 고유의 설화에 대한 의식과 그 동화를 읽은 어린이들의 수용 의식을 비교 검토하며, 또 원형 설화가 작가들의 손을 거친 후 나타나는 변이 양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에서 동심을 바탕으로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다른 지방의 전래동화와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제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에는 설화를 그대로 차용 표준어화한 것과, 동화작가가 중심사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첨삭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제주 전래동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고루 수용되어 있다. 동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 가장 많아 교훈적인 내용이었다. 전설을 수용한 동화에는 생성 유래를 밝히는 작품이나 기인의 좌절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또 ~~牽强扶弱~~이나 선악의 대결이 나타나는 작품이 있으며, 등장 인물은 성인 남성이 많았다. 전래동화에는 시대적, 지리적 배경이 탈락한 작품이 많았는데, 전래동화가 사건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수적인 배경은 탈락하여 기본 형식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동화는 165편으로 작가들은 교훈적이며, 흥미소가 많은 설화를 선택하여 중복 수용하고 있다. 전설을 수용한 작품이 가장 많으며, 민담의 비율이 가장 적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화소를 수용하고, '옛날'을 반복 강조하여 청자의 사고를 고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화소의 첨가와 탈락이 이루어졌다. 어려운 어휘, 성 문제를 다룬 것, 난폭 행위 등은 재구성되고 있는데, 특히 신화에서 화소의 탈락이 두드러졌다. 단순한 사건을 가진 설화는 화소가 첨가되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작가가 창작하거나 창작동화와 같은 도입부를 수용하여 전래동화

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작품도 있었다.

동화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제주 전래동화는 좋아하기는 하나 다른 장르와의 인식 능력은 모자랐다. 또 어린이들은 책을 통하여 전래동화를 접하고 있어 전승에 문제점이 있으나 전래동화의 원형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동화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는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거나 불행한 결말을 맺는 전래동화였는데, 이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동일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주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판단 능력과 상상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제주 선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가들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전승 작업에 참여해야 하겠다. 전래동화는 어린이의 정서에 알맞은 내용을 전승시켜야 하며,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설화의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건, 개작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전래동화의 개작에 임해야 하겠다.

차 례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2
II. 설화의 수용	10
1. 신화의 수용	10
2. 전설의 수용	19
3. 민담의 수용	30
III. 작가의 변용 의식	38
1. 변용 양상	38
2. 축소와 확대	44
3. 창작과 개작	51
IV. 독자의 수용 의식	57
1. 흥미소	58
2. 교육소	63
3. 형식소	68
V. 전래동화의 전승방향	73
VI. 결론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6
부록	88

표 목 차

〈표-1〉 연구 대상 자료	9
〈표-2〉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	11
〈표-3〉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분류	13
〈표-4〉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분류	20
〈표-5〉 아기 장수의 화소 변용	24
〈표-6〉 전래동화의 배경 수용 양상	29
〈표-7〉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분류	32
〈표-8〉 중복된 전래동화의 수록회수별 분포	39
〈표-9〉 창작동화 도입부와 같은 전래동화	56
〈표-10〉 제주 전래동화 호응도	57
〈표-13〉 좋아하는 제주 전래동화(1)	59
〈표-14〉 설문대 할망의 사건 흥미도	61
〈표-15〉 삼성신화의 사건별 흥미도	61
〈표-16〉 좋아하는 제주 전래동화(2)	62
〈표-18〉 제주 전래동화 교훈소 분포	64
〈표-17〉 제주 전래동화 제목의 암기	67
〈표-11〉 제주 전래동화 인지도	69
〈표-12〉 제주 전래동화 풀룻유형분석	7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설화를 일반적으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눈다. 이러한 구분은 장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결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설화에 대한 관념은 신화니 전설이니 민담이니 하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옛말' 또는 '옛날 이야기'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이것이 한자로 정착되면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인 古談, 傳說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 기준으로 '누가 전승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전승의 주체는 어른, 아이, 또는 남자, 여자 등으로 바뀌면서 그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동화라고 하며 주로 민담이 구연되었는데¹⁾ 최근 들어 동화의 개념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창작동화와 전래동화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동화라는 용어가 1921년 고정상, 배위충, 오천석의 동화집에서 시작²⁾되었다면 동화라는 명칭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다 할 수 없다. 동화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³⁾들의 정의가 있으나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꾸민 서정적이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로서, 시적인 요소를 갖춘 산문문학”⁴⁾이라고 한 정의가 동화의 특성에 맞는 개념이라 여겨진다.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 중에는 신화·전설·민담 등의 민간 설화가 있는데, 이들 설화 중에서 동심을 그 바탕으로 하여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⁵⁾이다. 설화 중에서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동심이 깔려 있고, 그것이 도덕적, 교육적, 심리학적으로 적당할 때, 전래동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래동화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전래동화의 명칭에 '제주'라는 낱말을 첨가

1) 최인학(1982), 「한국설화론」, 형설출판사, pp. 95-96.

2) 최인학, 위의 책, p. 91.

3) 방정환은 “동화의 동은 아동의 동이요, 화는 설화이니, 동화라는 것은 아동의 설화, 또는 아동을 위한 설화이다”라 하였고, 구인환은 “동화는 동심을 바탕으로하여 흥미롭게 산문으로 쓰여진 아동문학의 형태”라 하였다. 박종구는 “리얼리즘과 판타지의 세계를 통일성 있는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재철은 “동화는 옛이야기나 민화 중에서 안데르센과 그림을 고향으로 하는 상징적인 문학형식으로서, 개개의 인물조형과 디테일의 진실보다도 소박하게 요약된 미적표현 가운데서 인간 일반의 보편적 진실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시에 가까운 산문문학”이라고 하였다. 박춘식·김기창은 “동화란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서정적이거나 환상적인 이야기로서, 시적인 요소를 갖춘 흥미로운 산문문학”이라고 하였다.

4)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p. 18.

5)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p. 18.

한 의도는 다른 지방의 동화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전래동화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제주 전래동화가 제주 설화를 수용한 것이며, 따라서 그 동화 모두에 동심이 들어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곧 설화와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산업이 발달과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구비전승되던 전래동화가 문자로 기록되어 전래동화집이 발간되었는데, 이들 동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전래동화와 설화의 구분이 어려운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화는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교육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삶과 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전승시켜도 좋은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따라서 제주 전래동화를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바탕으로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고 정의해도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이 정의에는 구전되던 설화를 그대로 차용하여 표준어화 한 것과 동화작가가 스토리를 홀트리지 않으면서 약간의 첨삭이 가해진 것을 포함하며, 작가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완전한 창작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래동화를 전파 전승해 온 제주 선인들의 공동 참여에 의해서 같고 다듬어진 것을 바탕으로 동일한 가치관과 정서가 깃들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전래동화는 전승 동요처럼 전승 내용이 원형대로 전해지지는 않는다. 전승동요의 경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전래동화는 전승자, 장소, 청자, 분위기 등에 따라서 변용이 일어난다. 더구나 전래동화집으로 간행될 때에는 채록한 이야기를 토대로 작가의 의식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첨가되어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통념상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들을 전래동화로 인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를 토대로 설화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동화작가들의 고유의 설화에 대한 의식과 그 동화를 읽은 어린이들의 수용 의식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또 원형설화⁶⁾가 작가들의 손을 거친 후 나타나는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1) 연구사 검토

6) 여기서 원형설화라 함은 전승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향유하는 전승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채록자에 의해 개작되거나 작가들에 의해 창작물의 소재가 된 것은 원형설화의 변이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변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 설화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크게 축적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설화를 수집하여 정리하거나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 신앙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된 느낌이다. 그러나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사고력 및 창의력을 길러 주며 즐거움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는 전래동화의 교육적 효과와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전래동화를 소홀히 취급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을 전승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제주 전래동화의 전승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 전래동화와 제주 설화 및 동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주제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손동인과 최운식·김기창에 의해 이루어졌다. 손동인⁷⁾은 전래동화의 개념에서부터 짜임, 구조, 등장물의 성격, 배경, 교육적 진단과 효율적인 지도방법, 채집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⁸⁾ 특히 전래동화의 구조를 밝히고, 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동화 속에 담긴 모티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부약(牽強扶弱)의 법칙이 준용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전래동화 속에 담긴 위트와 유머, 풍자, 팬타지, 행위, 모방성 등도 분석하여 전래동화의 다양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래동화 작중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분석하여 인물의 성격이 어린이들의 가치관 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좋은 전래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래동화 교육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강조하면서 동화의 구조 분석은 물론 지도방법, 연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전래동화 교육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전래동화에 대한 이론은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전래동화의 구조분석이 철저하지 못하다.

최운식·김기창⁸⁾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는 교육적 성격이 강하여 성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동화를 수록한 것은 그것을 통해 전통문화의 이해를 깊게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뜻이라고 보았다. 동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교육현장에서 이 저서는 전래동화의 성격과 특성·교육적 성격,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였다. 전래동화 연구에 필요한 논문도 실어 동화 연구와 교육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한국 전래동화집 발행 현황과 개선점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전래동화 자체에 대한 분석은 간과한 채 교육적인 성격만을 부각시켜 전래동화의 장점을 피상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주제의 분류 등은 손동인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전래동화를 분석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다.

7) 손동인(1984),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8)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동화 속의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성진⁹⁾과 정방숙¹⁰⁾의 논문이 있다. 전자는 기존 간행된 전래동화집과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 316편 중 동물 중심 동화 153편을 골라 연구한 결과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은 동물로 호랑이를 들고, 다음으로 말·토끼·소·개 등 순이라고 하였다. 주제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꿈, 선과 미를 심어 주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였다. 동화의 기능으로는 개인·사회·국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심성을 키워 주고자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후자의 논문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빈도, 역할, 주제, 인성 특성, 행동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전래동화에서 남녀의 비율은 3.6 : 1로 남성이 많고, 성인이 많이 등장하며, 사회적 역할로는 남자 인물의 묘사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작품의 주제로는 권선징악, 효, 가정애, 슬기, 지혜 순으로 나타나며, 인성 특성으로는 경애와 동정심, 인내심, 의지력 및 운순·착실성, 정의감, 용감성 순이라는 것이다. 또 주인공의 행동 특성은 정서와 자주면, 인내면, 예절면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자의 논문에서는 '동화 속의 동물을 중심으로' 연구하겠다는 부제와는 달리 등장 동물의 빈도 수를 해석하는데 불과하며, 동화의 기능과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모티브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김인애¹¹⁾와 박혜숙¹²⁾의 업적이 있다. 전자는 한국전래동화 254편의 모티브를 분석하여 주인공과 사건, 배경과 소도구 모티브로 분류하고, 또 6편의 전래동화를 해석하였다. 그는 전래동화에 자주 구사되는 양식으로 3회 반복의 법칙과 선과 악의 대결,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 은총받은 주인공 등이 있으며, 현실과 초현실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하였다. 유교적인 윤리관이 드러나며, 현실은 비극적이고 염세적이나 천상과 지하 등 초현실세계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묘사된다고 하였다.

후자는 전래동화의 변신 모티브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 대표 작품을 선정하여 서사구조를 살폈다. 변신의 유형에는 영구변신과 회귀변신, 성공변신과 좌절변신, 자의변신과 타의변신으로 나누어 고난이 행운으로 바뀌거나 이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모티브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들 논문에서 전자는 이성진의 논문과 같이 부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 모티브 분류는 소홀히 취급되고 전래동화의 해석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가치관을 연구한 최명희¹³⁾는 전래동화 35편에 나타나는 가치관을 가족

9) 이성진(1986), "한국전래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0) 정방숙(1985), "한국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남녀 주인공상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1) 김인애(1985), "한국전래동화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2) 박혜숙(1991), "한국전래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3) 최명희(1973), "한국전래동화와 어린이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애, 권선징악, 인간애, 사회정의, 희망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상적 배경으로 도덕의 실천,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무속사상이 우리 전래동화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다. 전래동화에 깔려 있는 주제들에 도덕적·교훈적인 사상이 많이 드러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상만으로 우리 나라 전래동화를 분류하기는 다소 무리라고 여겨진다.

제주 설화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신화에서부터 자연전설, 역사전설, 민담 등을 통해 제주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삶의 양상을 분석하고 정체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설화 속에 담긴 제주 선인들의 사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연구물이 많았다.

제주 설화에 대한 연구를 분류하면 대강 인물에 대한 연구와 풍수에 대한 연구, 변신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현길언·김영화¹⁴⁾와 소재영¹⁵⁾은 인물 전설을 중심으로 설화에 나타난 제주인의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 제주도 설화를 당신과 설문대 할망, 고종달 설화, 아기 장수 설화, 오늬 힘내기 설화, 장수설화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제주 설화는 제주민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피해 의식과 배타 의식, 현실주의적인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 당신 본풀이에는 추방된 신으로서의 원망과 허기에 눌려 살아온 신들의 생애가 나타나는데, 당신의 한스런 일생은 바로 제주민의 정신적 상황과 현실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당신들에 투영된 허기와 좌절은 제주 백성의 한스러운 의식이며 저항이다.

또 막산이로 대표되는 장사 전설에서 장사의 일생은 종의 신분이면서 대식가여서 늘 허기에 시달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추방과 죽음을 맞이한다. 종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풍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대식가인 처지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 게다가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힘의 대결에서 수적(水賊)을 무찌르고 본토 인물들을 제압하여, 제주민이 갖고 있는 섬 콤플렉스에서 해방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비리와 운명에 대한 저항이고 삶의 한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재영은 제주 설화 중에서 장수설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논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인물에 대한 설화를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것은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적이나 기행을 통해 삶의 여러 방법을 익히고, 또한 제주 선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인물들의 삶을 통해 교훈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게 된다.

제주도의 풍수설화에 대한 연구에는 김영석의 논문¹⁶⁾이 있다. 그는 풍수설화가 신앙화되었고, 강

14) 현길언(1980), “제주 설화를 통해 본 제주도 정신고구,” 논문집 제12집, 제주대학교.

15) 소재영(1985),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연구,” 송실어문 제11집, 송실대학교 송실어문연구회.

한 생명력을 지녀 여러 형태로 변이 전승되어 왔다고 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으로 성공한 가문에서는 그 성공이 명당의 은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풍수설화의 유형으로 배풀고 때맞는 형, 때맞는 형, 악령 퇴치 형, 즉시 발복형, 待時 발복형, 금기 위반형, 아기장수형, 고종달형 등으로 나눈다. 제주도의 풍수설화가 지리적,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공동체로서 제주 특유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는 풍토의 불모성과 외세의 침탈에 대한 보상 행위로서 강인한 저항 정신과 적극적인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풍수설화에서 인간의 행·불행이 단지 조상을 어떤 땅에 묻느냐에 따라 발복이 결정된다고 보고, 풍수설화에 강한 저항정신과 적극적인 삶의 의미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의 운명을 땅이라는 객관적인 사물에 의해 결정지으려는 연약한 심성의 반영이며, 발복을 통한 소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풍수설화는 전래동화에도 수용되어 있다. 아기장수형과 고종달형의 이야기에 수용되어 있어 미신적인 요소가 강한 풍수지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교육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전승해도 좋은 전래동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설화의 연구 중 전래동화의 특성에 알맞은 변신 모티브에 대한 연구는 고석희¹⁷⁾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제주도민이 전승 향유하는 변신 설화 각 편에 나타나는 변신양상과 유형화 체계, 그리고 모티프와 삽화의 구조적 기능을 고찰하였다. 그는 변신설화를 신화계, 전설계, 민담계로 나누고, 그 구조는 4단계(도입부, 전개부, 발전부, 해결부)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발전부에서 강한 변신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변신설화의 문학성도 일정한 구조 체계 속에 민중생활의 복합적 의미가 형상화된 주제 내용과 상통되며, 변신 모티브는 민중의 세계관에서 발상된 이중적 의미를 선 또는 악 의식으로 형상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민중의 삶에 주술적, 전기적 흥미 요소인 변신 과정이 첨가되어 극적 구조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제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모티프의 의미적 기능과 부합되어 민중의 삶에 대한 미와 진리의 문학적 형상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고석희의 변신설화 연구는 전래동화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가치가 크다. 변신은 어떤 의미의 변신 이든지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여 주는 구실을 한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 주는 변신을 전래동화에 수용하면 어린이들은 더욱 전래동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설화에 비해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주 설화와 전래동화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전래동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연구 인력이 부족으로 동화

16) 김영석(1993), “제주도 풍수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7) 고석희(1985), “제주도 변신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를 연구할 여력이 없었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하겠다.

제주 전래동화 연구로는 장영주의 「제주 전래동화의 제3세대 정신」¹⁸⁾이 유일한 것이다. 그는 제주 전래동화의 역사가 짧다고 진술하였는데, 역사가 짧다기 보다는 전래동화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일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주 전래 동화의 특색으로는 '긴 이야기, 장수 설화, 창조물에 대한 것'이 많으며, 도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불합리한 동화, 권선징악의 내용, 등장물에는 자연물이 많으며,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형태상 동화의 시작 부분은 '옛날에'가 많지만 끝 부분은 여러 형태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 전래동화의 특색은 정경 묘사와 줄거리 중심, 판타지 위주로 우연의 일치, 천우신조, 불가사의한 인간관계가 바탕이라고 보았다. 시간, 장소, 인물 설정이 추상적이고,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주제가 드러나며, 관용적 표현이 많고, 사건 진행에 대립과 반복의 형식이 많다는 것이다.

그가 파악한 제주 전래동화의 특성은 사실상 한국 전래동화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제주 전래동화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점은 제주 전래동화를 세부류로 요약한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유일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전래동화와 제주 설화,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한국 전래동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래동화의 교육성과 연구방법 등이 제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전래동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주 설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설화 속에 제주 선인들의 의식구조가 들어있다는 논의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설화가 전래동화로 변이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전래동화의 중요성을 덜 인식한 결과이며, 전래동화를 전승시키려는 노력이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양상을 검토하며 전래동화 전승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제주 전래동화는 기본적으로 제주 설화를 수용하여 생성되었다. 그런데 구비 전승되던 제주 설화나 동화가 문자화하여 책으로 엮여지는 과정에서 다시 변이가 일어났다. 설화의 원형 그대로 전래동화로 정착한 것도 있지만, 전승자의 의도에 의해 화소가 탈락하거나 첨가되어 변형된 전래동화가 생

18) 장영주(1992), “제주 전래동화의 제3세대 정신”, 「제주문화 22집」, 제주문인협회, pp. 173-182.

거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작품을 제주 전래동화로 규정해 첨삭과 개작이 이루어진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주 전래동화의 제주 설화 수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신화·전설·민담에서 수용된 전래동화를 분석하였다. 신화나 전설, 민담이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제나 소재, 남녀 인물의 수, 선악의 대결 양상,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수용 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동화작가들이 동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화의 화소를 수용한 전래동화와 배제한 전래동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화소를 수용하거나 탈락시킨 이유를 분석하였다. 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형태, 창작동화처럼 변형시킨 전래동화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 이유를 점검하고, 전래동화를 보는 작가의 의식구조를 밝히려고 하였다.

셋째, 전래동화에 대한 독자의 수용의식을 분석하려고 한다.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동화에 대한 인지도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의 흥미소, 교육소, 형식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전래동화집의 교육성에 대한 논의와 제주 선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도구로서의 중요성, 환상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래동화를 수용하는 작가의 태도와 작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전승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다섯째, 제주전래동화의 수용양상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를 서술하려고 한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전래동화는 설화집들을 토대로 개작되었다. 전래동화를 설화와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설화집 6권을 채택하였다. 전래동화집으로는 지금까지 발간된 8종 12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중 6종은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 문인들에 의해 엮여졌으며, 2종은 본토의 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와 본토 작가의 동화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 설화집들은 제주 방언 그대로 채록한 것이 1권, 표준어로 고친 것이 5권이다. 방언으로 된 『제주설화집성』은 현장론적 채록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상호 침투작용이 일어난 설화가 많고, 줄거리 외에 많은 지문이 첨가되어 구조를 밝히는데 장애가 되었다.

전래동화에는 설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이 있고, 줄거리를 흐뜨러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동화작가가 변형시킨 작품들이 있다. 후자는 몇 가지 동화의 소재를 취사선택하여 이에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시켜 새롭게 창작한 동화들이다. 이는 원 자료를 1차 표준어로 고쳐쓰고, 다시 전래동화로 2차 변형이 되며, 3차 전래동화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어로 풀어 쓴 설화집들은 역자가 문장을 다듬어 문학적으로는 흠이 적어졌지만 전승 현장에

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분위기의 전달은 어렵게 되었다. 전래동화는 특성상 보존과 전달 상태가 가변적이다. 한 유형의 이야기일지라도 전승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심지어 동일 전승자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다르게 구연되는 하나 하나를 각편이라 하는데, 이 각편이 그대로 전래동화 한 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구비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의 구연을 채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채록한 작품을 가지고 전래동화로 재화했을 때는 텍스트로 삼은 설화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전래동화도 부분적으로 변용되어 씌어지기도 한다.

이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설화 및 전래동화의 선택 기준이었다. 한 설화나 전래동화가 여러 책에 수록된 경우가 많았는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전래동화를 대상으로 해서 설화의 수용을 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화와 전래동화가 여러 편일 때는 화소가 가장 많은 작품을 선택하였으며, 동일한 작품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전래동화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표준어로 작성된 설화를 채택하였으며, 표준어화한 설화집에 수용된 설화가 없을 경우에만 제주 방언으로 채록한 설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표- 1> 연구 대상 자료와 비교 자료

구 분	책 이 름	역 은 이	출 판 사	년 도
연구비교 자료 (설화집)	제주도 전설	현 용 준	서문당	1976
	제주도 신화	현 용 준	서문당	1976
	남국의 전설	진 성 기	교학사	1981
	제주도 전설집	현 용 준 외	제주도	1985
	제주도 설화집성	현용준·김영돈	탐라문화연구소	1985
	제주도 민담	현 용 준	조약돌	1996
연구자료 (전래동화집)	제주도 이야기 1·2	현 길 언	창작과 비평사	1984
	구슬을 먹는 아이	강 정 훈	관광제주	1984
	힘센 종 막산이	관광제주	경신사	1984
	알동네 웃동네 외 1	제주아동문학협회	영주문학사	1990
	제주도 전래동화	박 재 형	대교출판	1991
	민족전래동화 6·8·9	장 영 주	아동문예	1991-1992
	제주도 전래동화	손 춘 익	우리 교육	1997
	오돌또기	최 범 서	청솔	1997

II. 설화의 수용 양상

1. 신화의 수용

신화란 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신화 속에는 신들의 이야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신들의 이야기일지라도 신화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신화란 무엇인가? 신화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왕빈은 신화에 대하여 “이 세계의 시초·원초에 일어난 인간에게 있어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우주·인류 문화의 기원을 이야기하며, 原古에 일어난 인간에게 일회적인 사건이 후세, 특히 현재의 자연·문물뿐 아니라 인간행동 일반에 있어 커다란 규제력을 가지며, 규범이 된다.”¹⁹⁾고 정의하고 있다. 장덕순은 “신에 관한 이야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 신성시되는 이야기”²⁰⁾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근거 있는 개념 규정이긴 하나, 신화의 보편적인 성격을 무리 없이 나타낼 수 있는가, 한국신화의 경우에도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의 삼성신화에서 보면 세 신인은 신이기도 하나 또한 인간의 속성을 겸하고 있다. 또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제주도를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신화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설의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신화의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했거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규범적의의를 갖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으로 위대하거나 숭고한 행위로서 성립된다. 卵生이나 짐승의 보호,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의 극복, 거대한 승리 등이 신화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신성시되는 이야기’가 신화의 보편적인 성격을 무리 없이 표현한 정의라고 생각된다.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제주 신화는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신화에서는 보기 드문 천지창조 신화인 <천지왕 본풀이>가 있다. 이 본풀이는 함흥지역에서 큰굿을 할 때 부르는 무가인 <創世歌>와 비슷하다. 두 신화의 공통점은 우리 나라의 천지개벽이 창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제주신화 <천지왕본풀이>는 성서의 창세기처럼 해와 달, 별의 창조와 질서 등을 담고 있어 제주 선인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신화이다.

둘째는 제주인의 조상인 인간의 탄생과 주거, 산업의 발달을 알려주는 「삼성신화」가 있다. 세

19) 왕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p. 44.

20) 이외에도 신화에 대한 정의는 ① M. Eliade, 이동하역(1988), 「聖과 俗」, 학민사, p. 73. ② 왕빈, 앞의 책, p. 44. ③ 장덕순, 앞의 책, p. 29 등을 참조할 것.

신인이 땅속에서 솟아나 제주의 조상이 되었다는 <삼성신화>는 '혼인지', '삼사석' 등을 증거물로 삼고 있어 전설의 요소를 가지면서 제주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신화이다.

셋째는 신들의 탄생과 좌정을 알려주는 것들인데, 이 신들의 탄생과 좌정을 알 수 있는 신화에는 일반신 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조상신 본풀이가 있다. 일반신은 천지, 일월, 산해(山海), 생사, 질병, 생업, 빈부 등을 담당했던 신들이며, 당신은 부락신으로 이 신을 본향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는 본향당이 있다. 또 조상신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이 아니라 무당이 무속적 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집안, 종족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신이다.

본풀이는 제주도에서 성행했던 무속제의 [굿]의 일부분인데, 노래로 불려지는 신성한 신화이다. 본풀이라는 말을 “本과 풀이의 합성명사로서 본은 ‘本, 本來, 本初, 本原, 根本’ 등의 뜻으로 ‘神의 來歷’을 의미하고, ‘풀이’는 ‘풀다(解)의 명사전형으로 解說, 解明, 解釋’ 등의 뜻이다. 본풀이의 語義는 ‘神의 本原과 내력의 解釋 說明’이란 정도의 뜻을 알게 된다. 따라서 본풀이는 그 명칭 자체가 서사적 내용의 口傳文學이요, 성격의 것으로서 신성한 설화임을 추측하게 해준다.”²¹⁾ 그리고 “본풀이는 신의 출생에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관장하고 좌정할 때까지의 생활사요, 내력담”²²⁾이기도 하다.

신화가 제주 전래동화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전래동화가 동심을 내포하고 있어야 가치를 지니듯이, 신화의 내용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윤리와 동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듯이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도 교훈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신화가 다 전래동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동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하자가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신화의 사건 중 어른들의 세계를 다룬 이야기도 전래동화가 될 수는 있으나, 모든 설화가 다 전래동화로 수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제주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표 - 2 >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

구 분	제 주 전 래 동 화	빈 도
개벽신화	이 세상과 소별왕	1
시조신화	삼성신화	1
일반신본풀이	삼승할망, 무당의 조상이야기, 사만이, 자청비, 가문장아기, 남선비,	6
당신화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세화본향당신, 호근본향당신, 사계큰물당신, 예촌·보목본향당신, 사계큰물본향당신, 상창 하르방당신, 중문본향당신, 광양당신, 영동할망, 보목리조록이당	11

21)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p. 17.

22) 현용준, 위의 책, p. 15.

조상신화	구슬할망	1
기타	허웅아기	1
계		21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신화²³⁾는 일반신 본풀이 6편, 당신 본풀이 11편, 그리고 조상신 본풀이 1편이다. 특이한 것은 신화라기 보다는 전설에 가까운 <허웅아기 본풀이>²⁴⁾가 신화에 삼입되어 21편에 이른다는 점이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로는 생성 유래와 권선징악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제주 신화는 신의 출생에서부터 신의 직능을 부여받고, 좌정할 때까지의 내력을 풀어서 읊은 것이 대부분이다. 신의 내력담 속에 담긴 주제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하는 것이다. 현용준은 제주 신화의 주제를 권선징악으로 보고²⁵⁾ 본풀이를 선악 양 사회의 갈등에서 선의 승리로 매듭짓는 이야기로 규정하며, 승리한 善者를 신격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모든 惡人, 惡心, 惡神, 惡行은 일시적으로 기세를 올리지만 궁극에 가서는 善人, 善心, 善神, 善行에게 굴복당하고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 설명의 이면에 이러한 권선징악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래동화에 수용된 신화 중 일부는 권선징악의 수용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출생과 좌정을 전래동화로 재화한 것들도 있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신들>²⁶⁾에 수록된 당신들 중 <호근 본향당신>, <사계 큰물당신>, <예촌·보목 본향당신>, <상창 하르방당신>은 한라산에서 태어난 당신들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스스로 적당한 곳을 찾아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이야기로 전래동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나 갈등이 없이 탄생과 좌정만을 다루고 있다. <사계큰물당신>을 예로 들면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산방산 굴에 들어가니 너무 좁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배가 고파 사슴을 잡아먹고 나서 바닷가를 보니 혈맥이 보여 큰물당신으로 좌정하였다는 이야기여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사건은 들어 있지 않다.

제주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 주제들은 어떤 수용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신화의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부록 2 참조)

23) 이 연구에서는 현용준의 「제주도신화」(1976, 서문당)를 참고로 하였다.

24) 이는 진성기가 설화를 분류하면서 신화 영역에 넣은 것이다. 실제로 무당들에 의해 불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신화의 영역 속에 넣어 논의하기로 한다. (진성기(1996), 제주도전설, 백록, pp. 111-116.)

25) 현용준, 앞의 책, p. 58.

26) 장영주(1992), 「민족전래동화」 9, 아동문예, pp. 180-195.

< 표 - 3 >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 분류

주 제	신 화	작품수	비 율%
권선징악과 생성유래	1, 2, 3, 4, 6, 8, 11, 17, 18, 19, 20, 21	12	57.1
생성유래·이유	10, 12, 13, 14, 15, 16,	6	28.6
권 선 징 악	5, 7, 9	3	14.3
계		21	100

위 주제 분류에서 권선징악과 생성유래를 동시에 수용한 신화가 57.1%나 된다. 제주 신화 중에서 일반신 본풀이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치하는 이야기가 많다. 이것은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온갖 악을 물리쳐 주기를 비는 기원에서, 신의 업적을 부풀려 칭송하는 화소를 차용한 결과 권선징악의 주제가 수용된 듯하다. 그러나 일반신 본풀이 중 <허웅아기>, <가문장아기>, <사만이>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신화이기는 하나 이들 인물이 신으로 좌정하지는 않는다. 이 신화들처럼 권선징악의 주제만을 가지고 있는 신화가 5편이나 되어 권선징악의 주제를 수용하고 있는 신화는 모두 76.2%이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 나타나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세계를 질서 있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는 의식이다. 세상을 선한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이 세상과 소별왕>에서 나타난다. 소별왕은 대별왕을 속여 이승을 다스리게 되는데, 해와 달이 두 개씩이어서 세상이 어지럽자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 살인과 도둑질, 미움과 질투를 다스린다. 또 짐승과 초목들이 쓰는 말과 사람들이 쓰는 말을 따로 만들어 이 세상의 질서를 잡는다. <삼성신화>에서는 제주 선인들의 출현 후 생활과 거주지의 분배 등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고·양·부 세 신인의 용출과 동쪽 바다로 떠내려 온 석함에서 나온 세 여인과 혼인지에서의 혼인, 그리고 활을 쏘아 거주지를 정하는 화소 등 제주 선인들이 공동선을 추구했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효행을 권장하고 있다. 효행은 예절의 근본으로 삼을 만큼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윤리사상 중의 하나이다. 효행을 권장하는 전래동화로는 <가문장아기>가 있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내쫓은 부모를 위해 맹인잔치를 열고, 개안득명시켜 극진히 봉양한다.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에서는 소국성이 아버지 소천국의 수염을 뽑고, 대들자 버릇이 없다면서 무쇠상자 속에 넣어 바다에 띄운다. 버릇없는 자식을 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리는 행위는 <세화본향당>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수염을 뽑는 행위는 가장 큰 불효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자식을 석함 또는 무쇠함에 넣어 바다에 띄우는 단호함을 보여 불효에 대한 징치가 매우 엄중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악인의 비행을 징치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에서 거짓말을 하는 언니들을 지네와 버섯으로 변신시키는 것, <남선비>에서 계모가 본부인을 죽이고 그 자식들까지 죽이려다가 변소신으로 징치를 당하는 것들이다.

넷째, 충효정신을 권장하는 것이다. 조상신화인 <구슬할망>에서 해녀가 된 허정승 따님아기가 진주를 얻게 되자 임금님께 진상하고 그 상으로 일곱 구슬을 받는다. 귀한 물건을 임금님께 바치는 행위는 충성심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래동화를 통해 권선징악의 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을 바람직한 인성을 소유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게 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어린이들의 사회성 형성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전래동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건강부약의 법칙이 일어나는 동화가 많다²⁷⁾는 점이다. 따라서 남녀의 대결에서는 여성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동화가 많다. 그리고 선악의 대결에서도 선이 승리하는 귀결로 끝나는 것이 전래동화의 보편적인 유형이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서도 이런 전래동화의 성격을 보이는 작품이 있다. 자청비는 비록 여자지만 자신을 회롱하고 범하려는 정수남을 임기웅변으로 물리치고 있으며, 청미래 덩굴로 귀를 찢려 죽인다. <초공과 유씨부인>에서는 산천서당에서 공부한 선비들은 과거에 낙제하나 심부름을 하며 공부한 삼형제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또 <남선비>에서는 악한 계모 노일저대귀일의 딸을 막내아들이 복수하는 결말을 보이고 있다. 또 <가문장아기>에서는 막내딸이 자신을 미워하는 언니들을 저주하여 지네와 버섯으로 만든다. 또 <무당의 조상 이야기>에서 삼형제, <세화 본향당>에서 백주또가 삼천 선비와 대결을 벌여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허웅아기>는 저승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징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부약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 신화가 제주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은 배제되었다. 탈락된 이야기와 관련된 화소나 인물들도 배제되거나 변형된다. 이를 제주 설화의 화소 수와 제주 전래동화의 화소 수를 비교한 다음의 표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제주 설화인 <자청비>²⁸⁾에서는 142개의 화소가 제주 전래동화인 현길언의 <자청비>²⁹⁾에서는 59개의 화소로, 장영주의 <자청비>에서는 19개의 화소로 줄어들었다.³⁰⁾ 이 외에도 <무당의 조상 이야기>³¹⁾설화는 130개의 화소

27) 牽強扶弱이 법칙이 일어나는 전래동화를 손동인의 분석에 의하면 채집동화 825화 중에서 314편으로 38.0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손동인, 앞의 책, p. 66)

28) 현용준(1976), 「제주도 신화」, 서문당, pp. 142-181.

29)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 창작과 비평사, pp. 37-51.

30) 장영주의 자청비는 신문연재를 위해 집필하였는데, 중심화소만 채택하였기 때문에 원형설화에 비해 화소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pp. 79-83.)

31) 현용준(1976), 「제주도 신화」, 서문당, pp. 36-62.

가 동화에서 81개와 21개의 화소로 줄어들었고, <삼승할망>³²⁾은 52개의 화소가 18개의 화소로 줄어들었다. 신화가 전래동화로 개작될 때, 본래 있었던 화소의 탈락이 많은 것은 성인용 이야기가 어린 이용 독서물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화소의 탈락이 많은 <자청비>의 화소 변용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화 소 / 각 편	A	B	C	D	E
㉔ 김진국대감은 오십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다.	○	○	○		○
㉕ 절인부부가 자식을 놓고 양친대소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병이 났다.	○				
㉖ 동개남 은중절 스님의 말을 듣고 불공을 드려 딸 자청비를 낳았다.	○	○	○		○
㉗ 자청비는 빨래하러 갔다가 공부하러 가는 문도령을 만나 남장을 하고 따라갔다.	○	○	○	○	○
㉘ 자청비는 은대야 젓가락을 놓고 자서 의심받지 않는다.	○	○	○	○	
㉙ 문도령에게 버들잎에 편지를 써서 여자라는 사실을 알린다.	○	○	○	○	
㉚ 정을 나눈 문도령은 박씨와 열레빔을 남기고 옥황으로 간다.	○	○			
㉛ 하인 정수남은 나무하러 가서 소와 말을 잡아먹고 돌아와 장독에 숨는다.	○				
㉜ 벌레벗은 정수남은 자청비를 속여 문도령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				
㉝ 문도령을 만나려고 정수남을 따라갔던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인다.	○				
㉞ 부모님께 아뢰지만 부모는 화를 내며 힘든 일을 시킨다.		○			
㉟ 혼인시키려 하자 자청비는 길을 떠난다.	○	○			
㊱ 집을 나온 자청비는 부엉이를 사서 서천꽃밭에 던져 넣고 꽃감관을 만난다.	○	○			
㊲ 밤이 되자 부엉이로 변한 정수남을 사로잡아 막내 사위가 되나 함방을 하지 않는다.	○	○			
㊳ 서천꽃밭의 꽃을 얻어 정수남을 살려내어 집으로 데려가나 다시 내쫓긴다.	○	○			
㊴ 주모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문도령 자신이 주모할머니 집에 있음을 알린다.	○	○			
㊵ 찾아온 문도령을 바늘로 찔렀다가 문도령은 가 버리고 자청비는 내쫓긴다.	○	○			
㊶ 자청비는 선녀에게 물을 떠 주고 옥황으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 숨어 산다.	○				
㊷ 숯불과 작두 시험을 통과한 자청비는 며느리가 되었다.	○				○
㊸ 혼인 못한 서수왕 따남아기는 죽었다가 새로 환생하여 부부간의 정을 해친다.	○				
㊹ 자청비는 꽃감관 막내딸을 위해 보낸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아 까마귀를 보낸다.	○				○
㊺ 문도령이 돌아오고 여자는 머리를 풀어 짚으로 매는 법을 마련하였다.	○				○
㊻ ₁ 시집하는 무리가 문도령을 죽이고 푸대접할 것을 알고 문도령에게 독술을 먹인다.	○				○
㊻ ₂ 문도령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자살한다.			○	○	
㊼ 매미로 위기를 모면하고 서천꽃밭에서 꽃을 얻어다가 남편을 살린다.	○	○			
㊽ 큰 사변이 일어나자 문도령에게 멸망꽃을 주어 공을 세우게 한다.	○				
㊾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이 되고, 정수남은 축산신이 되었다.	○	○			○
㊿ 시집가던 자청비는 문도령의 무덤이 열리자 뛰어든다.			○	○	

위 표에서 A는 신화의 화소를 나타낸 것(세경본풀이)이다. 그리고 B는 현길언, C는 강정훈, D는

32) 현용준, 위의 책, pp. 25-35.

장영주, E는 최범서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자청비의 화소이다. 신화의 화소와 전래동화의 화소는 동일한 화소인데, 위 표를 보면 B 전래동화는 A 신화 화소와 비슷하나, C·D·E는 자청비의 출생과 문도령과의 만남, 헤어짐과 죽음, 무덤 속으로 따라들어감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화의 발단·전개 부분과 결말부분만 차용한 전래동화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자청비와 문도령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수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신화에서의 자청비는 사건과 화소가 풍부하다. 그러나 이 신화가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화소가 탈락되고, 결말도 달라지고 있다. 화소 ①에서 ②까지 28개 화소 중 A와 B 글에 공유하는 화소가 14개, A와 C 글에 공유하는 부분은 5개 화소이며, A와 D 글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3개 화소이다. A의 신화가 전래동화인 B·C·D·E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C와 D 글에서는 원래 신화에는 없는 결말구조에 2개의 화소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D 이야기는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

그런데 A, B, C, D에서 같은 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청비가 목욕하다가 자신이 여성임을 알리는 화소이다. 이 화소는 사건을 전환시키는 핵심 부분으로, A, B에서는 사건 전개에 중요한 모티프가 되나, C, D에서는 절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A, B, C, D에서 문도령과 잠자리를 달리하기 위해 둘 사이에 놓은 물건이 은대야에서 물동이로, 은대야에 걸친 물건이 젓가락에서 은수저로, 다시 은수저와 놋수저로 바뀌어 신화가 전래동화로 변이되어 가는 과정에서 첨가와 탈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A 신화에서 자청비가 주천강에 빨래하러 갔다가 문도령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B·C·D·E 동화에서는 우물가나 냇가에서 문도령을 만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은 동일한 모티프이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소재를 변형시켰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으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재를 선택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 A와 B, C와 D는 길이와 화소 수, 결말 등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자청비는 본풀이를 구연하는 무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 인물일지라도 시간적, 공간적인 영향으로 구연 내용이 변할 수 있으나 이야기 구조는 비슷하다. 그런데 전래동화에 수용된 자청비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진다. B 동화는 A 신화와 유사하나, C와 D 동화에서는 자청비가 여자임을 알아채지 못한 문도령이 자살하고, 시집을 가던 자청비가 문도령이 묻힌 무덤속으로 사라진다는 결말을 가지고 있다. 또 B 동화에는 A신화의 많은 화소가 수용되어 있으나, C와 D 동화에 이르면 화소 수가 감소하고, 새로운 화소가 삽입되어 전혀 다른 결말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래동화 C, D는 중국소설 <양산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양산백전과 새경본풀이에서 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②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며, ③ 처녀가

남자로 변신해 공부하러 가며, ④ 동문수학하다 여성이라는 걸 눈치채며, ⑤ 소피 멀리싸기 경기를 하여 의심을 풀고, ⑥ 적군을 물리쳐 대승하며, ⑦ 죽은 남자의 무덤이 열려 여자가 들어간다는 화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유사성을 근거로 자청비가 양산백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한 논문³³⁾들이 있지만, 중국의 講唱문학이 우리 나라나 제주도에 전승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야기의 친족성만으로 영향관계를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임으로 제주 신화와 중국소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앞으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E는 서두부분과 자청비를 낳는 사건은 A·B·C와 동일하나 문도령과 자청비가 만나 함께 공부하러 가는 과정이나 남자인지를 확인하는 시험, 자청비의 고백 등이 탈락되고, 신화 <자청비>의 후반부로 건너뛰어 종결을 맺음으로써, 전래동화로서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화소의 선택과 배열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예가 될 것이다. 이재철은 전래동화의 再整法에서 “각 사건은 낱알이 그 앞의 사건에서 추출된 관계를 피하여 배열되어야 하며, 모든 사건은 유기적 통일을 기해야 한다.”³⁴⁾고 규정하고 있는데, E의 자청비는 사건의 선택과 배열에서 부자유스런 역전이 일어나 전래동화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 화소의 탈락은 인물의 탈락으로 이어진다. 전래동화에 수용된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화소의 탈락으로 생략되는데, 신화 A와 동화 B, C, D, E를 비교하면 B에서는 결인부부와 하인 느진덕정 하님이 탈락할 뿐만 아니라, 자청비를 회롱하고 유혹하는 화소가 배제되면서 동시에 정수남이 탈락되었다. 또 ‘서천꽃밭’이 탈락하면서 신선과 서수왕따님 아기, 꽃감관 막내딸이 탈락하고 있다. C, D에서는 자청비, 문도령, 김진국대감, 스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탈락되고 있으며, E에서는 불량배와 서천꽃밭 꽃감관의 막내딸이 등장하고 있어 화소의 첨가와 탈락이 인물의 첨가와 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물과 화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물은 사건을 전개시키며, 사건의 전개가 많아질수록 화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화소의 증가와 탈락은 바로 작중 인물수의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에도 대립과 반복의 형식은 나타난다. 선과 악의 대립에는 <대별왕과 소별왕>이 있는데, 형은 마음이 선하나 동생은 욕심이 많은 것으로 묘사된다. <남선비>에서는 착한 큰 부인과 악한 작은 부인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의 형식에서는 <삼성신화>에서 세 신인과 세 공주, <가문장 아기>에서 셋째딸과 셋째 아들, <남선비>에서 일곱째 막내아들이 주인공이 되어

33) 장주근(1973), “敍事坐歌의 始源과 民俗文藝史上의 位置”, 文化人類學 5輯

조현희(1990), “세경본풀이의 연구-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기대 대학원 석사논문.

34) 이재철(1983),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p. 179.

공을 쌓거나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전래동화의 형식과 일치한다.³⁵⁾

그런데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남녀 비율을 보면 6 : 1 정도로 남성의 등장이 많다. 이러한 점은 자청비나 가문장아기, 삼승할망, 구슬할망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래동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역할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성중심 사회상의 반영이며, 선조들의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은연중에 드러난 결과이다. <자청비>, <초공과 유씨부인> 등에서 부처님께 드린 재물이 모자란 이유로 딸을 내놓게 되는 것도 남아선호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어린이는 자청비의 출생과정, 허웅아기의 아이들, 수염을 뽑아 추방당하는 소국성 뿐으로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대부분 성인이라는 것도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속의 어린이는 어린이 상태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 엄밀하게 분석하면 어린이를 중심인물로 한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녀의 비율과 성인과 아동의 비율을 보면 설화가 주로 성인 남성들에 의해 구비 전승되어 왔고, 그 중 일부만 전래동화로 변이되어 어린이들에게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서 시대적 배경은 구체적 언급 없이 '옛날옛적' 등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 배경은 삼성신화나 당신화, 조상신화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반 신 본풀이에서는 천상, 천하, 지하세계, 용궁, 주천강, 주년국, 여산고을, 오동나라 등 팬터지에 의한 가상적 세계가 지리적 배경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배경인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는 엄격히 구분되어 단절된 것이 아니고, 통로가 마련되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세계이다. 신화의 인물들이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신과 혼인하거나 동문수학을 하는 등 인간과 신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처럼 지리적 배경에도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리적 배경에도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서 시대적 배경은 신화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주천강, 주년국, 여산고을, 오동나라 등의 지리적 배경은 수용되지 않았다. <사만이>, <자청비> 등에서는 지리적인 배경은 탈락된 채, 시대적 배경과 인물에 대한 소개만 도입부에 전개되고 있어 신화에서 지리적 배경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라산신이 된 소국성>에서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제주도라는 지리적 배경과 용궁이 함께 나온다. 특히 당신들의 좌정을 소개한 전래동화에서는 구체적인 제주지명이 언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 전래동화를 논의한 결과 주제는 권선징악이 많다. 그리고 화소의 탈락은 인물의 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 폭력 등 비교육적 화소들이 탈락되었다. 등장 인물은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리적 배경은 일반신 본풀이

35) 최운식, 앞의 책, pp. 43-44.

에서는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적 배경이 등장하나 당신의 좌절을 다룬 전래동화에서는 구체적인 제주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신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알맞은 사건과 배경을 수용하고 있어 전래동화로 변용시키는 데 알맞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주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또한 이들 신화 속에는 권선징악의 교훈들이 내포되어 있어 교육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화소와 인물의 탈락이 많아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의 교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전설의 수용

전설은 전승자가 진실되었다고 믿고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고,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이다. 전설에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많으며, 일정한 지역을 발판으로 그 주민들에게 지역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애郷심을 고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설은 진실성·역사성·체험성·설명성·비약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전설이란 특정한 장소나 인물 등에 관한 이야기로 사건의 기원이나 자연현상·물질현상에 관한 인간이 경탄할 만한 이야기들이다. 민중적인 것으로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전설에는 자연전설과 역사전설이 있다. 자연전설이란 한라산에서 바닷가의 바위에 이르기까지 자연물에 얽힌 것으로 생성 전승되고 있다. 역사전설이란 인물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들의 업적이나 기행들이 전승되는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전설은 총 108편이다. 그 중에서 역사전설(인물전설)은 56편(51.9%), 자연전설은 46편(42.6%)이다. 제주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자연전설은 생성유래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 한라산과 오름, 바위, 계곡, 폭포, 동굴, 샘물 등의 자연은 제주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삶의 현장으로 도민의 정서가 배어 있는 곳이다. 이 자연물에는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 했던 선인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 전래동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동인은 한국 전래동화의 주제들을 열 가지³⁶⁾로 분류하고 있는데, 50%가 권선징악이나 윤리도덕을

36) 손동인은 전래동화 200화의 주제를 분류하여 빈도수가 큰 주제를 순위별로 나열하였다. (손동인, 앞의 책,

그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 전래동화 중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를 분석해보면 한국 전래동화와는 차이가 크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부록 2참조)

< 표 - 4 >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 주제 분류

주 제	신 화	작품수	비 율%
생성유래·이유	24, 26, 27, 28, 30, 33, 34, 35, 37, 38, 40, 44, 47, 49, 52, 53, 54, 55, 62, 65, 66, 67, 71, 76, 94, 101.	26	23.9
장수·기인의 좌절	73, 79, 80, 81, 82, 84, 85, 89, 96, 97, 109	11	10.1
별시 금지	74, 89, 95, 104, 105, 115, 123, 124,	8	7.3
장수의 업적	83, 88, 98, 100, 102, 119, 127,	7	6.4
허욕 금지	22, 39, 41, 57, 75, 93	6	5.5
은혜 베품	87, 111, 118, 120, 126, 129	6	5.5
효도	31, 45, 50, 77, 78,	5	4.6
명판관, 명의의 업적	36, 48, 99, 117, 121	5	4.6
기지·지혜	106, 107, 114, 122, 125	5	4.6
충성심	58, 59, 60, 61, 72	5	4.6
명당 발복	25, 63, 64, 68, 69,	5	4.6
기인의 행적	90, 91, 92, 112	4	3.7
동물의 몰락	23, 43, 51	3	2.8
지성감천	56, 86, 116	3	2.8
기타	29, 32, 42, 46, 70, 103, 108, 110, 113, 128,	10	9
계		109	100

위 표를 보면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제주도 전설은 생성 유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장수·기인의 좌절 순이다. 제주 전래동화에서 생성 유래를 밝히는 주제가 가장 많은 것은 자연전설이 폭넓

p. 38.)

대상 동화	주 제 명	빈도수	대상 동화	주 제 명	빈도수
1969 년도 117화 경우	아는 것이 힘·지식의 우위성	18	1968년 도 200화 경우	아는 것이 힘·지식의 우위성	34
	남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	15		생성유래·원인·이유	23
	허욕을 부리지 말라	13		남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	21
	지성감천	13		허욕을 부리지 말라	21
	효도하라. 효성망극	13		지성감천	19
	생성유래·원인·이유	12		양심·선심을 가져라	16
	은혜를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	12		효도하라. 효성망극	14
	은혜를 갚아라	11		은혜를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	14
	남 깔보지 말라. 남의 인권 존중하라	11		은혜를 갚아라	14
	정신 일도 하사 불성	9		남 깔보지 말라. 남의 인권 존중하라	12
	양심·선심을 가져라	9		정신 일도 하사 불성	10

게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기암괴석이나 연못, 섬 등 생물에 관한 전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선인들이 제주 자연을 범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제주 선인들의 사상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기인의 좌절이나 업적을 주제로 하는 전래동화가 많았다.

교훈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의 주제로는 '멸시 금지', '허욕 금지', '은혜 배품', '효도'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동물의 몰락, 지성이면 감천, 충성심, 해학적 기인, 명의를 업적 등이 있다.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들은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하나 한국 전래동화의 주제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전래동화는 교훈적인 주제가 50%인데³⁷⁾, 제주 전래동화는 39편으로 35.8%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제주 전래동화의 원형인 제주 설화가 성인들을 위한 문학이었기 때문이며, 숙명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나 장사들의 업적과 좌절, 기행 등의 주제를 가진 전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유래를 주제로 하는 전래동화들 중 권선징악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오백장군>은 불효, <수월봉과 녹고물>은 효도, <외돌괴와 범섬>은 충성, <절부암>은 열녀, <군산에 얹힌 이야기>는 보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외의 주제들로는 열녀, 정신일도 하사불성, 징벌, 형제 우애, 이별의 한, 미신타파, 문반과 무반의 우열 가름 등이 있다.

전래동화는 동심을 바탕으로 하여 재화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들 중에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 <열녀바위>는 잉태를 위해 천지신명에게 빌던 새끼가 겁탈당하자 자살하여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오돌또기>는 민요 오돌또기의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로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린이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래동화의 주제로는 적합치 않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에는 선악의 대결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결양상을 보이는 전래동화로는 <김녕사굴>, <외돌괴와 범섬>, <고승과 사또>, <매고 할망>, <김천덕과 선비> 등이 있는데, 이 동화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선악의 대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을 사람을 해치는 뱀과 이를 죽이는 목사의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 <김녕사굴>에서 뱀은 사악한 존재이지만, 목사는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지, 선한 존재는 아니다. 또한 <매고 할망>에서도 전남편을 죽인 현재의 남편은 악인이지만, 매고 역시 선한 인물이 아니라 잔인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웅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설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는 악한이 등장하여 남을 괴롭히는 사건은 나타나지만, 악한과 대결 양상을 벌이는 사람이 선인이거나 악한 사람이 천벌을 받거나 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

제주 전래동화에는 건강부약의 법칙이 일어나는 사건이 적다. 여성이 남성을 이기는 동화로는

37)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p. 40.

<문만호 머느리>와 <경김덕 머느리> 등이 있는데, 젊은이들도 들기 어려워 찢찢매는 등들을 머느리들은 공깃돌 다루듯이 처리하고 있어 여성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오찰방>, <힘센 남매> 등 오늬 힘내기 사건에서도 여자인 누나가 남동생과의 씨름에서 승리하여 건강부약의 법칙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늬 힘내기 전래동화에서 누이는 소를 열 마리를 먹고 태어난 존재이며, 아우인 남동생은 소를 아홉 마리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이보다 힘이 약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건강부약의 법칙이 준용되는 동화라고 할 수 없다.

동물을 징치하는 전래동화로는 <이순풍과 여우>, <여우물>, <이좌수> 등이 있는데 여우가 등장하는 전래동화에서 여우는 징치의 대상으로 대개 개에게 물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전래동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호랑이³⁸⁾가 제주 전래동화에서는 단 3편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 전래동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 맹수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³⁹⁾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화와 전래동화의 길이를 비교하면 길이가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 비슷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화소의 첨가·탈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설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의 화소를 분석해 보면 전설에 비해 화소가 늘어난 전래동화가 57편, 감소한 전래동화가 49편, 동일한 전래동화가 59편이었다.

전설이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화소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설과 전래동화 사이에 변화된 수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화소가 증가한 전래동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에 얽힌 전설과 전래동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A. 전설 <명당과 명구>⁴⁰⁾

1. 금악리 강씨가 죽자 뒷자리를 찾아다녔다.
2. 강씨가 귀여워하던 개가 돌아와 짖었다.
3. 개가 지관을 물어 당겨 따라가 보았더니 명당이어서 강씨를 묻었다.
4. 별동산도 명구가 가르친 명당이다.

B. 전래동화 <의리 있는 개무덤>⁴¹⁾

1. 귀덕리에 한 노인이 개를 길렀는데 아주 영리하였다.
2. 노인이 병들자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안 자며 주인의 병을 걱정하였다.
3. 노인이 죽자 개가 집밖으로 나갔다.

38) 이성진, 앞의 책, p. 6.

39) 설화 <아흔아홉골>과 <일출봉>에서는 봉우리가 99개여서 제주도에 맹수가 살지 않는다고 함.

40) 제주도편(1985),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pp. 247-248.

41)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 창작과 비평사, pp. 185-187.

4. 뗏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례 일자도 정하지 못했다.
5. 개가 돌아와 상주의 상복을 잡아끌어 산 속까지 따라갔다.
6. 개가 주둥이로 뗏자리를 그어 놓아 상주는 그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다.
7. 얼마 후 개가 죽자 무덤을 노인 옆에 만들어 주었다.
8. 그후 집안이 번창하였는데, 개가 명당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위 전설과 전래동화를 비교하면 주인을 위해 명당을 찾아 준 명구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에 수용된 화소들 사이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설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래동화는 화소의 수가 많고,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전설과 달리 전래동화에서는 개가 주인을 몹시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의 병을 걱정하여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잤다고 하는 등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흙투성이가 되도록 주둥이로 뗏자리를 그어 놓았다고 하여 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또 주인은 개가 죽자 노인의 무덤옆에 묻어 주어 개에게 보은한다는 화소를 첨가하여 이야기의 결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둘째로 화소가 감소한 전래동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A. 설화 <월계 진좌수>⁴²⁾

1. 조선조 명월리에 호가 월계인 진좌수가 살았는데, 10리 떨어진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2. 돌아오는 길에 처녀와 구슬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였다.
3. 훈장은 구슬을 삼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라고 하였 다.
4. 구슬을 삼키자 처녀는 여우로 변해 달려들고 소년은 겁결에 사람 살리라고 도망쳤다.
5. 훈장이 담뱃대를 휘두르며 호통치자 여우는 달아났다.
6. 하늘과 땅은 보지 않고 사람만 보아 의술이 뛰어나겠다고 하였으며, 소년은 의술에 통달하여 월계 진좌수라 불리었다.
7. 난산 끝에 죽어 가는 여인에게 침을 놓아 살려주었다.
8. 아침 일찍 난산을 겪는 부인에게 문지방을 살라 먹이라고 하여 순산하였다.
9. 저녁에 난산을 겪는 여인이 문지방을 살라 먹었다가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 문을 닫는 시간에 문지방을 먹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10. 남편이 3년간 병이 든 여인이 찾아오자 부정을 범한 남자가 죽었을 거라고 하였는데, 아내의 살기가 그 남자에게 옮겨갔다고 하였다.
11. 명주를 짜다가 죽은 여인에게 침을 던져 배에 꽂아 살려내었다.
12. 술을 많이 먹은 남자는 산돼지 털이 내장을 찢어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13.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온 소년에게 두 인골 쌍룡수를 먹이라고 하여 살아났다.
14. 임금님의 병이 나서 궁중에 갔다가 푸대접을 받았는데, 정승의 어머니가 죽어 간다고 하니 쌀을 먹이도록 하여 살아나게 했다.

42)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p. 131-143.

15. 정승의 안내로 임금님의 등창을 고쳐 드리고 좌수벼슬을 받았다.
16. 제주로 오는 배를 타려다가 살 운수가 있는 사람이 와야 같이 타고 왔고, 둘이 내리자 배가 물려가 얹어져 버렸다.
17. 진좌수의 의술을 시험하던 청년이 정말로 죽어 버렸다.
18. 죽은 후에도 정의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다.

B. 전래동화 <구슬을 먹는 아이> 43)

1. 조선조 명월리에 이름은 진국태, 호는 월계인 진좌수가 살았다.
2. 몸이 약해져 혼장이 묻자 매일 처녀가 주는 구슬을 삼키지 않고 뱉었다고 하였다.
3. 혼장은 구슬을 삼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라고 하였다.
4. 구슬을 삼키자 처녀가 마구 때려 소년은 매를 맞았는데 혼장이 소리치자 도망가는 아가씨에게 꼬리가 있었다.
5. 하늘은 보지 않고 사람만 보아 의술이 뛰어났다.
6.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오던 여자가 한 남자로부터 매를 맞는 걸 미리 알았고, 매를 때린 남자가 죽었을 거라고 하였고, 남편은 병이 나았다.
7. 병을 고쳐 달라고 찾아온 남자에게 해골의 물을 마시라고 하여 살아났다.
8. 진좌수의 의술을 시험하던 아이가 정말로 죽어 버렸다.
9. 중국 사람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 이미 죽고 없었다.

전설 <월계 진좌수>와 전래동화 <구슬을 먹는 아이>의 화소를 비교하면 전설이 전래동화로 수용되면서 화소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계 진좌수>의 화소가 17개인데, <구슬을 먹는 아이>에서는 9개에 지나지 않는다. <구슬을 먹는 아이>에서 화소가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우선 사건의 탈락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월계 진좌수>에서 탈락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난산 끝에 죽어 가는 여인에게 침을 주어 살려주었다.
2. 아침에 난산하는 여인에게 문지방 태운 재를 먹이라고 하여 살렸다.
3. 저녁에 난산하는 여인은 문지방 태운 재를 먹었더니 고통이 더 심해졌다.
4. 3년간 병을 앓은 남편을 위해 찾아오던 여인을 간음한 남자가 죽어 버렸다.
5. 명주를 짜다가 죽은 여인에게 침을 던져 놓아 살렸다.
6. 술과 산돼지 고기를 먹고 죽은 남자는 살리지 못했다.
7. 임금님의 병과 정승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었다.
8. 죽을 운을 가진 사람들은 살 운수를 가진 사람과 진국태가 내리자마자 배가 파선하여 죽어 버렸다.

위 <월계 진좌수>에서 탈락한 사건들을 보면 전설이 전래동화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못하는 화소들은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전설과 전래

43) 강정훈, 앞의 책, pp. 90-96.

동화 인물에서는 사건이 어린이의 정서에 맞는 쪽으로 변용되거나 화소의 변이가 일어나 이야기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사건의 변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 건	월계 진좌수	구슬을 먹는 아이
○ 처녀의 구슬을 받아먹음	○ 처녀와 구슬을 먹고 뱉는 놀이를 함	○ 처녀가 구슬을 삼키라고 해도 뱉어냄
○ 처녀가 여우로 변함	○ 구슬을 먹자 여우로 변해 달려듬	○ 치마사이로 여우 꼬리가 보임
○ 남편을 위해 찾아온 여인	○ 참외밭 주인과 정을 통함	○ 남자에게 매를 맞음
○ 해골물 마시기	○ 해골에 고인 쌍룡수를 먹으라고 함	○ 해골에 고인 물을 먹으라고 함
○ 의심하던 사람의 죽음	○ 의심하던 청년이 머리를 부딪혀 죽음	○ 의심하던 아이가 죽음
○ 죽은 후의 사건	○ 죽은 후에도 약방문을 지어 주어 고침	○ 죽은 후 중국에서 찾아옴

위 표를 보면 전설 <월계 진좌수>가 전래동화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많은 화소가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 전설 중에서 <날개달린 아기 장수>를 분석하면 화소의 탈락이나 수용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 5> 아기장수의 화소 변용 양상

설화명	출 생	날개의 이용	날개의 발견	날개의 처리	공 세 우 기	좌 절	결 과
오찰방 (1)	조선조 현종 때, 대정고을에서 소 아홉 마리 잡아 먹고	산방산과 단산봉을 올라감,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다침	잠든 틈에	그대로 둠	한양에 가서 도둑을 잡음	역적으로 몰림	찰방벼슬을 함
오찰방 (2)	대정고을에서 소 아홉 마리 잡아 먹고	산방산을 단숨에 오름	술을 먹이고	모른 채 함	한양에 가서 소년도둑을 잡음	대신의 흉계로 찰방벼슬	대신을 죽이고 돌아와 찰방벼슬을 함
오찰방 (3)	인성리에서 소 아홉 마리 잡아 먹고	산방산으로 올라감	술을 먹이고	인두로 지짐	한양에 가서 도둑을 잡음	역적으로 몰림	찰방벼슬을 받고 돌아옴
날개아기 달린 장수	태흥리 묵은 가름에서	방안에서 날아다님	천장에서 내려놓다가			관가에서 잡으려 함	관군이 손총에 맞아 죽음
홍업선	신엄리에서	짚신을 일찍 팔아옴	술을 먹이고	잘라 버림			힘이 센 장사로 삶
장사 양태수	제주마을에서	방안을 날아다님	방안을 날아다님	칼로 자름	왜놈의 배를 잡음		힘이 센 장사로 삶

날개돋친 밀양 박씨	외도2동에서	나라 소에서 날아 다님	잠든 새에	인두로 지짐	힘이 장사이 고 총명함	날개를 지 진 자국이 아물지 못 함	스물 아홉 에 죽음
평대 부대각	평대리에서 용꿈 을 꾸고 쌍둥이 낳음	힘이 장사이고 머 리가 영리하며, 날 아다님	물래 숨어서	작은아들의 날개를 꺾음	힘이 아주 셈	큰 아들은 날아가버 림,	묘가 남아 있음
한연 한배임재	김녕리에서 오공 형에 묘를 쓰고 태어난.	방안을 날아다님	물래 숨어서 문틈으로	숨가락으로 지저서	힘이 아주 셈	수적을 일 망타진 함	조정에서 상을 줌
배락구룡	이호동 다호부락 에서	성안까지 심부름을 하고도 짚신에 흙 이 묻지 않음.	술을 먹이고	칼로 자름			벼락이 내 리면서 못 이 생김

위 설화의 각편들은 전승지역에 따라 아기장수의 탄생과 성장, 날개의 처리, 결말 등이 조금씩 다르게 수용되어 있다. 결말을 토대로 아기장수 설화를 분류하면 세 갈래로 구분된다. 날개는 잘렸지만 장사로 산 생존설화, 날개를 자르자 벼락이 내려 못이 되어 버렸다는 단혈설화, 날개를 잘랐기 때문에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설화가 그것이다. 육지부의 아기장수 설화들 중 날개 계열의 설화들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결과를 ① 출생 → ② 실종(결핍) → ③ 날개(충족) → ④ 위기 → ⑤ 죽음 → ⑥ 용마(죽음 강화) → ⑦ 결말⁴⁴⁾로 분류하고 있다. 아기장수의 날개가 잘림으로써 죽게 되고 용마로 재생했다가 다시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육지부 아기장수 전설의 구조이다. 그러나 제주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비록 날개가 잘렸어도 죽지 않고, 장사로 살아남아 제 몫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개는 제주인들의 강인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소재영은 “죽음보다는 생존을 선택하여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수명을 마치는 운명 개척적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⁴⁵⁾고 하여 비극을 승화시켜 최선의 삶을 살아온 제주 선인들의 강인함이 살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벼락이 내려 못이 생겼다는 <배락구룡>은 욕심많은 부자네 집이 벌을 받아 못이 되었다는 강원도 황지 전설과 매우 유사한데,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날개를 자른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생겨난 듯하다. 김수업은 용마의 출현과 죽음을 ‘죽음의 강화’로 해석하고 있는데, 제주의 설화 중 이와 유사한 <배 큰 정서방>에서도 용마가 바다에서 솟아오르지 못하고 물 속에 잠겨 죽음을 택하는 결말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 설화와 본토 설화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래동화는 단독으로 창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전승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형성된

44) 金守業(1994),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p. 94.

45) 소재영, 앞의 책, p. 21.

것으로 전설의 생명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승자들은 설화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기억하였다가 전승의 장에서 청자에게 이야기하며, 화자는 다시 전승자가 되어 또 다른 청자에게 전승시킨다. 전래동화가 전승되는 가운데, 지방에 따라 배경이 달라지거나 화소가 첨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의 사건은 설화의 사건과 동일하다. 특히 설화와 전래동화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제주 전설과 전래동화에서 사건은 고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사문학은 이야기 문학이다. 그 이야기는 인물에 의해 꾸며진다. 간혹 인물이 없는 전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을 전개시킨다.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도깨비가 등장할지라도 인간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큰 거부감 없이 접하게 된다.

제주 전설과 전래동화의 인물을 비교하면 전설의 인물이 그대로 전래동화의 인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설의 남녀 인물이 전래동화에서 탈락한 경우를 보면 <오찰방>에서 누이와의 힘겨루기 화소가 배제되어 여자 1명이 탈락하였고, 감목관 김택에서 고종달의 화소가 없어지면서 남자 1명이 탈락하였다. <홍리 고대각>에서는 <오찰방>의 오늬 힘내기와 같은 사건이 탈락됨으로써 여자가 탈락된 것을 제외하면 전설의 남녀 인물이 전래동화에도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 전래동화들을 통해서 전설의 인물이 변하지 않고 전래동화의 인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래동화로 수용되어도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전설을 수용하여 전래동화로 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환경으로서의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경이란 작중 인물들이 행동하는 현실적 조건이며, 작품내 행위의 주체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장병립은 인간의 존재하는 배경을 지리적(물리적), 행동적(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⁶⁾ 지리적 배경이란 자연적 물리적 배경으로서 의식체험과는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총체이다. 행동적 배경이란 개체에 의식될 뿐더러, 체험되어 있는 환경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으로서 배경은 문학작품 속 인물의 존재 방식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따라서 전설에서 사건이 어떤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전설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화의 배경과는 차별성이 드러난다. 신화에서는 옥황이나 주년국, 남선마을, 서천꽃밭, 주천강 등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배경이 나타나지만,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이 무대가 된다.

전설은 이야기의 연대·사건 발생장소·주인공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 화자가 청자에게 진실이라고 믿게 한다. 전설은 산천·바위·도서·사찰·교량 등의 형성 유래 등을 그 진부에 관계없이 설명하려는 특징이 있다.

46) 장병립(1966), 「아동의 행동원리」, 법문사, p. 25.

전설의 배경은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인물에 의한 사건이 전개되므로 시대적 배경⁴⁷⁾과 지리적 배경⁴⁸⁾, 신분적인 배경⁴⁹⁾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전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조선조 어느 때 ② 한림읍 명월리에 ③ 진좌수가 살았다. 진좌수의 이름은 국태요, 호는 월계로서 의술이 능하였다.

전설 <월계 진좌수>⁵⁰⁾에서

③ 범천충은 광산김씨로서 이름은 용우다. ① 약 400년 전 ② 구좌읍 한동리 굴미왓이라는 집터에서 살았다. 키가 8척 장신인데다 눈이 쌍둥공이어서 성을 내어 눈을 치켜 뜨면 마치 호랑이 눈 같아 건장한 사나이도 기절해 버렸다 한다.

전설 <괴범천충>⁵¹⁾에서

월계 진좌수 전설에서 서두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①시대적 배경 ② 지리적 배경 ③ 인물 및 신분적 배경 순으로 서두가 시작되는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괴범천충에서는 천충이라는 신분적 배경이 먼저 나오고 신체적 특징이 부연되고 있다. 전설의 도입부는 여러 형식이 있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형식이 일반적이다.

전래동화에도 이러한 서두형식은 전승되고 있다.

① 옛날 ② 구좌읍 한동리 굴미왓에 ③ 천충이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래동화<괴범천충>⁵²⁾에서

①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② 제주도 화순리에 ③ 구운문이란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운문은 워낙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서 사람들은 그의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래동화<장사 구운문>⁵³⁾에서

제주 전설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서도 시대적, 지리적, 신분적 배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물과

47) 시대적 배경(사회적 배경)은 설화나 전래동화에서는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옛날'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반복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설에서는 구체적인 연대가 제시되고 있음.

48) 설화에서 지리적 배경(자연적 배경)은 현실세계(제주도, 서울, 중국 등) 초현실 세계(옥황, 지하세계, 용궁 등)가 있는데, 현실세계와 초현실세계가 구분이 없거나 통로가 있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함

49) 신분적 배경은 설화의 인물들 대부분의 서민이 많으나 명판관, 암행어사 등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부류의 인물이나 奴僕, 머슴 등 낮은 신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함.

50)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 131.

51) 현용준, 위의 책, p. 105.

52) 제주아동문학협회, 「탐라가 탐나요」, p. 84.

53) 제주아동문학협회, 위의 책 p. 99.

사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래동화의 배경은 전설의 배경과 유사하다. 그런데 전래동화집에 수용된 동화를 살펴보면 시대적·지리적 배경이 탈락되어 전설의 도입부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시대적·지리적 배경을 분석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부록 2 참조)

< 표 - 6 > 전래동화의 배경 수용양상

구분	A	B	C	D	E	F	G	H	계
총 편 수	53	20	15	48	98	24	22	30	310
시대적 배경의 수용 수	47	2	14	43	58	18	15	15	213
비율 (%)	88.7	10	93.3	89.6	59.2	79.2	68.2	50	68.7
지리적 배경의 수용 수	47	4	15	43	68	22	19	24	242
비율(%)	88.7	20	100	90	69.4	91.7	86.4	80	78.1

(* A, B, …… G, H는 제주 전래동화집 8종을 의미함)

위 표는 전래동화에서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의 수용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도입부에 시대적인 배경을 명시한 것은 68.7%로 기본 형식에서 이탈된 전래동화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B동화집에서는 90%나 탈락하였으며, D동화집에서도 40.8%가 시대적 배경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시대적 배경으로 시작하던 설화가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전설 구연 현장에서는 화자가 옛날 이야기라는 진술을 하지 않아도 청자는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전래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에게는 옛날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기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C 전래동화집은 93.3%나 시대적인 배경을 수용하고 있어 기본 형식에 충실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리적 배경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면 8종의 전래동화집에 실린 310편 중 78.1%만 수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C전래동화집에는 100% 수용되고 있으나 B전래동화집은 20%를 수용하고 있어, 시대적 배경이 탈락과 함께 지리적 배경이 탈락하여 전래동화의 기본 형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래동화집에 수용된 동화가 시대적, 지리적 배경을 탈락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의 형식중 전설을 수용한 것은 시대적, 지리적 배경과 인물의 소개를 도입부로 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래동화는 민담처럼 역사적 사

실을 증거하려는 의도보다는 사건을 통해 감동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시대적, 지리적 배경은 부수적인 것이어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전설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는 신화나 민담에 비해 그 빈도수가 많다. 이는 전설이 신화나 민담에 비해 설화집에 수록된 편수가 많은 때문이다. 자연전설인 경우에는 생성유래가 많고, 지리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여건을 갖고 있으며, 또 역사전설은 선인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 어린이들에게 전승시키려는 작가의 욕구가 크며, 제주 작가들의 애향심이 표출된 이유라 생각된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지만, 생성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한 다수를 차지한다. 또 힘센 장수나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좌절, 기인의 업적이나 명인의 재능을 드러낸 이야기도 있어 한국 전래동화처럼 교훈적인 주제 비중이 크지 않다. 건강부약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래동화나 선악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전래동화가 작은 것은 제주 선인들의 의식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소의 탈락과 확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편적으로 길이가 늘어난 전래동화가 많고, 시대적·지리적 배경이 생략되어 창작동화와 같은 유형으로 바뀐 것이 많은데, 이는 사건을 전달하려는 주목적이 강조되고, 시대적, 지리적 배경 등 부차적인 것들이 배제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3. 민담의 수용

민담은 민간설화, 民話(日本) 또는 옛날 얘기 등 여러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 서구어에서도 folktale, marchen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설이 여럿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설화 혹은 옛날 얘기라고 하나, 민담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또 보편화되어 있기에 이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옛말’, 또는 ‘옛날 이야기’를 동의어로 보기도 하지만 ‘이야기’란 말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서사적 구조를 가진 문예의 한 형식”⁵⁴⁾으로 신화나 전설도 포함하게 되므로 민담의 동의어가 아니라 설화의 동의어로 보아야 한다. 민담은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로, 특정의 장소·시대·인물이 지적되지 않고, 필연성이 전제되지도 않는, 흥미 본위의 꾸며낸 이야기”⁵⁵⁾이다.

민담과 신화·전설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담은 흥미를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로 사실성이나 진실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민담은 시간과 공간, 증거물이 제시되지 않는다. ‘옛날에’나 ‘옛날 옛날’ 등의 시간은 신화에서의 ‘태초에’나 전설처럼 구체

54) 최운식, 앞의 책, p. 91.

55) 최운식, 앞의 책, p. 91.

적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되지 않는다. 전설이 역사적 사건에 집착하여 사실성과 진실성을 보장받으려는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셋째, 민담의 인물은 신화의 인물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거나 전설의 주인공처럼 예기치 않던 사건에 직면하여 왜소해지지도 않으며 좌절을 겪지도 않는다. 민담의 주인공은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이를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한다. 넷째, 민담은 흥미본위의 사교적 교환물로 꾸며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꿈과 낭만, 웃음과 지혜, 교훈,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 등이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다.

민담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제공해 준다. 또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지혜를 준다. 선과 악의 대립에서는 선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에서는 피지배자가 승리하는 이야기이며,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의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다. 이런 민담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고 돈독히 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가족간, 스승과 제자간 등에 사랑과 인정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민담의 수용자는 이를 통하여 문학적 형상력을 기를 수 있다. 민담은 시간과 장소, 증거물 등의 제약 없이 흥미 본위로 마음껏 상상하여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민담의 수용자는 이를 즐기는 가운데 교훈을 깨닫고, 현실로부터 해방감과 보상적 만족을 느끼는 한편, 상상력과 문학적 형상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민담수는 36편으로 전설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가 전체의 65.3%를 차지하나 민담은 19.7%로 전설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래동화집 8종 12권에 수용된 민담수는 53편으로 민담 1편이 8종의 전래동화집에 평균 1.5편이 수록되어 있어, 201편이 수록된 전설, 219편이 수록된 신화에 비하면 전래동화로 수용된 민담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민담집으로 진성기⁵⁶⁾와 현용준⁵⁷⁾ 자료집이 있다. 그런데 진성기의 민담집에는 신화와 전설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성격상 민담집이라는 명칭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현용준의 민담집은 학생들이 채록한 민담으로 전래동화에 수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민담이 많았다. 그리고 이 민담집은 1969년에 채록된 것이지만 1996년에 간행하여 제주 전래동화집 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두 민담집에 수록된 민담은 총 210편인데, 그 중 전래동화로 수용된 것은 12편이며, 이 중 진성기의 민담집에 실린 8편은 전설이었다. 현용준의 민담집에 실린 <봉사와 앓은뱅이>, <역고봉이와 두루봉이(야구봉이와 두루봉이)>는 전래동화로 수용된 동화이며, 진성기의 제주도 전설집에 실린

56) 진성기(1976), 「제주도민담」, 제주민속연구소.

57) 현용준(1996), 「濟州道民譚」, 제주문화.

<녹일국 정명수>, <이순풍과 여우>까지 합하여 4편의 민담이 전래동화로 수용되어 있어 민담이 전래동화로 수용된 빈도 수가 적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가 많지 않다는 것은 민담의 내용이 어린이의 정서에 걸맞지 않아 작가가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민담 중에는 흥미본위로 꾸며져 동심과 거리가 먼 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진성기의 제주도 민담집에 수록된 103편의 민담 중에서 어린이의 정서에 알맞은 민담은 <청개구리>를 제주민담으로 수용한 <청골개비>와 <천전내 여시>, <뽕디뽕 오좌수> 등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⁵⁸⁾

또 작가의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전설에 치중한 나머지 민담의 수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채택되지 않은 제주 민담 중에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게 흥미롭고, 교훈성을 함유한 것들이 있다. <굴묵하니>, <삿갓등이와 파랭이등이>, <병등이> 등은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민담이라고 생각된다.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주제는 교훈적인 내용이 5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씌어진 글이기 때문에 교육적 배려에 의해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민담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2참조)

< 표 - 7 >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 주제 분류

구 분	민 담	편수	비율%
허욕 금지	130, 140, 146, 151, 154	5	13.9
권선징악	148, 156, 157, 158, 159,	5	13.9
생성유래	149, 160, 163, 164	4	11.1
해학·기지	134, 165, 152	3	8.3
정신일도 하사불성	139, 142, 153	3	8.3
열부	135, 141	2	5.5
형제의 우애	132, 133,	2	5.5
징벌	137, 145	2	5.5
기타(교훈적인 것)	138, 143, 144	3	8.3
기타(비교훈적인 것)	131, 147, 150, 155, 161, 162	6	16.6
계		36	100

위 표를 보면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민담은 교훈성을 띤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허욕 금

58) 진성기, 위의 책

지, '권선징악' 등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는 어린이들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가진 주제가 들어 있다. 이는 민담이 웃고 즐기는 이야기로 음담패설까지를 수용하고 있는데 비해,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흔히 민담이라면 '우스갯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꿈과 낭만, 일상 속에서 얻은 생활의 지혜나 교훈, 역경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 신념 등이 융해되어 있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민담을 통하여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게 된다.

민담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 중에는 교육적 요소가 덜하며, 동심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 동화들은 교훈적인 사건이나 유모어, 위트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거리로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다시 살아난 아기>,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 <도깨비를 잘 모시면>, <노루 때린 막대기>, <까마귀 모른 제사>, <저승에 다녀온 강씨> 등의 이야기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여진 전래동화의 소재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진다.

<다시 살아난 아기>의 내용은 아기가 갑자기 죽어 장사지내려는 데 살아났다. 늙은 거지가 아기를 보고 도깨비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도깨비가 좋아하는 사탕수수떡을 만들어 대접했더니 여든 다섯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는 한 아주머니가 들길을 가는데 도깨비가 달려들어 안으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겁을 내지 않고 도깨비를 꽉 잡자 참빛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까마귀 모른 제사>는 재혼한 여인이 죽은 전남편을 위해 아무도 몰래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로, 고인을 공경한다는 것 외에는 교육적인 요소가 없다. <노루때린 막대기>는 상주가 먹이를 찾아 집 안으로 드려온 노루를 막대기로 때려 잡았고, 그것을 본 친구가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핑계로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바람직하지 못한 전래동화라고 여겨진다.

이 동화들의 주제를 분석하면 민담을 수용하여 전래동화로 개작할 때에는 교육적인 요소를 검토해야 하겠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작하였다고 하여 다 전래동화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의 정서에 어긋나거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한 이야기를 전래동화에 수용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일이다.

신화나 전설이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화소가 줄어들고, 인물이 줄어들듯이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도 화소와 인물은 줄어든다. 화소와 인물의 탈락을 잘 보여주는 전래동화의 화소는 다음과 같다.

A. <독일국 정명수>⁵⁹⁾

1.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무심하여 동생과 살았다.

2. 어머니가 병이 들어 점을 쳤더니 독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사다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3. 형이 거절을 하자 동생은 배를 빌어 떠났다.
4. 괴물이 나타나자 일광보살께 빌어 물리쳤다.
5. 정명수를 산 후 돌아오다 형의 마중을 받았다.
6. 형은 약을 ■앗고 눈알을 후벼 파내고 가 버렸다.
7. 동생은 판자에 의지해서 흘러가다 육지에 닿았다.
8. 통소를 만들어 불자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9. 밤이면 부엉이가 날아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0. 고향에서 편지를 가지고 온 비둘기를 만났으나 편지를 읽지 못하는 걸 한탄하며 눈을 치자 앞 이 보였다.
11.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고향으로 향했다.
12.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형은 다시 흉계를 꾸렸다.
13. 형이 동생의 배를 습격하자 비둘기가 모래를 뿌려 주어 이길 수 있었다.
14. 고향에 닿아 어머니와 상봉하였다.

B.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⁶⁰⁾

1.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거칠고 동생은 온순하였다.
2. 어머니가 오미자를 따다가 다쳐서 병세가 심해졌다.
3. 서낭당에 가서 신령님께 비는데 지나가던 도사가 독일국에서 생명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4. 형이 거절을 하자 동생은 가족을 주어 배를 빌려 떠났다.
5. 괴물이 나타나자 하늘에 빌고 메밀범벅을 던지자 괴물이 사라졌다.
6. 생명수를 산 후 돌아오다 형의 마중을 받았다.
7. 형은 약을 ■앗고 눈알을 후벼 파내고 가 버렸다.
8. 어머니는 병이 나아 동생을 찾았다.
9. 동생은 통나무에 의지해서 흘러가다 육지에 닿았다.
10.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불자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11. 밤이면 부엉이가 날아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2. 고향에서 편지를 가지고 온 비둘기를 만났으나 편지를 읽지 못하는 걸 한탄하며 눈을 치자 앞 이 보였다.
13.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서 끌려갔으나 의심이 풀렸고 병든 공주가 피리소리에 병이 나았다.
14. 공주와 결혼하고 고향으로 향하였다.

위 두 이야기의 중심내용을 비교하면 이야기 구조가 달라진 부분이 많다. 두 민담과 전래동화의 구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① 어머니의 발병→② 여행→③ 괴물 물리침→④ 정명수 구함→⑤ 형에게 눈알이 뽐핌→⑥

59) 진성기(1993), 「제주도 전설」, 백록, pp. 190-194.

60) 제주아동문학협회(1992), 「탐라가 탐나요」, 영주문학사, pp. 62-71.

표류→⑦ 통소를 봄→⑧ 공주와 결혼→⑨ 귀향→⑩ 형의 습격→⑪ 비둘기의 도움→⑫ 모친 상봉

B. ① 어머니의 발병→② 여행→③ 괴물 물리침→④ 정명수 구함→⑤ 형에게 눈알이 뽑힘→⑥

표류→⑦ 피리를 봄→⑧ 공주 치병→⑨ 결혼→⑩ 귀향

위 단락소의 비교를 살펴보면 ①에서 ⑦단락소까지는 전래동화가 민담을 수용하고 있고, ⑩번 화소부터는 탈락되고 있다. 동화의 작가가 민담의 결말을 탈락시킨 이유를 분석하면 첫째는 작가가 A 민담을 텍스트로 하지 않고 다른 민담을 텍스트로 하여 집필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A와 B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둘째는 작가가 원고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하여 탈락시켰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담의 원형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셋째는 작가가 화소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을 수 있다. 이 전래동화에서 두 형제 사이에는 성격의 대비가 일어난다. 형은 포악하고, 욕심이 많으며, 동생은 효심이 깊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눈을 멀게 하고, 정명수를 빼앗으며, 다시 동생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한다. 이런 형에 비해 동생은 효심이 깊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비록 형에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운명에 순종하며, 행운이 찾아와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다. 작가는 동생에 비해 욕심 많고, 포악한 형의 악행을 늘어놓으면 형의 위치에 있는 독자가 열등의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의 악행을 줄여 주기 위해 화소를 탈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동화는 선악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선한 아우와 욕심많은 형이 등장하며, 형은 아우의 업적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아우를 죽이려 한다. 비둘기가 도와주어 악한 형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로 착한 아우는 효도하며 재물과 아내를 얻어 행복하게 되고, 악한 형은 벌을 받는다. 그러나 전래동화에 수용된 이 민담은 악한 형을 징벌하는 사건이 없이 결말을 맺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가치감 등의 판단력을 길러 주는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민담의 구조가 전래동화의 구조보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알맞다. 또 <용감한 병동이>도 선악의 대결을 보여주는 전래동화이다. 병속에서 나온 병동이가 무서운 괴물에게 잡힌 처녀를 구해 주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인데, 선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부약의 주제를 보여주는 동화로는 <도깨비의 은방맹이>, <호랑이 잡은 열부>, <여우 잡은 소금장수>가 있다. <도깨비의 은방맹이>에서는 욕심많은 형은 도깨비로부터 징치를 당하나 착한 동생은 부자가 된다. 이 동화는 선악의 대결보다는 권선징악의 주제가 더 강한 동화이다. 또 <호랑이 잡은 열부>에서도 열부의 정신력과 복수의 이미지가 강하며, 이 외에도 악한 인물이나 짐승이 등장하는 전래동화들이 있다. 이들은 악행에 대해 징치를 가하거나 복수당하고 있어 선악의 대결양상을 보이는 전래동화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 남녀의 대결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 전래동화에 수록된 민담에서 성의 화소가 있는 사건들이 그대로 수용된 민담이 있다. 대표적인 민담은 <모관양반>이다. 모관양반의 사건들 중 남의 부인과 동침을 하고도 입막음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거짓 신랑행세를 하여 신부측으로부터 재물을 얻어내는 사건이 있다. 이것은 전설 <열녀바위>에서 며느리가 스님에게 강간을 당한 후 자살해서 바위가 되었다는 사건이 수용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전래동화의 소재로는 적당하지 않은 민담이었다.

제주 민담에는 한국 전래동화에서 수용된 민담이 있다. <도깨비의 은방맹이>는 <도깨비 방맹이>가, <머리잘라 시부모 생일차린 효부>는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등인데, 이 전래동화들은 한국 전래동화집에도 실려 있는 작품으로 전승에 의해 제주 민담으로 수용된 듯하다. 더욱이 <머리잘라 시부모 생일차린 효부>는 대정현이라는 지리적 배경까지 제시하고 있어, 효를 중요시했던 선인들이 효도를 가르치기에 알맞은 이야기거리로 수용되어 제주도 민담으로 정착된 듯하다.

또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8편이다. 도깨비 이야기는 전설에도 수용되어 있는데, 전설에 수용된 도깨비와 민담에 수용된 도깨비를 비교하면 두 이야기에서 도깨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에 <괴이리가 한동리로 변한 까닭>에서 도깨비는 불장난을 하여 마을을 불바다로 만드는 악역으로 등장한다. 또 메밀범벅을 대접하여 가신으로 모시자 고기떼를 몰아다 주어 부자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깨비를 모시려던 마을 사람이 어떤 청년의 장난에 기절하는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전래동화도 있다.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의 도깨비는 은방맹이로 온갖 보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자이거나 길가는 형제를 홀려 물 속에 빠뜨리는 장난꾸러기 도깨비이다. 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에 어리석게 속아넘어가 돈을 가져오거나 공부하고 싶어 서당을 찾았다가 성씨를 갖고 싶어 부씨 성을 가지게 된 도깨비도 있다. 참빗으로 변한 도깨비도 있으며, 도깨비가 잡아 준 집터에 집을 지었더니 3대에 걸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관덕정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도깨비가 달아났다는 이야기도 전래동화에 수용되어 있다.

전설과 민담에 수용된 도깨비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설의 도깨비는 부를 가져다주거나 복수를 하는 도깨비이다. 그러나 민담의 도깨비는 우둔하고, 변신하며, 유머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 두 유형의 도깨비 이야기는 차이가 크다.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 인물과 화소는 동일한 것이 많다. 민담은 신화나 전설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며, 화소의 수가 작아 이야기의 길이가 짧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전래동화 작가는 문체만 어린이들의 독서 수준에 맞게 변이시켰을 뿐, 사건은 그대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인물이나 화소의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는 채록한 민담도 여러 편이 있어 현길언과 장영주의 전래동화집에는 설화집에 실려 있지 않은 민담이 수록되어 있다.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가짜 신랑이야기>, <무지개>, <탐지>, <도깨비 형제>, <더벅머리 도깨비> 등이 그것이다. 이 전래동화는 작가가 직접 채록한 이악야기를 전래동화로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본토의 작가들은 <한국구비문학대계」⁶¹⁾에 실린 민담을 전래동화로 개작하였다. <도깨비불을 쫓은 거육대>, <다시 살아난 아기>,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 <도깨비를 잘 모시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토 작가들은 도깨비나 변신화소가 수용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 엮었다.

민담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적합한 작품이 많았고, 주제 또한 권선징악 등 교훈적인 것들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인물이나 화소는 민담과 동일하여 변용되지 않은 것이 많았으며, <도깨비의 은방맹이>와 같이 한국 전래동화가 제주 민담으로 정착한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주 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는 건강부악의 법칙이 적용된 동화들이 많지는 않으나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도깨비의 은방맹이>, <장원금제한 어부의 아들> 등이 있다. 다만 남녀의 대결양상을 보인 동화는 없었다.

민담의 내용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적합한 사건들이 많아 주제는 권선징악이나 흥미위주이며, 단순사건으로 교육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았다. 또 선악의 대결을 보여주거나 한국 전래동화의 동화가 민담으로 수용되어 다시 제주 전래동화로 수록된 것도 있었다. 그리고 도깨비 이야기와 관련된 전래동화가 적었다. 도깨비는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공존해 온 대상으로 친근감을 주는 화소이다. 제주도의 도깨비 이야기는 몇 편이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한 편이며, 관심을 가지고 채록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61) 현용준·김영돈(1980~83), 「韓國口傳文學大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위 동화의 내용은 이 글 (부록 3) 제주설화의 분석을 참조할 것.

Ⅲ. 작가의 변용 의식

1. 변용 양상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씌어진 아동문학이다. 아동문학은 “본질적으로 주제나 작중 인물의 성격이나 줄거리가 단순명쾌할 뿐만 아니라 이성보다 감각에 호소하고, 아동에게 이해될 수 있는 평이한 형식을 요구한다.”⁶²⁾ 그래서 아동문학 작품은 문장이나 내용, 길이가 어린이의 독서수준과 정서에 부합되어야 하며, 교훈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수용할 때, 설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의 독서수준에 알맞게 개작하여 수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간행된 제주 전래동화는 모두 8종 12권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 수집 발간되기 시작하였고⁶³⁾ 설화집들은 1969년에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의 출판을 시작으로 여러 학자들과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수집·발행되기 시작되었다. 이에 비해 제주 전래동화집은 1984년에 이르러야 발간되었다.⁶⁴⁾ 그리고 1991년에서 1992년에 걸쳐 장영주의 「민족전래동화」 6·8·9가, 제주 아동문학협회 회원 19명이 참가하여 집필한 「알동네 웃동네」, 「탐라가 탐나요」가 간행되었고, 1991년에 필자의 「제주도 전래동화」가 나왔다. 1997년에 도외에 거주하는 작가들에 의해 제주 전래동화집이 나왔다.⁶⁵⁾ 또 월간 관광제주 부록으로 만화로 제작되어 발간되었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동화의 총 편수는 310편이다. 여기서 중복되는 동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면 165편의 동화가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셈이다. 한 편이 동화가 여러 동화집에 수용된 이유는 작가의 수용 한계나 채택한 설화집의 종류, 출판기준 등 여러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 전래동화집을 엮은이가 특별히 좋아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꼭 읽히고 싶거나, 바람직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동화집을 엮었을 것이다. 제주 신화와 전설, 민담 중에서 어린이들의 정서나 교육적으로 알맞다고 생각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전래동화집에 수록되었

62) 이재철, 앞의 책, p. 24.

63) 赤松智城・秋葉隆(1937), 「朝鮮巫俗의 研究」 1卷, 大阪屋號書店.

64) 1984년에 발간된 제주전래동화집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창작과 비평사. ② 강정훈(1984), 「구슬을 먹는 아이」, 조약돌. ③ 관광제주(1984), 「힘센 종 막산이」, 월간 관광제주 11월호.

65) 도외 작가의 전래동화집으로는 손춘익과 최범서의 전래동화집이 있다.(본문 10쪽 참조)

다면 일단 가치 있는 전래동화라 인식할 수 있다. 더구나 같은 자료가 2번 이상 수용되었다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라고 여겨진다. 12권의 전래동화집에 실린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보며, 전래동화의 중복 수용양상은 다음과 같다.(부록 1 참조)

< 표 - 8 > 중복된 전래동화의 수록 횟수별 분포

등재 횟수	1	2	3	4	5	6	계
편 수	80	42	27	8	6	2	165
비 율	48.5	25.5	16.4	4.8	3.7	1.2	100

위 표를 보면 1회만 수용된 것은 80편으로 48.5%이며, 2회 이상 수용된 것은 51.5%이다. 가장 많이 수용된 전래동화는 <설문대할망>과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으로 6권의 동화집에 수용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5권의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동화는 <삼성신화>, <사만이>, <자청비>, <아흔아홉골>, <절부암>, <김녕사굴>이며, 8권의 전래동화집에서 4회 이상 수록된 동화는 16편으로 9.8%이다. 같은 작가 또는 다른 작가에 의해 4회 이상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교육적인 흥미도가 높은 동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대 할망>은 치마로 흙을 날라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거인 할머니의 이야기로 사건이 매우 많다. 한라산과 오름, 백록담, 섬, 빨래, 오줌으로 생긴 바다와 계곡, 모자, 섬의 동굴, 등경돌 등 할머니와 얽힌 이야기는 다양하다. 특히 설문대 할망이 명주 속옷을 입고 싶어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으나 명주 한 통이 모자라 다리를 놓을 수 없었고, 물장울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독자에게 아쉬움을 주며, 설문대 할망이 다리를 놓았다면 제주도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은 송당본풀이를 수용한 전래동화로 수렵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신화이다. 문무병은 ‘송당계 신화와 금악계 신화를 같은 계열의 산신당 본풀이로 분류하면서 “중산간 마을의 반농·반목축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렵 이동생활에서 농경 정착생활로 변모해 가는 제주 사람들의 생활사, 민중의 황폐한 삶, 생활의 이중고를 반영하고 있다”⁶⁶⁾ 고 하였다.

서울 남산에서 태어난 금백주와 알손당에서 태어난 소로소천국이 혼인하여 아들 소국성을 낳았는데, 소천국이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일곱 살에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된 아들 소국성이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뜯는 등 불효를 하니 무쇠석갑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 용궁에 의해

66)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58

구조되어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였다가 과식으로 쫓겨난 후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한라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전래동화로 6편이나 실린 것은 소국성이 한라산 산신이 되었다는 유래 때문인 것 같다. 내용이나 주제가 어린이들의 정서에 부합되지만 제주인들에게서 한라산은 어머니 같은 곳이며, 한라산 신은 곧 제주의 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래동화에 수용되었다고 본다.

<아흔아홉골>은 제주도에서 왕이 태어날 기운을 알아차린 중국왕이 스님을 보내 사나운 맹수가 사라지도록 했다는 이야기이다. 제주도에 맹수가 살지 않게 된 원인을 밝히는 전설인데, 성산 일출봉의 99봉에도 수용된 이 동화는 맹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발전한다.

<절부암>은 대나무를 자르러 차귀도로 건너간 남편이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여인의 애절한 사연이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며,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사만이>는 인간의 수명이 100세 안팎인데, 저승차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만 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에서는 사만이를 잡기 위해 홍계를 꾸민 저승차사를 보고 “사만 년을 살았지만, 솥을 씻는 놈은 처음 보겠네”라고 말하여 저승차사에게 들켜 잡혀갔다는 이야기이다. 이 동화는 사만 년 동안 살았다는 화소와 어린이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흥미를 끈다고 생각하여 전래동화집에 수록한 것 같다.

<김녕사굴>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 행위를 안 사또가 뱀을 죽이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아 복수를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큰 뱀이 행패를 부리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안 명판관이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구하고 뱀을 죽였으나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뱀에게 복수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蛇神신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동화는 어머어마하게 큰 뱀과 동굴, 위기에 처한 처녀를 구하는 정의로운 판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판관의 안타까운 죽음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는 전래동화이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민담 중에서 4권에 수용된 <도깨비의 은방맹이>는 한국 전래동화집 87권 중 22권에 수록되었다는 <도깨비 방망이>⁶⁷⁾와 같은 이야기로 <금방맹이 은방맹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도깨비 방망이>가 제주 설화 <은덩두렁 은방맹이>로 수용되며 성 화소가 삽입되었다. 이 이야기는 B 전래동화집에 男根을 가리키는 유아어인 ‘꼬치’라는 어휘로 변이시켜 수용하고 있으나, 다른 전래동화에서는 남근이 등장하는 사건은 탈락되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위 7편의 동화는 작가의 관점에서 흥미소와 교육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택하여 수용하였을 것이다. 이들 동화에는 다른 동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갈등이나 색다른 표현,

67)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p. 266.

기억하기 쉬운 이름, 소재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배경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바뀌었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⁸⁾

① 옛날, ② 옛날 옛적, ③ 아득한 옛날, ④ 옛날에도 한 옛날, ⑤ 아주 오랜 옛날, ⑥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⑦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⑧ '옛날하고도 태곳적 이야기이다. ⑨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하던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⑩ 옛날 아주 옛날에 제주섬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기 전의 일이다. ⑪ 채구석은 구한말에, ⑫ 조선시대, ⑬ 조선시대 숙종때,

위와 같이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들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장의 허두부분에 과거를 나타내는 낱말을 제시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문장으로 나타내는 유형이며, 셋째는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용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명사나 부사의 반복으로 시대적 배경을 강조하여 청자의 사고를 고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동화의 구연에서 화자는 첫째나 셋째 유형과 같이 문장의 허두부분에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지리적 배경과 인물소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래동화집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작가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를 깊게하게 하기 위해 명사나 부사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① ~ ⑤까지는 허두부분으로 1~3회에 걸쳐 동화의 배경이 옛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⑥ ~ ⑩에서는 문장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짐승을 등장시켜 흥미를 끌고 있다. ⑦번 문장에서는 옛날이라는 것을 5회에 걸쳐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⑪ ~ ⑬은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여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어 전설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래동화집에 실린 시대적 배경의 강조는 '옛날이야기'라는 개념을 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전래동화에는 도입화소⁶⁹⁾가 등장하는 동화가 많다. 도입화소가 많은 것은 전설의 특성상 진실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설은 "이야기의 연대·사건의 발생 장소·주인공 등이 명시되어 있고, 민중의 경험과 사실성이 표현되며,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며, 전설은 스스로 역사화함으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⁷⁰⁾고 하였다. 도입화소는 진실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만 수용되고 있다.

68) 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발간한 「알동네 웃동네」·「탐라가 탐나요」, 현직언의 「제주도 이야기」 1·2에 수록된 시대적 배경임.

69) 도입화소 : 중심화소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도입부에 있는 화소

70) 최운식, 앞의 책, p. 78.

제주 설화의 도입화소 수용양상을 「제주도 전설」⁷¹⁾과 「제주도 신화」⁷²⁾를 통해 분석해 보면, 「제주도 전설」 116편 중 45편의 설화에 도입화소가 수용되어 있어 38.8%가 넘는다. 자연전설은 100% 중심화소 앞에 도입화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역사 전설에는 일부만 도입화소가 있다. 그런데 설화 중에서 신화와 민담에는 도입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도 명시한 진실성이나 역사성과 관련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주 전래동화들 중에는 도입화소가 자리잡고 있는 동화가 많다. 작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현길언의 전래동화에는 18.9%가, 제주아동문학협회의 전래동화에는 도입화소가 34%나 수용되어 있어 중심화소를 확대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8종의 전래동화집 중에서 도입화소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동화집은 3권으로 강정훈의 「구슬을 먹은 아이」, 관광제주의 「힘센 종 막산이」, 손춘익의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이다.

설화와 전래동화의 도입화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심돌(성산읍 시흥리)에 '부대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의 아들도 또한 힘이 세었으니 '부주사'라 불렸다. 아버지 부대각은 경자생이고 부주사는 갑자생이었다. 부주사도 몸집이 커서 소소한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였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인이 '호부견자(虎父犬子)'라 했으니 부대각의 풍채는 가히 알만하다.⁷³⁾

B. 성산면 성산리(城山面 城山里) 바닷가에 한 덩어리의 거암(巨岩)으로 이루어진 산이 돌출해 있다. 이 산을 성산봉 또는 성산 일출봉이라 한다. 이 산은 제주도의 맨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 그 봉우리 위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⁷⁴⁾

C. 옛날 제주도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맹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주도에 맹수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⁷⁵⁾

D. 제주도는 물이 귀한 고장이다. 작은 섬인데다가 한라산이 높기 때문에 큰 강이 없고, 작은 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들은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 짧은 거리이지만 시원한 물이 끓이지 않고 흐른다. 제주시에는 산지천과 외도천이 있고, 서귀포시에는 천지연 폭포의 물줄기인 연외천과 정방천, 강정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정방천에서 솟는 물의 원천인 지장샘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⁷⁶⁾

71) 현용준, 앞의 책.

72) 현용준, 앞의 책.

73)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 148.

74) 현용준, 앞의 책, p. 14.

75) 제주아동문학협회(1990), 「알동네 웃동네」, 영주문학사, p. 40.

76) 제주아동문학협회, 앞의 책, 140.

E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그 유명한 한라산을 아세요?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이 골고루 분포되어 식물
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한라산을 말이에요. 글세, 그 한라산에도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는군요. 세종 때,
기전이라는 현명한 목사(지금의 도지사와 같음)가 다스리기 전까지는.⁷⁷⁾

위 글 중 A, B는 설화이고, C, D, E는 전래동화의 도입화소를 옮겨 적은 것이다. 설화나 전래동
화나 중심화소⁷⁸⁾를 강조하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게 위해 설명형의 문장을 도입부에 수용하고 있
다. 그런데 설화와 전래동화의 도입화소는 용어의 선택에서도 차이점이 있지만, 내용에도 차이가 드
러난다. A, B 설화의 도입화소가 직설적이고, 단순히 보충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면, C, D, E 전래
동화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으로 짜여져 있거나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나
자연현상을 설명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씌어졌다. 교단작가⁷⁹⁾가 쓴 전래동화에 나타
나는 이러한 현상은 직업의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글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심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전래동화의 형식이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나,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지식 취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공헌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래동화에서 어휘의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발간된 동
시집, 동화집들 중에는 대상 연령이나 학년을 밝힌 것이 있지만, 대상을 밝히지 않는 전래동화에서
어휘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수용된 전래동화의 일부이다.

1. 이 서자들은 철저한 계급사회(사·농·공·상)에서 임신 앞명의 기회를 잃어 재주가 있어도⁸⁰⁾
2. 아무리 인명이 채천이라하여 삼랑식날 제물로 바쳐진 몸이라지만 자신들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
각했다.⁸¹⁾
3.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한 때였다.⁸²⁾
4. 호종단은 발길을 서북쪽으로 돌려 동쪽으로 돌면서 모든 지맥과 물혈을 끊기 시작했다.⁸³⁾
5. 자청비는 시아버지로부터 오곡의 셋앗을 받아 인간을 사랑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균립하게 되었
다.⁸⁴⁾

77) 제주아동문학협회, 앞의 책, p. 162.

78) 중심화소 : 전래동화의 단계를 이루는 사건을 다룬 화소.

79) 각급학교에 재직하면서 문학작품을 쓰는 작가를 일컫는 말이다.

80) 제주아동문학협회(1992), 「탐라가 탐나요」, 영주문학사, p. 122.

81) 제주아동문학협회, 「알동네 웃동네」, p. 101.

82) 현길언, 「제주도 이야기」 2, 창작과 비평사, p. 158.

83) 제주아동문학협회, 위의 책, p. 122.

84) 최범서, 앞의 책, p. 20.

위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다. 설화의 문장을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어휘로 교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용한 결과이다. 위 어휘들 중 밑줄친 낱말은 독서 연령이 높은 고학년 어린이들이나 중학생 수준은 되어야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독서연령이 다른 어린이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전래동화집에서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없이 단순히 전래동화집을 출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어린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래동화에서는 어린이들의 언어수준, 독서연령, 아동발달과 연계하여 적절한 어휘선택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 전래동화집 중에는 제주 역사와 기행문을 결들인 동화집⁸⁵⁾과 만화를 결들인 동화집⁸⁶⁾이 있다. 이 동화집들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흥미를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전래동화의 원형을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제주 전래동화집 8종 12권에 수록된 전래동화는 모두 165편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 동화집에 중복 수용된 동화가 있다. 작가는 어린이들의 정서나 교육적인 배려를 고려하여 선택하였을 것이다. 특히 <설문대 할망>과 <한라산신이 된 소국성>은 6회나 수록되어 지명도가 높았다. 또 제주 전래동화에 수용된 시대적 배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작가는 과거를 나타내는 낱말을 중복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도입화소를 수용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동화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휘를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여 적절한 어휘선택이 요망된다.

2. 축소와 확대

1) 화소의 탈락

설화는 구비문학으로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 말은 화자와 청자가 대면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야 구연자의 말씨, 표정, 몸짓을 통하여 구연내용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구연자는 청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구연해야 효과적인 구연을 할 수 있다. 구연을 하려면 대면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과 장소 등의 제약이 따른다. 원하는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을 수 없다는 불편이 있고, 구연할 때마다 구연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안고 있다.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핵가족화로 전승자 역할을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면할 기회가 줄어들고, 부모 역시 바쁜

85) 최범서(1997), 「옛날이야기 오들또기」, 우리 교육사.

86) 박재형(1992), 「제주도 전래동화」, 대교출판.

일상업무로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적어 동화의 전승이 어렵게 되었다. TV, 전자오락 등도 전래동화 전승의 기회를 줄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래동화집 발간이 이루어졌다.

전래동화집은 동화 구연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은 전달하기 어렵지만, 구연내용을 바르게 전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대량 생산과 대량 전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래동화집에 설화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래동화집에서 구연자나 설화의 지나친 사투리, 어려운 어휘, 너무 긴 문장, 논리적이지 않은 문장 등은 표준말, 적합한 어휘,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 주어야 한다. 또 시대에 맞지 않은 윤리나 도덕을 강조한 것, 성문제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다룬 것, 지나친 난폭행위 등은 원 줄거리를 깨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작할 수밖에 없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재구성할 때는 이야기의 배열을 달리하거나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난잡한 내용이나, 우연적인 사건이 나열되거나,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주제로 나누어질 때는 원형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

제주 전래동화집에서 설화의 화소가 축소된 동화는 모두 57편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신화에서 화소의 축소가 두드러진다. 신화는 신과 인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화소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성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 신화 <자청비>

- a. 문도령이 자청비를 의심하자 오줌싸기 경기를 한다.
- b. 자청비가 여자라는 사실을 안 문도령은 자청비를 찾아가 함께 자며 정을 나눈다.
- c. 정수남이 벌거벗고 자청비를 희롱하고 유혹을 한다.
- d. 자청비가 정수남의 유혹을 지혜롭게 물리치고 청미래 덩굴로 죽인다.
- e. 자청비가 발가벗고 올빼미가 된 정수남의 혼령을 부르자 올빼미가 배 위에 날아와 앉는다.
- f. 문도령과 혼인하려던 서수왕아가 죽어 부부의 애정을 이간질하는 새가 된다.
- g. 자청비가 작두 위를 건다가 발을 베어 월경을 하게 되었다.
- h. 서천꽃감관 막내딸에게 문도령을 보내어 작은 부인을 삼게하자 돌아오지 않는다.

B. 전설 <변인태>

- a. 변인태가 조방장의 마누라를 피어 통정하고 나서 협박하여 돈을 타낸다.

C. 민담 <은덩두렁 은방맹이>

- a. 형은 도깨비에게 잡혀 男根이 서른 자나 늘어났다.
- b. 남근 위에 앉아 죽을 먹던 상객들이 남근에 죽을 흘려 형이 움직이자 물매를 가한다.
- c. 동생의 도움으로 남근이 줄어들자 형수가 애원하여 지금의 남근 길이가 되었다.

위 글을 보면 남녀간의 성이 드러난 화소들과, 아동의 정서와 역행하는 이야기들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화나 전설, 민담은 성인을 중심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가 설화 속의 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화소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씌어진 전래동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신화 <자청비>는 전래동화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다. 자청비와 문도령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특히 자청비와 문도령의 오줌싸기 경기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아낸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흥미를 끈다고 해서 전래동화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정서에 역행하는 성의 화소들은 개작 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전래동화는 본래의 설화보다 화서가 축소되면서 인물의 축소가 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신화 21편과 전래동화 21편에 나타난 인물의 수를 비교하면 152명이 122명으로 줄어들어 20%나 차이가 있었다.(삼천선비 등 복수로 제시된 사람은 제외하였음) 설화가 전래동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화소가 줄어들고 이야기가 짧아지면서 인물의 축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이유는 부차적인 인물들이 주로 제외되어 이야기가 단순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설·민담을 수용한 전래동화는 인물이 탈락이 적었다.

그리고 발표의 장에 따라 화소의 축소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발간한 <알동네 웃동네>와 <탐라가 탐나요>는 협회가 기획하고 분량을 제한하여 원고지 30매를 기준으로 하여 발간되었다. 민족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는 신문연재⁸⁷⁾를 위하여 15매 안팎으로 길이가 정해졌다. 연재되는 원고 길이에 맞게 이야기를 수용한 결과 화소의 축소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원고의 길이를 임의로 정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독서 수준이나 독서 습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린이들은 학년이나 독서연령에 따라 읽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학년 어린이들은 원고지 30-40매의 글을 읽지만, 저학년 어린이들은 10-20매 내외의 글이 적당하다. 그러나 설화를 전래동화로 재화하면서 설화가 지닌 주제 구현에 필요한 화소까지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원래 설화가 아닌 남의 개작해 놓은 것을 그대로 본뜨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또 사건 전개가 없는 세시 풍속이나 문화재 등을 설명하는 글이 전래동화집에 수용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할 사안이라고 본다. 설명형의 전설은 <대정고을의 형국>, <대정의 문과조사>, <두모와 지미> <온평리의 청룡(靑龍)>⁸⁸⁾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전설에는 사건진행이 없이 지형묘사나 역사적 사실 등을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전래동화는 소설과 같이 주제·구성·문체의 3요소로 짜여져 있으며⁸⁹⁾, 인

87)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머리말.

88)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p. 235-237.

물·사건·배경을 구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짜임을 가지지 못한 설명형의 이야기는 설화가 될 수는 있으나 전래동화로 수용되는 데는 난점이 따른다. 모든 전래동화는 설화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설화가 전래동화로 개작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이다. 전래동화집에 수용된 <정월맹질>은 세시풍속이어서 전래동화라고 할 수 없다.

2) 화소의 첨가

설화는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걸쳐 다듬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전래동화로 전승될 때에는 내용의 개작이 필요하게 된다. 전래동화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설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탐구성·상상성·신비성 등의 일부가 손상될 우려도 있으나, 교육적 의미에서 개작은 필연적인 것이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짧은 이야기여서 반드시 내포해야 할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적당한 길이를 유지한다. 그러나 확대한다고 해서 원작을 고쳐서는 안되며, 부연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 중 화소가 확대된 동화는 49편으로 29.7%를 차지한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화소가 확대된 동화가 이처럼 많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설화에 여러 개의 각편이 있는 경우 전래동화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전승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스토리의 배열을 조정한다. 제주 전래동화 중에 스토리의 배열을 조정한 대표적인 것은 <고종달이(호종단)>인데, 현재까지 많이 알려진 고종달형 설화는 <종달리 지명>, <행기물>, <거스샘이와 노단샘이>, <지장샘>, <산방산 용머리 해안>, <차귀도>, <감목관 김씨>, <광양당신> 등이다. 고종달이가 샘물을 찾아갈 때, 물신이 노인으로 변하여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나타나 물그릇을 감추어 달라고 애원한다.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마차바퀴 밑에 있는 놋그릇 속의 물)을 찾지 못해 가 버린다는 화소는 그가 등장하는 설화에서 모두 나타난다. 그런데 이 화소 중에서 종달리 이름 유래와 영평의 행기물, 차귀도 설화가 수용되어 한 편의 전래동화로 정착된 예가 있다. 이러한 여러 설화의 통합은 <도깨비와 청년>에서도 나타나는데 도깨비 설화 2화를 합하여 1편의 설화로, 기전목사 설화 2화가 <제주의 고려장>으로 통합되어 유기적인 통일을 꾀하도록 배열되었다. 또 <날개 돋친 박씨>⁹⁰⁾에서는 ‘박혁거세’ 탄생신화가 수용되어 있다. 이 동화는 박혁거세 탄생신화를 수용하여 역사교육과 흥미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변씨 입도선묘와 변인태를 통합하여 변인태의 재능이 변씨 입도선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기도 하다.⁹¹⁾

90)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 pp. 35-39.

91) 장영주, 위의 책, 40 - 44.

개작에는 내용상 개작과 형식상 개작이 있다. 전래동화의 확대에는 원작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부연하는 것과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을 고침과 아울러 이야기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동화들은 대부분 전자에 해당하나 후자인 경우도 있다. 짧은 이야기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확대해서 길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 전래동화로는 <중국에서 날아온 비양도>가 있다. 이 동화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 설화 <비양도>⁹²⁾

1. 고려시대에 중국에 있는 한 오름이 갑자기 날아왔다.
2. 협재 해안마을을 덮쳐 지금도 모래 밑에서 마을 흔적이 나타난다.

B. 설화 <비양도>⁹³⁾

1. 임산부가 물길러 갔다가 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2. 광지리로 오던 섬이 이 소리에 놀라 협재 앞바다에 내려앉았다.

C. 전래동화 <중국에서 날아온 비양도>⁹⁴⁾

1. 중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 산봉우리가 화가 났다.
2. 산봉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아 하늘로 솟아오를 결심을 하였다.
3. 싸움하던 사람들을 모두 떨치고 남으로 날아오다가 한라산을 보고 좋아했다.
4. 한 임산부가 물길러 갔다가 섬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 애원했다.
5. 산봉우리는 한라산 가까운 협재 바닷가에 내려앉은 것이 너무 좋았다.

D. 전래동화 <비양도>⁹⁵⁾

1. 선문대 할망이 던진 놀망이가 바다 위를 떠다니다 하늘로 날아올랐다.
2. 섬에는 쓰레기와 부러진 칼과 창, 시체, 음식 쓰레기가 있었다.
3. 선문대 할망이 큰 소리치자 바다에 떨어졌다.
4. 중국에 있는 산봉우리가 싸움에 싫증이 나서 떠날 생각을 했다.
5. 하늘로 떠오른 산은 남쪽나라로 가다가 아름다운 산을 보고 날아왔다.
6. 산은 선문대 할망을 보고 놀라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 떠다녔다.
7. 산봉우리는 선문대 할망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달렸다.
8. 광지 앞바다에서 물을 길러온 임산부에게 들켜 방향을 바꾸었다.
9. 선문대 할망은 협재 앞바다에서 섬을 잡으려고 하다가 쓰레기와 시체가 있는 것을 보았다.
10. 시체 때문에 몸이 더러워진 선문대 할망은 그대로 두고 물장오리로 세수를 하러 가 버렸다.

92) 제주도편(1985),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pp. 225-226.

93) 제주도편, 위의 책, pp. 225-226.

94) 홍우천(1990), 「알동네 웃동네」, 영주문화사, pp. 144-149.

95)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pp. 179-184.

11. 산봉우리는 무사하게 되었고, 모래밭을 파면 유골과 유물이 나온다.

설화 <비양도>는 A, B 유형이 전해진다. A 설화 <비양도>에서는 중국에 있는 오름이 솟아올라 날아오다가 해안 마을에 내려앉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B 설화에서는 꼭지리에 사는 임산부가 새벽에 물 길러 갔다가 산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 협재 앞바다에 내려앉아 비양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전래동화 <비양도> C, D를 보면 두 가지로 전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래동화 C에서는 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화 A, B의 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고, 중국에서 섬이 날아오게 된 이유를 부연하고 있다. D 전래동화에서는 설화 A, B의 화소를 수용하면서 다시 전래동화 C의 화소에다 선문대 할망을 삽입하여 또 다른 전래동화로 변이시키고 있다. D 동화에서는 비양도가 형성된 사건을 다시 두 가지로 전개시키고 있다. 첫째는 선문대 할망이 던진 돌멩이가 섬이 되어 떠다니다 날아올랐는데, 시체와 쓰레기가 있어 소리를 치자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전쟁으로 삶증이 난 산봉우리가 날아오다가 선문대 할망에게 들켜 바다에 내려달아나다가 임산부에게 들켜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전래동화에 <산방덕이>가 있다. 아주 다른 화소를 첨가하여 변이된 <산방덕이> 전래동화의 중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전설 <산방덕이>⁹⁶⁾

1. 산방산 여신 산방덕이가 고승이라는 총각과 정이 들어 혼인하였다.
2. 주관이라는 벼슬을 하는 자가 산방덕이를 차지하기 위해 고승에게 누명을 씌워 귀양보냈다.
4. 산방덕이는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여 산으로 도망가 바위가 되었다.
5. 지금도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B. 전래동화<산방덕이>⁹⁷⁾

1. 사냥꾼이 사냥하고 오다가, 앓고 있는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머루를 찾고 있는 고승을 만났다.
2. 절벽에서 떨어진 고승을 한 여자가 구해 주었고, 고승이 일어나 보니 머루가 담긴 바구니와 머루가 달린 나무가 많아 어머니께 따다 드렸다.
3. 어머니의 소원인 산삼을 찾다가 악마에게 도움받아 산삼을 구한 후, 악마의 요구대로 산방산에 서 몸을 던져 죽으려고 하였다.
4. 산방덕이의 도움으로 살아난 고승과 산방덕이는 사랑하게 되었고, 산방덕이를 찾으러 왔던 천상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5. 목사가 산방덕이를 탐내 고승을 잡아들이자 산방덕이는 돌이 되었다.

96) 진성기(1993), 「제주도 전설」, 백록, pp. 177-178.

97)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 pp. 51 - 58.

위 <산방덕이>설화와 전래동화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 전래동화는 설화와는 전혀 다른 화소로 짜여져 있어 채집한 설화가 다르거나, 개작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사건과 화소를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B 전래동화의 4 화소의 일부와 5 화소만 A전래동화의 화소와 일치하고 있어 두 이야기는 결말은 비슷하나 도입부와 전개부가 아주 다른 이야기이다. 다만 결말부분인 5에서 동일한 결말을 맺고 있어 두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래동화에서 화소를 첨가하는 작가들은 동화의 구성에 지장이 없는 한, 약간의 변형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마치 창작동화처럼 개작하거나 사건을 나열하여 인물이나 자연의 신기함, 우월감, 교훈성 등을 고려하여 동화를 더욱 흥미있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끌어갔다. <산방덕이> 동화 B에서 보듯이 '효도'라는 모티프를 부연하여 전래동화의 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설문대 할망> 전설도 여러 가지 화소 양상이 나타난다. 진성기의 <오백장군>⁹⁸⁾에서는 설문대 할망은 오백장군의 어머니로 팔죽에 빠져죽은 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강정훈의 <설문대 할망>에서는 아버지인 설문대 하르방이 팔죽에 빠져죽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전래동화 <설문대 할망>⁹⁹⁾의 중심화소는 다음과 같다.

1. 설문대 할망은 키가 크고, 힘이 세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
2. 설문대 할망은 오백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오백장군이라 불렀다.
3. 흉년이 들어 아들들은 도둑질 가고, 할망은 쌀꾸러 마을로 내려갔다.
4. 아버지는 아들들을 기다리며 죽을 쑤다가 빠져 죽었다.
5. 마지막으로 죽을 뜨던 막내가 아버지 뼈를 건져 이에 놀란 오백 아들은 슬피 울다가 놀이 되었다.
6. 설문대 할망은 슬픔을 잊기 위해 한라산을 뛰어다니며 물장난을 했다.
7. 다리를 놓고 싶은 마을 사람들에게 명주옷을 지어 주면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8. 옷을 못 입게 된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봉우리를 집어 던져 산방산이 되었다.
9. 설문대 할망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

강정훈은 <설문대 할망>을 전래동화로 개작하면서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든 사건을 도입부에 수용했다. 그녀는 오백 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명주옷 때문에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 것으로 사건을 연결시켜 전래동화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팔죽에 빠져 죽은 인물을 설문대 하르방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래동화 <오백장군>과 <설문대 할망>의 사건을 논의해 보면 오백장군은 설문대 할망의 아들들

98) 진성기, 앞의 책, pp. 181-182.

99) 강정훈, 앞의 책, pp. 76-82.

이란 관점과 한 할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팔죽에 빠져 죽은 인물도 한 할머니,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하르방으로 다르게 설정되고 있어 전래동화의 수용양상이 작가에 따라 다름을 보여준다.

<산방산> 생성 전설에도 사슴을 쏘려던 중국에서 온 사냥꾼이 실수로 신선의 궁둥이를 쏘자, 이에 화가 난 신선이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내던져 산방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¹⁰⁰⁾.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옷을 못입게 되자 화가 나서 한라산 봉우리를 내던져 산방산이 형성된 것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전래동화가 있다.¹⁰¹⁾ 산방산 생성전설이나 설문대 할망 전설의 화소가 일정하게 전개되지 않고 변용이 일어난 것은 작가가 재화하는 과정에서 변형되었거나 전래동화를 엮은 작가가 텍스트로 삼은 설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설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에서 첨가와 탈락 양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채록한 것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지, 다른 책에 실려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채록하여 정리한 것을 참고로 하여 개작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래동화는 학술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널리 읽히기 위하여 쓴 글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전래동화와 새로 대면하게 되는 전래동화와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읽게 되어 교육적으로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작가의 창작력에 의해 설화의 원형에서 크게 변용시킨 전래동화가 생겨나게 된다. 전래동화는 설화를 바탕으로 개작된 것이고, 설화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전승자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것이므로 집필자의 오류는 영구히 설화의 원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창작과 개작

동화는 옛 이야기나 설화 속에서 추출된 전래동화를 선조로 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동화 속에는 전래동화를 수용하여 동심에 맞게 쓰여진 개작동화나 아동을 위해 새로 빚어낸 창작동화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설화를 제재로 창작한 소설은 고소설에 많고, 현대소설에도 적지 않다. 제주 설화를 소재로 하여 쓴 소설¹⁰²⁾과 창작동화¹⁰³⁾들도 계속해서 창작되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100) ①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 15. ② 제주아동문학협회(1990), 「알동네 옷동네」, 영주문학사, p. 32. ③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사, p. 157. ④ 최범서(1997), 「오늘또기」, 청솔, p. 195.

101) 강정훈, 앞의 책, p. 81.

102) 제주 설화를 제재로하여 쓴 소설에는 현길연의 <용마의 꿈>, <광정당기>, <그믐밤의 제의> 등이 있으며, 오성찬의 <소리>,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등이 있다.

그런데 전래동화는 본래에 있어 온 것,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 중의 일부는 전래동화로 인정할 수 없는 창작동화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전래동화란 오랜 세월을 거치고, 많은 전승자들의 입을 통해 변이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화소의 일부가 탈락하거나 수용되는 변이는 불가피하지만 전래동화의 특성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전래동화들은 설화로 채록되거나 설화집에 수록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문장과 진술로 전래동화의 원형을 잃고 있다.

작가가 창작한 전래동화집의 <이여도>의 중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전래동화 <이여도>¹⁰⁴⁾

1. 넓은 바다에 섬이 있었는데, 섬은 아기를 갖고 싶어하여 병이 들었다.
2. 섬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고 아흔아홉 개의 꿀짜기를 내어 바람을 막고, 오백 명의 힘센 장군들로 섬을 지키게 했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3.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아기섬을 만들어 주고 이여도라고 하였다.
4. 섬은 병이 나았으나 이여도는 마음의 섬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랐다.
5. 이여도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해녀들이 찾았지만, 실지로 본 사람은 없었다.
6. 해녀들이 찾은 아기섬은 온통 산호와 온갖 물고기가 모여 바다 속의 천국이었다.
7. 해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구경하고 오랜 시간 후에 물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8. 해녀와 함께 아기섬이 물위로 고개를 내밀었으나 아무도 아기섬을 보지 못했다.
9. 그 후 아기섬을 본 사람이 없어 전설과 동화의 섬 이여도가 되었다.

B. 전래동화 <파랑도>¹⁰⁵⁾

1.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생각하는 섬이 있었다.
2. 움직이지 못한다고 욕심쟁이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3. 고민이 생기자 섬은 황폐해져서 새들도 떠났다.
4.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소리가 들린 후, 몸이 가벼워져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되었다.
5. 섬은 신이 났으나 하루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음성이 들려 왔다.

103) 김성도의 작품으로는 <섬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고, 송재찬의 작품으로는 <금섬>, <날개와 짝신>, <새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날개를 잃어버린 사람들> 등이 있으며, 필자의 작품으로는 <이여도를 찾는 아이들>, <검둥이를 찾아서>가 있다.

104)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6, pp. 185-189. 이여도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여도와 병행하여 사용되는데, 언중들이 발음상 이여도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이여도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여도에서 이여도가 변형되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한 굳이 이여도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또 제주민요에서도 이여도로 통일되고 있어 이여도로 명명한다.

105) 장영주, 「민족전래동화」 8, pp. 160-163. 파랑도는 1884년에 제작된 영국 해도에 나타나는 'Socotra Rock'을 1984년 KBS에서 두 차례 탐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 남쪽 북위 32도 7분, 동경 125도 10분에 있는 섬이 아닌 수중암초가 확인되었으며, 이 암초를 <파랑도>, <이여도>라고 함.

6. 섬은 다시 움직이지 못하고 외로운 섬이 되었다.
7. 물고기가 찾아왔으나 다시 떠나 버려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8. 찾아온 물고기가 웅달생물을 먹고 싶다하여 웅달생물을 가지게 되었다.
9. 그 후 섬은 해초가 덮이고, 물고기가 찾아 드는 아름다운 섬 파랑도가 되었다.

위 전래동화 <이여도>나 <파랑도>는 자연전설이다. 전설은 전승자가 진실되었다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고,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을 갖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증거물의 성격상 대체로 지역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며 전래동화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최운식은 전설이란 “이야기의 연대·사건 발생의 장소·주인공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역사화합으로써 스스로 합리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선인들의 옛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산천·도서·사찰 등의 형성·유래 등을 그 진부에 관계없이 설명하려는 특성이 있다.”¹⁰⁶⁾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전래동화들은 동화의 특성 중 진실성과 역사성, 체험성과 설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설화를 수용하여 재화한 전래동화라고 볼 수 없다.

<이여도>전설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여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나 무릉도원, 에덴동산과 같은 이상향은 아니다. 민요에 나타나는 이여도는 저승세계로 보는 견해와 해산물이 풍부한 섬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강남길의 절반에 있는 섬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⁷⁾

알려진 <이여도>전설들은 다음과 같다.

a. 구좌읍 동김녕리의 김순여의 얘기에 의하면 ‘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소실과 함께 무인도인 이여도에 가서 첩을 정해 놓고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가 시아버지와 함께 선홍꽃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어 이여도에 찾아가 보니 남편은 새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설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풍파를 만나 몰사했다¹⁰⁸⁾고 한다.

위의 전설은 새로운 화소는 아니다. 이여도에서 돌아오다가 몰사했다는 것은 그 섬을 본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과 상통한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여도를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제공한다. 달나라가 우주인에게 첫선을 보임과 동시에 달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이, 이여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섬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향으로 존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이여도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섬에 대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이다.

b. 이여도를 離虛島, 離於島 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고려시대에 제주에는 해외무역이 성했는데

106) 최운식(1991), 「韓國說話研究」, 集文堂, pp. 78-79.

107)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pp. 291-294.

108) 김순여(1985), “이여도” 「제주도 전설집」, 제주도, P. 67.

강남가는 해남항로의 절반 길인 離虛島 주위는 파도가 심해 상선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⁰⁹⁾

c. 일본인 다카하시가 1920-1930년대에 대정에서 채록한 얘기로 고려 충렬왕 3년, 제주는 원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토산물을 바치러 원나라로 간 배가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항로의 중간에 離虛島라는 섬이 있다는 얘기가 섬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다. 강씨라는 船舶商이 산둥을 향해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 아내가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이허도여'라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허도까지라도 닿아 줬으면 하는 뜻으로 불렀다고 한다.¹¹⁰⁾

d. 조천면 수기동에서 수집했다는 것으로 한 선원이 해적을 만났는데,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목숨만 살려 달라고 애걸하니 혀와 양손을 잘라 작은 배에 태워 버렸다. 조류와 바람이 그를 운 좋게 제주도로 날라다 주었는데, 겨우 입으로 이어도의 소재와 해적 이야기를 官에 보고했다. 그 아내가 이어도를 원망하여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온 섬에 퍼졌다. 이어도는 서북쪽의 얼음 나라와 섬 중간에 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¹¹¹⁾

이어도 설화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내용은 아주 단조롭다. 설화에 등장하는 이어도를 요약하면 제주도의 서남쪽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위치한다는 섬이며, 이 섬 주위에는 파도가 거세 지나는 배가 파손되어 선원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환상을 담은 전설이나 민요를 보면, 이어도가 환상의 섬이라기보다는 죽음의 섬, 슬픔을 가져다주는 섬으로 그려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 이어도는 한을 안고 살아가는 제주 여인들에게 있어서 슬픔과 위로를 동시에 주는, 희망의 섬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전래동화 <이어도>는 전설의 섬 <이어도>와는 그 내용이 아주 다르다. 그러나 전래동화 <이어도>에는 '오백명의 힘센 장군', '어디 있는 지 모르는 섬', '해녀들이 찾을 수 없는 곳', '천국' 등의 모티프가 들어 있어 제주 설화를 수용하여 창작한 전래동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어도>, <파랑도> 전래동화에서는 섬이 작중인물로 등장한다. 설화는 제주 선인들의 사상이나 생활이 들어 있는 것들로 섬이라는 자연이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이 섬이 1인칭 시점에서 심리상태를 묘사한 문장이 많아, 3인칭 객관적 시점에서 구연되거나 서술되는 전래동화의 특징과 거리감이 있다. 이외에도 <무지개>나 <더벅머리 도체비> 등도 제주 설화를 수용한 전래동화라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제주 관광지의 하나인 목석원의 수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갑돌이의 일생>을 전래동화로 수용한 것은 동화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09) 김영돈, 위의 책, p. 298.

110) 좌혜경(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p. 182.

111) 세민일보, "濟州島", 1995년 11월 7일, p. 5.

제주 설화와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큰 차이점은 도입부가 전래동화의 형식이 아니라, 창작동화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화작가들이 재화한 전래동화들 중 다수가 시간적, 지리적인 배경이나 인물의 신분적 배경이 탈락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대화체를 수용하여 전래동화라기보다 창작동화라는 느낌이 나도록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다.

A. 전래동화 <저승할망>¹¹²⁾

“휘.”

“휘이 휘이”

무당은 신이 난 듯 춤을 추었습니다.

홍역으로 앓은 아이는 무당이 뒤흔드는 시퍼런 칼을 질린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B. 전래동화 <산신령의 말>¹¹³⁾

‘하늘을 날아봤으면…….’

뱀은 날마다 용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용이 될 거야.’

언젠가 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C. 전래동화 <욕심 많은 김통정>¹¹⁴⁾

어느 달 밝은 밤입니다. 눈처럼 하얀 달빛이 온 누리를 환히 비춰주고 있는데 중국의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달 구경을 나왔습니다. 왕은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 높은 정자 위에 올랐습니다.

“오, 과연 아름다운 달밤이로고!”

왕은 마치 자신이 시인이라도 된 것처럼 읊조렸습니다. 물론 신하들도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일제히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위 전래동화들의 도입부를 보면 전래동화라기보다는 창작동화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A 전래동화는 무당춤 특히 무당이 내지르는 의성어로 시작되고 있으며, B 전래동화는 심리묘사로, C 동화는 배경묘사로 시작되었다. 이 세 동화의 도입부분은 전래동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황묘사로 전개되어 있어 전래동화집에 실려 있지만 창작동화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입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전래동화의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이 탈락되어 더욱 그렇다. 시간적인 배경과 지리적 배경의 도입은 전래동화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성어나 심리, 대화글로 시작되는 형식은 전래동화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형식으로부터 이탈하는 이

112) 강정훈(1983), 「구슬을 먹는 아이」, 관광제주, p. 17.

113)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 아동문예, p. 114.

114) 손춘익(1997), 「힘센 할망과 피 많은 하르방」, 우리교육, p. 47.

런 현상은 여러 동화작가의 전래동화집에 자주 나타난다.

전래동화의 전형적인 도입부가 아니라 창작동화적인 도입을 하고 있는 전래동화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표 - 9 > 창작동화의 도입부와 같은 전래동화

구 분	A	B	C	D	E	F	G	H	계
총 편 수	53	20	15	48	98	24	22	30	310
창작동화적인 도입	0	19	0	8	18	0	1	4	50
비 율%	0	95	0	16.7	18.4	0	4.5	13.3	16.1

위 표를 보면 제주 전래동화집 310편 중 50편이 창작동화와 같은 도입부를 가지고 있다. 창작동화의 도입부는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소개로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나 독백, 의성어, 의태어 등으로 전개하여 시적인 문장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설화를 전래동화로 재화하면서 시적인 표현, 대화 등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래동화 형식과 거리감이 있다. 이런 전래동화가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B 전래동화의 경우에는 95%가 창작동화적인 문장으로 전래동화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래동화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동화도 3편이 있어 전래동화집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운식은 “전래동화는 주제가 노출되어 있고, 창작동화처럼 환상이나 꿈, 의인법 등이 적게 나타나며, 정경묘사나 성격묘사가 없이 줄거리 위주로 되어 있다.”¹¹⁵⁾고 창작동화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래동화가 창작동화의 문장이나 비유법을 수용할 수는 있는 일이다. 그런데 본래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창작동화의 틀을 갖는다면 전래동화의 특성은 그만큼 퇴색되고 말 것이다. 전래동화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전승되어 온 이야기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 창작되어서는 안된다. 공동 또는 집단으로 창작되어 온 것이 전래동화이기 때문에 전래동화를 재화하는 작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한 후, 동화집을 엮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115) 최운식, 김기창, 앞의 책, p. 34.

IV. 독자의 수용 의식

어린이들은 전래동화를 좋아한다. 그들은 전래동화의 사건을 들으며 상상력을 키우고, 인정을 느끼며, 웃음과 지혜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전래동화 속에 담긴 민족정서를 갖게 되고 언어능력을 기르게 된다.

제주 어린이들에게 제주 전래동화를 전승시켜 주는 것은 우리 역사를 전승시켜 주는 것이다. 제주 선인들은 신화를 통해 신앙심을 가졌고, 자연에 전설을 만들며 생명을 부여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 인물 전설을 통해서도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표현하였으며, 민담을 통해 유머를 즐기고, 권선징악의 지혜를 키워 나갔다. 그런 점에서 제주 전래동화를 알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전래동화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제주 어린이들은 전래동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화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제주시내 N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100명씩 선정하여 6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을 질문지(부록 4참조)를 통해 조사하였다.

< 표 - 10 >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호응도

번호	문항	반응	1	2	3	4	5	6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
1	제주 전래동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웃어른들이 얘기해 줌.	12	19	22	27	37	23	140	23.3
		② 책에서 읽음.	76	76	61	63	54	63	393	65.5
		③ 친구들이 얘기해 줌.	2	0	4	3	1	4	14	2.3
		④ 신문이나 TV로 읽.	10	5	13	7	8	10	53	8.8
2	웃어른이 해주셨다면 누가 해주었나요?	① 할아버지나 할머니	10	17	20	21	15	12	95	15.8
		② 아버지나 어머니	37	28	24	26	17	21	153	25.5
		③ 형이나 언니	22	12	14	6	6	4	64	10.6
		④ 선생님	31	43	42	47	62	63	288	48.0
3	제주 전래동화는 재미있습니까?	① 아주 재미있다.	85	81	54	59	58	35	372	62
		② 재미있는 편이다	9	15	32	27	38	45	166	27.6
		③ 재미없다.	2	0	2	2	0	7	13	2.1
		④ 잘 모르겠다.	4	4	12	12	4	13	49	8.1

위 표를 보면 전래동화를 접하게 되는 수단은 책이 65.5%이며,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었다는 대답

이 23.3%이다. 전래동화는 본래 구비 전승되어 온 문학이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인해 전승자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 역시 바쁜 일상업무로 전래동화 전승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여, 전승의 장이 사라진 공백을 책이 메우고 있다. 전래동화를 책으로 읽는다는 것은 전승과정에서 생기는 정감과 애정의 전달은 일어나지 않지만, 전래동화의 원형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또 23.3%가 성인을 통해 전래동화를 받아들였는데, 가족이 아닌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어린이가 48%로 나타나고 있어, 선생님들이 전래동화 전승자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래동화의 교육성을 고려할 때, 어린이와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교사가 전래동화 전승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제주 전래동화의 전승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김학성¹¹⁶⁾은 설화를 전승케 하는 動因을 세 가지 傳承素로 나누고 있는데, 흥미소¹¹⁷⁾, 효용소¹¹⁸⁾, 목적소¹¹⁹⁾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화의 특성을 살려 흥미소, 교훈소, 형식소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흥미소는 가장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1편씩 기술하도록 하여 특히 어떤 화소를 좋아하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하며, 교훈소는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래동화의 주제를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교훈소를 찾아내어 전래동화의 교육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형식소는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래동화의 플롯유형을 분석하여 어떤 결말로 끝나는 동화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한다.

1. 흥미소

전래동화 구성의 3대 요소는 인물과 사건, 배경이다. 이 3요소는 소설이나 창작동화 등 서사문학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다. 그 중 전래동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건이다. 전래동화의 도입부를 보면 소설의 3대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 2대 요소가 제시되고 있다. 결국

116) 김학성(1977), “國遺事 所載 說話의 形成 및 變異過程 試考”, 『관악어문연구』 제2집, pp. 195-196.

117) 어떤 실제 사건에 관한 사실담이 널리 유포되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호기심을 발동하여 그 사실담을 자기네 세계관에 맞게 변이화시키면서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허구적인 이야기 곧 설화를 형성할 때, 작동하여 그 설화를 윤곽하게 해서 형성·유포시키는 素因을 말한다.

118) 坐俗 또는 佛僧같은 종교·주술담당자가 그들의 신앙이나 사상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전승소로서 그들 특수집단의 포교와 영험의 제시에 이바지한다. 따라서 설화의 주제에 깊은 연관을 맺으며, 설화의 주기능이 되는 근원사상의 향방을 결정한다.

119) 상층민인 지배계층에 작용하는 전승소로서 자기네의 문화적 취향과 교훈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에 의해 설화의 형성·전파에 가담하는 動因을 말한다.

전래동화를 전승한다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읽거나 듣게 되는 셈이다.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변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심리묘사나 배경묘사보다 사건 변화와 전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빠른 변화를 보이는 사건을 선호한다. 어린이들의 이런 성향은 “호기 본능이며, 지식과 체험이 알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접할 때마다 경이와 호기심, 의문을 가지게 된다”¹²⁰⁾고 하였다. 어린이들은 지식과 체험이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할 때마다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게 되고, 경이로운 인식을 가지고 사건 속에 빨려 들어간다. 어린이들이 만화나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사건의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동화 165편 중 신화에서 수용된 동화가 21편, 전설에서 수용된 동화가 108편, 민담에서 수용된 동화가 36편이다. 이들 중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조사하면 전래동화에 대한 제주 어린이들의 수용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표 - 11 > 좋아하는 제주 전래 동화(1)

번호	전래동화	1	2	3	4	5	6	계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
1	설문대 할망	3	9	18	39	57	36	162	27
2	삼성신화	·	·	3	11	3	5	22	3.6
3	오백장군	·	·	1	5	9	4	19	3.1
4	사만이	·	·	1	1	5	·	7	1.1
5	김만덕	·	·	·	6	·	·	6	1
6	가과도 아기엽개 바위	·	·	·	·	3	2	5	0.8
7	여우물	·	·	·	·	·	4	4	0.6
8	김녕사굴	·	·	·	·	·	3	3	0.5
9	자청비	·	·	·	·	2	·	2	0.3
10	기타 제주전래동화	·	·	7	5	7	10	29	4.8
11	제주 전래동화가 아닌 동화나 위인전 등	93	86	59	22	6	7	273	45.5
12	공란	4	5	11	11	7	25	63	10.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600	100

위 표를 보면 제주 전래동화를 바로 알고 있는 어린이 41.2%의 59.3%가 <설문대 할망>을 지명하고 있다. 3% 내외로 응답한 다른 동화에 비하면 아주 높은 흥미도를 보여준다. <설문대 할망>

120) 손동인, 앞의 책, p. 34.

은 6권의 전래동화집에 실려 있어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화소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설문대 할망>의 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¹⁾

1. 빨래할 때, 왼발은 성산 일출봉에, 오른발은 마라도에 딛고, 옷은 직기섬에 놓고 빨았다.
2. 북쪽 바다에서 빨래할 때 추자도와 완도에 발을 딛고서 보길도에 옷을 놓고 빨았다.
3. 왼발은 한라산에 딛고, 오른발은 산방산에 딛고 서서 태평양 물에 빨래할 정도였다.
4. 한쪽 발은 한라산에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5. 빨래를 관탈섬에 놓고, 한라산 꼭대기를 밟고 서서 빨아 빨았다.
6. 한쪽 다리는 지귀섬에 놓고, 한쪽 다리는 마라도에 놓고 성산봉을 구시봉(빨래봉)으로 삼고, 소섬은 팥돌로 삼아 빨래를 하였다.
7. 한라산은 치마로 흙을 다섯 번 날라 만들었고, 오름은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이 쌓여 생겼다.
8. 도랑쉬 오름은 주먹으로 봉우리를 쳐서 움푹 패어 버렸다.
9. 일출봉에 있는 등경들은 바느질 할 때 등간을 올려놓은 돌이다.
10. 한쪽 발은 오조리 식산봉에 디디고,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싸서 흙과 돌이 떠나려가 소섬이 생겼다.
11. 송당에 있는 세 개의 돌은 밥을 짓던 솥덕이다.
12. 한라산을 배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13. 한내 위쪽 방선문에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할머니가 쓰던 감투이다.
14. 한라산에서 오줌을 싸서 흙과 돌이 떠나려가 탐라계곡이 생겼다.
15. 한라산을 배고 누운 자리가 패어 백록담이 생기고 등을 찌른 돌을 던지니 섬이 되었다.
16. 범섬의 동굴은 한라산을 배고 누웠을 때 발가락으로 찢려 만들어졌다.
17. 괘지리에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것은 밥을 해먹던 솥덕(부뚜막)이다.
18. 풍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설문대 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19. 명주 1통이 모자라 옷을 만들지 못해 다리를 완성하지 않았는데 그 흔적이 조천리·신촌리 사이의 바다에 있다.
20. 용소 물에 들어가니 발등에 닿았고, 홍리물은 무릎까지 닿았고, 물장오리 물에 들어가 빠져 죽어 버렸다.

<설문대 할망>의 화소들은 이와 같이 다양하다. 이 화소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설화의 구조가 달라지고, 또한 길이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화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빨래’ 화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승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리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설문대 할망>에서 중심화소는 18번 화소와 19번 화소이나 한 화소가 단독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화소가 결합하기도 한다.

121) 설문대 할망 설화는 모든 설화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현용준(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pp. 22-26에 17개의 화소, 제주도편(1985), 「제주도지」 pp. 68-69에 9개의 화소가 수록되어 있다.

<설문대 할망>에는 대략 20여 개의 화소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의 심성을 자극하여 깊은 인상을 준 화소가 그들로 하여금 <설문대 할망>을 좋아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설문대 할망>의 화소 중 어떤 화소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흥미도는 다음과 같다.

< 표 - 12 > 설문대 할망의 사건 흥미도

구 분	1		2		3		4		5		6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산과 오름을 만듦	·	·	·	·	·	·	7	5.8	28	23.1	4	3.3	39	32.2
산을 베고 잠	1	0.8	1	0.8	3	2.4	13	10.7	·	·	4	3.3	22	18.2
다리 만듦	·	·	2	1.6	·	·	6	5.0	2	1.6	11	9.1	21	17.4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함	1	0.8	1	0.8	3	1.6	·	·	5	4.1	11	9.1	21	17.4
키가 아주 큼	1	0.8	·	·	2	1.6	5	4.1	9	7.4	4	3.3	21	17.4
물장오리에 빠져죽음	·	·	·	·	·	·	·	·	·	·	3	2.4	3	2.4
오줌으로 바다, 계곡 만듦	·	·	·	·	1	0.8	·	·	·	·	·	·	1	0.8
기타	·	·	·	·	2	1.6	·	·	3	1.6	·	·	5	9.1
계	3	1.6	4	3.3	11	9.1	31	25.6	48	39.7	34	28.1	121	100

위 표에서 <설문대 할망>의 여러 사건 중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 사건은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사건이다. 치마로 흙을 다섯 번 나르니 한라산이 되었다는 사건은 아주 흥미롭다. 특히 치마에 뚫린 구멍에서 흘러내린 흙이 오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나 본토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는 점 등은 어린이들을 팬터지의 세계로 끌고 가는데 모자람이 없다.

<설문대 할망> 다음으로 호응도가 높은 전래동화는 <삼성신화>이다. 자연전설 삼성혈과 같은 이야기로 전설로 분류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단군신화>나 <주몽이야기> 등 국가의 형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건국신화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삼성신화>도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들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삼성신화>의 사건별 흥미도는 다음과 같다.

< 표 - 13 > 삼성신화의 사건별 흥미도

구 분	1		2		3		4		5		6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기이한 탄생 (구멍 출생)	·	·	·	·	·	·	6	24	1	4	3	12	10	40

화살쏘아 살 곳을 정함	·	·	5	20	·	·	2	8	1	4	1	4	9	36
사는 방법이 특이함	·	·	1	4	1	4	1	4	1	4	·	·	4	16
공주와 결혼함	·	·	2	8	·	·	·	·	·	·	·	·	2	8
계	·	·	8	32	1	4	9	36	3	12	4	16	25	100

<삼성신화>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흥미를 끄는 사건은 삼성혈에서 세 신인이 솟아났다는 것으로 40%에 이른다. 우리 나라의 신화는 그 주인공이 앞에서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삼성신화는 땅 속에서 용출하고 있다. 삼성혈은 삼성신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주 조상이 용출했다는 점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화살로 살 곳을 정했다는 화소가 흥미롭다는 어린이도 3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오백장군>이 흥미롭다고 대답한 어린이가 12명이 있었다. <오백장군>은 팔죽 속에 어머니가 빠져서 죽는다는 사건과 그것을 모르는 아들들이 죽을 먹다가 막내에 의해서 발견되어 바위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이다. <오백장군> 이야기는 비극적 결말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죽 술에 빠져 죽었다는 것과 아들들이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동정심을 유발시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들에 나타나는 사건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판타지와 리얼리티이다. 동화는 판타지의 문학이라고 할만큼 환상과 초자연적인 공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전래동화에서 이 판타지가 사건의 흥미를 높여주는 구실을 한다. <설문대 할망>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설문대 할망의 행적은 대부분 판타지에 해당된다. <삼성신화>의 땅 속에서 세 신인이 용출했다거나 바다를 건너온 석함에서 나온 공주와 사신도 이에 해당된다.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사건 중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불행한 사건들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한 논의는 목적소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임으로 이 장에서는 제외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재미있다고 선택한 제주 전래동화는 다음과 같다.

< 표 - 14 > 좋아하는 제주 전래동화(2)

학년	제 주 전 래 동 화
2	백록담과 산방산(1)
3	오백장군(1), 날개달린 아이 장수(1), 방선문(2),
4	오백장군(5), 진좌수(1), 도깨비불을 없앤 오훈장(1),

5	사만이(5), 허웅아기(2), 산방덕이(1), 오백장군(7), 여우잡은 소금장수(1), 아흔아홉골(1), 괴범천총(1), 남선비(1)
6	오돌또기(1), 여우물(4), 김녕사굴(2), 오백장군(4), 용두암(1), 이어도(1), 신촌효부(1), 백록담(2), 아흔아홉골(1), 산방덕이(1), 괴범천총(1), 가파도 아기엽개 바위(2), 절부암(1), 매고할망(1)

위 표를 보면 전래동화를 접할 기회가 많고 독서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학년 어린이들이 저학년 어린이들에 비해 다양한 동화를 알고 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쓰라는 설문에 응답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위 <표-11>과 같다. 앞에서 제주 전래동화를 좋아하느냐는 물음에 90% 가까운 어린이가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 전래동화가 아닌 이야기를 제주 전래동화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가 45.5%나 되어 전래동화 전승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제주 전래동화집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능력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도민이 지녀온 문학으로 제주 문화와 주체성을 알게 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이야기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훈소

전래동화 속에 담긴 교훈적인 요소는 창작동화¹²²⁾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인식한 지식이나 가치판단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잠재의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래동화 속에 교훈적인 요소가 담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또한 어린이들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비판 없이 곧바로 수용하기 때문에 전래동화를 통하여 예절이나 도덕적 가치판단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전래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읽혀야 한다. 좋은 동화란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 꿈과 소망,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것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또 효도, 우애, 신의, 협동 등을 이야기한 것”¹²³⁾을 가리킨다. 어린이들은 좋은 전래동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을 배우게 되며, 선악의 판단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는 전래동화 속에 교훈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제주 전래동화 속에 들어 있는 교훈적인 요소중 대표적인 것은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는 모든 문학작품에 보편적으로 내재

122) 이재철(1983),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p. 13.

123)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p. 74.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권선징악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도덕관념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전래동화에는 선악의 대결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 대결에서 악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선이 승리한다. <김녕사굴>에서 뱀을 죽인 서린 판관이 뒤쫓아온 피비를 맞고 죽었으나, 그 판관은 백성에게 온갖 악행을 일삼던 뱀을 죽여 불안에 떨던 백성을 구한다. 또 <천지연>에서 착한 순천이를 강간하려던 명문이는 못속에서 솟아오른 용에 의해 징치를 당한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의 이야기 중 악의 세력에 분노하고, 선의 승리에 찬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모든 문학작품이 그러하듯이 전래동화에 들어 있는 교훈적인 요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나서 감동을 받고 실천하려는 의지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전래동화를 읽으면 지시적·억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행의 의지를 받아들일게 된다. 전래동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 삶의 지혜와 교훈적인 요소가 수용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 분석을 통해 교훈적인 요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표 - 15 > 제주 전래동화 교훈소 분포

주 제 (교 훈 소)	빈도수	비율
권선징악	19	11.5
허욕 금지	11	6.7
효도	7	4.2
충성	6	3.6
보은	6	3.6
정신일도 하사불성	4	2.4
남을 해치면 저도 해를 입는다	4	2.4
남편을 섬김	4	2.4
지혜로운 삶	3	1.8
기타(교훈적인 것)	12	7.3
기타(생성유래와 명당발복, 장사의 좌절 등)	89	53.9
계	165	100

위 표를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중에 교훈이 수용된 동화는 46%이다. 이는 한국 전래동화의 주제 중 71.5%가 교훈이 수용되었다는 연구¹²⁴⁾와 비교해 볼 때, 교훈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설화를 수용한 전래동화에는 생성유래를

124) 손농인, 앞의 책, p. 38.

가진 전래동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성유래가 주제인 전래동화 중에도 교훈적인 주제를 이중으로 갖고 있는 전래동화가 많다. <오백장군>, <외돌괴와 범섬>, <절부암>, <아기엽개> 등의 전래동화에는 생성유래와 함께 효도, 애국, 열녀 등의 교훈소가 들어 있어 한국 전래동화의 주제와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위 표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도 권선징악의 주제가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허욕 금지'의 주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될 때,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전래동화가 전승되어 온 것이다. 산을 깎았다가 패가망신한 <가시오름 강당장>이나 욕심이 없는 앓은뱅이가 본 황금이 욕심쟁이 장사꾼에게는 뱀으로 보인 <앓은뱅이와 황금> 등의 주제를 통해 헛된 욕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성 홍효자>, <신촌 김댁 며느리> 등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래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효사상을 배우게 된다.

제주 전래동화에서 충성을 주제로 하는 동화가 있는데, 임금님에게 충성을 하는 이야기로는 귀한 진주를 바치는 <구슬 할망>과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드랑쉬 오름에 올라가 향을 사르자 한양에서 향내가 진동했다는 <고성 홍효자>등이 있긴 하지만, 제주 전래동화에서 충성을 주제로 하는 동화는 개가 주인을 위해 충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개를 소재로 한 전래동화에는 <오수의 개>와 유사한 이야기가 수용되어 있기도 하다. 개는 제주 선조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아주 소박하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제주 선인들의 의식이 전래동화에서 드러난다. 특히 개를 소재로 한 전래동화 중에 명당과 얽힌 이야기가 있어 개의 충성심, 영리함을 드러냄과 아울러 풍수지리까지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은혜는 잊지 않고 갚아야 한다는 정신을 전래동화 속에 수용하여 순박한 제주 선인들의 심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에는 권선징악과 효, 충성 등의 올바른 가치관이 들어 있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과 가치판단을 배우고, 삶의 여러 형태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것이다.

문학은 단지 교육을 위해서 창작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학은 삶을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학은 “첫째,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므로, 독자는 상상력을 훈련받을 수 있다. 둘째, 문학은 작가의 깊은 사상과 질은 인간체험이 나타나 있으므로, 독자는 이를 통하여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할 수 있다. 세째, 문학에는 보편적 지식이 담겨 있으므로 독자는 이를 통하여 깊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문학은 내용과 형식을 통하여 미적 情操을 일으키므로, 독

자는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는 문학은 언어를 한정적 용법으로 쓰므로, 독자는 세련된 표현능력과 인식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다.”¹²⁵⁾고하여 문학의 효용성 즉 교육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학은 강제성을 띠어 의무감 속에 짓눌리게 하지않고 독자 스스로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변화를 얻고 있어 문학의 교육성은 더욱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전래동화를 전승한다는 것은 문학의 교육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화에는 효도와 조상 숭배의 사상이 들어있고, 자립심을 길러주며, 가치갈등에 따른 판단력을 길러 주는 힘이 들어 있어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최근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태를 지탄하는 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과 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이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선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남을 해쳐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이 늘어나 선악의 강조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공동생활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배타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람들의 심성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들에게 선악의 판단력을 심어주는 전래동화의 전승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전래동화의 교육성에 비추어볼 때,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전승은 아주 미흡하다. 영상매체들과 출판물의 범람, 부모들의 편견, 가치관의 혼란, 입시위주의 교육 등 어린이들을 전래동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래동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래동화에 대한 가치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전래동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전래동화에는 교육성과 함께 예술성이 들어있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 속에 담긴 예술적 감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가 165편인 점과 비교하면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동화의 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알고 있는 제주도 전래동화를 모두 쓰시오’ 라는 문항에 어린이들의 반응은 ‘좋아하는 동화를 쓰시오’ 라는 앞의 질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제주 전래동화를 쓰라는 지시에 한국 전래동화를 쓴 어린이가 30.4%였고, 서양동화나 위인전 등의 답을 쓴 어린이가 28.2%로 전체 어린이 60%가량이 제주 전래동화와 한국 전래동화, 창작동화를 혼동하고 있다. 제주 전래동화가 재미있느냐는 물음에 재미있다고 응답한 90%의 어린이 중 50% 이상의 어린이가 제주 전래동화가 아닌 동화를 쓰고 있으며, 저학년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심했다. 또 제주 전래동화를 쓴 어린이 중 <설문대 할망>을 쓴 어린이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그들이 알고

125) 정농화외(1984), 「국어과 교육론」, 선일문화사, P. 387.

있는 제주 전래동화가 매우 적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표 - 16 > 전래동화 제목의 암기도

학년	제주 전래동화		한국 전래동화		기타 (서양동화·위인전 등)		계	
	제목수	%	제목수	%	제목수	%	계	%
1	7	0.3	201	9.8	212	10.3	420	20.4
2	27	1.3	190	9.2	168	8.2	385	18.7
3	71	3.4	56	2.7	57	2.8	184	8.9
4	175	8.5	109	5.3	126	6.1	410	19.9
5	346	16.8	28	1.4	10	0.5	384	18.6
6	222	10.8	47	2.3	8	0.4	277	13.4
계	848	41.2	631	30.6	581	28.2	2060	100

위 표를 보면 제주 어린이들은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며, 한국 전래동화, 심지어 서양동화나 위인전 등을 제주 전래동화로 제시하고 있어 장르의 구별 인식능력이 확립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5·6학년 어린이들은 저학년에 비해 전래동화를 바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5학년은 10%, 6학년은 20%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제주전래동화에 대한 인식능력이 부족했다.

알고 있는 전래동화도 전체 어린이는 평균 1.3편, 5학년 어린이는 3.5편, 6학년 어린이는 2.2편을 기억하고 있어 나이나 학년에 따라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서환경이나 전래동화를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 능력이 아주 낮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 전래동화를 대면할 기회가 적다는 데 이유가 있는 듯하다. 가족간의 전승체계가 사라진 데다가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학년용 그림동화집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동화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독서력이나 독해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간행된 동화집을 소화할 능력이 없다. 현재 출판된 전래동화집들이 모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저학년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제주 전래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림동화집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책을 통해서 전래동화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학년을 위한 그림 전래동화집 발간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래동화의 전승작업은 이야기의 전승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주제와 사건을 통해서 독자인

어린이들은 큰 교훈을 얻게한다. 전래동화 속에는 많은 교훈성을 내재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아주 크다.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전래동화를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에서 29편을 실었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40편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어¹²⁶⁾ 전래동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래동화의 중요성이나 교육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집을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성인들의 책임이다. 부모, 교사 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의식을 가진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래동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3. 형식소

전래동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과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있다. 결말은 이야기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주제의 완성이라는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제가 작품의 중심 사상이라면 결말은 중심 사상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래동화에서 결말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면 성공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는 효과가 있다. 인내, 노력의 결과 선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건을 통해 가치판단 능력이 배양되고,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교육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전설을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는 불행한 결말을 가진 동화가 많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좌절과 극복을 거쳐 행복한 결말로 이르는 것이 전래동화의 일반적인 구조이나, 평민들의 한이나 아픔을 담아 불행한 결말로 끝맺는 전래동화가 다수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제주 전래동화를 책이나 성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읽거나 들은 전래동화를 모두 기억할 수 없다. 사람은 인식했던 기억들을 망각하고 새로 기억하는 일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읽은 동화의 제목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어떤 동화는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상세히 기억하기도 한다. 과거에 읽은 전래동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깊은 감동을 주었거나 강한 인상을 심어 준 결과일 것이다.

어린이들은 어떤 구조를 가진 동화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부록 4참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자신이 들었거나 읽은 제주 전래동화 중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동화를 모두 쓰라는 질문에 응답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126) 장영주(1995), “전래동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 10.

< 표 - 17 > 제주 전래동화 인지도

번호	제주 전래동화	빈도 수	번호	제주 전래동화	빈도 수	번호	제주 전래동화	빈도 수
90	설문대 할망	260	35	관덕정	8	32	산방산과 방철 스님	3
10	삼성신화	122	79	오찰방	8	36	제주의 고려장	3
24	오백장군	70	48	뱀을 죽여 없앤 서련	8	80	아기 장수의 죽음	3
5	사만이	32	8	남선비	7	102	문만호 며느리	3
31	수월봉과 녹고물	20	50	용궁을래와 칼선도리	7	103	매고 할망	3
40	백록담과 산방산	20	53	용머리 바위	7	137	여우잡은 소금장수	3
6	자청비	19	18	영등할망	6	20	할망당	2
54	용두암	19	33	외돌개와 범섬	6	42	유반석과 무반석	2
34	이여도	17	45	천제연과 효자	6	82	날개돋은 아기의 죽음	2
120	의녀 김만덕	16	46	천지연	6	131	여우잡은 이순풍	2
23	아흔아홉골	13	57	방선문과 선비	5	28	가릿뽕디	1
128	오돌또기	13	47	열녀바위	4	1	한라산신이 된 소국성	1
9	허웅아기	12	51	여우물	4	73	배 큰 정서방	1
29	절부암	12	55	지장샘	4	78	신촌 효부	1
94	산방덕이	12	97	힘센 종 막산이	4	99	구운문	1
76	둘하르방	12	113	양선달	4	129	백중제	1
49	애기엽개 바위	11	119	고삭불 장사	4	112	문곡성과 명인들	1
91	괴범천총	10	38	삼승할망	3	21	구슬할망	1
41	신선의 놀이터 백록 담	9	26	비양도	3	142	꼬부랑 나팔	1
90	설문대 하르방	9	27	소죽은 못	3	계		850

어린이들이 1회 이상 거론한 제주 전래동화는 59편이다. 빈도 수가 260회에 이르는 <설문대할망>에서부터 1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잡은 전래동화는 수록동화 165편의 35.8%였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전래동화들로는 <설문대 할망>을 비롯하여 <삼성신화>, <오백장군>, <수월봉과 녹고물>, <용두암>, <이여도>, <의녀 김만덕>, <오돌또기>, <열녀바위>, <가파도 애기엽개 바위> 등이다. 이 동화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거론된 제주 전래동화 59편의 플롯 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한 구조는 '행복'으로, 비극적 구조는 '불행'으로 처리하였다.

< 표 - 18 > 제주 전래동화 플롯 유형분석

구 조	제주 전래동화	빈도수	비율%
불행 → 행복	3, 6, 8, 20, 21, 33, 35, 36, 40, 45, 46, 50, 55, 79, 102, 113, 120, 129, 131, 137, 142	21	35.6
행복 → 불행	9, 23, 24, 26, 28, 31, 49, 80, 82, 94, 97,	11	18.6
행복 → 행복	1, 10, 18, 29, 32, 32, 51, 57, 76, 78, 100, 112, 119,	13	22.0
불행 → 불행	5, 27, 47, 48, 53, 54, 73, 89, 103, 123	10	16.9
기 타	25, 41, 42, 90,	4	6.8
계		59	100

위 표에서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동화 59편의 플롯은 4 가지의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화는 ‘불행한 상황에서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는 구조를 가진 전래동화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복한 결말을 맺는 동화가 57.6%로 전래동화가 대개 권선징악을 다룬 것이어서 초반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후반부에 가서 해피엔드로 바뀌거나 소원 성취의 결말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화들은 다시 행복이나 불행의 중간 과정을 거쳐 결말에 이르고 있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억하고 있는 동화들은 모두 18편인데, 그 중 61%인 11편이 비극적 결말을 맺고 있다. 빈도 수로 보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동화를 기억하고 있는 어린이가 24.3%인 19명이지만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동화는 56.4%인 461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의 자연전설에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 형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며, 이 동화들은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동이나 강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현길언은 “소설은 행복한 사람이나 그러한 시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불행한 개인이나 시대 또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¹²⁷⁾이라고 하였다. 이런 논리는 바꿔말하면 문학이란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도 형상화되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부분의 전래동화가 초반의 갈등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제주 전래동화에는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으며, 어린이들은 이러한 동화를 특히 좋아하고 있다.

전래동화의 이야기는 도입부, 전개부, 절정부, 해소부로 이루어져 연극의 구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김경중은 전개부와 절정부는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어 가다가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127) 현길언(1994),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길사, p. 14

과정이므로 전체를 제시부, 중간부, 종결부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¹²⁸⁾ 대부분의 전래동화에서는 도입부에 양극단의 인물을 등장시켜 심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며, 중간부는 사건의 전개되면서 위기상황으로 몰려 긴장과 갈등 및 좌절이 고조되어 위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인물은 극심한 피해의 대상이 되어 긴장, 좌절, 갈등의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반면에 나쁜 인물에게는 이 과정에서 극악한 행동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 종결부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주인공은 중간부에서 겪은 위기와 좌절을 극복하고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독자의 상한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구실을 한다.

제주 전래동화 중에서 이와 같은 구조의 유형을 보여주는 동화로는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가 있다. 이 동화의 중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거칠고 동생은 온순하였다.
2. 어머니가 오미자를 따다가 다쳐서 병세가 심해졌다.
3. 서낭당에 가서 신령님께 비는데 지나가던 도사가 독일국에 가서 생명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다.
4. 형이 거절을 하자 동생은 가족을 주어 배를 빌려 떠났다.
5. 괴물이 나타나자 하늘에 빌고 메밀범벅을 던지자 괴물이 사라졌다.
6. 생명수를 산 후 돌아오다 형의 마중을 받았다.
7. 형은 약을 빼앗고 눈알을 후벼 파내고 가 버렸다.
8. 어머니는 병이 나아 동생을 찾았다.
9. 동생은 통나무에 의지해서 흘러가다 육지에 닿았다.
10.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불자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11. 밤이면 부엉이가 날아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12. 고향에서 편지를 가지고 온 비둘기를 만났으나 편지를 읽지 못하는 걸 한탄하며 눈을 치자 앞이 보였다.
13.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서 끌려갔으나 의심이 풀렸고 병든 공주가 피리소리에 병이 나았다.
14. 공주와 결혼하고 고향으로 향하였다.

위 동화에서 1은 도입부이며, 2~13는 중간부이며, 14는 해소부이다. 착한 동생은 끊임없이 형의 공격을 받아 위기상황에 몰려 갈등을 겪게 된다. 형은 재산을 독차지 하고도 어머니의 병환을 모른 채 하고, 동생이 구해오는 생명수를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눈을 후벼파고, 배에 구멍을 뚫으며, 다시 습격하는 후안무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착한 동생은 여러 인물과 동물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주인공은 끊임없는 고난과 좌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고, 악한 형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어 극단적인 성격을 지닌 등장인물에 의해 갈등을 겪고나서

128) 김경중(1995),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호, p. 37.

해소의 극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래동화 중에서 불행한 결말을 맺는 전래동화가 많다는 것은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권선징악으로 종결되는 전래동화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어 어린이들은 주인공과 동일시 현상을 일으켜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한 결말을 맺는 전래동화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인물의 불행이 자신의 불행처럼 여겨져 심리적으로 동정심을 갖게 된다. 특히 불행한 종말을 맞는 주인공이 선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자살한 <설문대 할망>, 팔죽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먹고 돌이 된 <오백장군>,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캐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남매 <수월봉과 녹고물>, 가족을 위해 애쓰다 저승차사에게 잡혀가는 <허웅아기>, 죽은 남편을 기다리다 자살한 <절부암> 등의 전래동화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결말을 맺어 주인공에 동정심을 가지고 동일시 현상을 일으켜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 것이다.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현실 속의 인물처럼 실제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복합적 인물이 아니고, 선하거나 악하거나 또는 아름답거나 추한 인물로 어린이들은 심리적으로 동일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들은 등장인물과 함께 시련과 고통, 갈등과 좌절을 겪고나서 그것을 극복하여 마침내 통쾌한 승리를 거두지만, 제주 전래동화에서는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어린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동화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전래 동화의 전승방향

문학의 기능과 효용론에 대한 논의에 설화와 전래동화를 대비해 본다면 교훈설과 쾌락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사랑받을 문화유산이다.

설화를 제주 전래동화로 정착시킬 때는 독자층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적인 입장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대로 필사해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자가 어린이라고 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게 된다. 내용 중에서 어린이의 정서와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가려져야 하며,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어린이의 사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문학이므로 교육성을 무시할 수 없다. 어린이들은 모든 것에서 교훈을 얻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판력이 모자라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설화나 전래동화도 훌륭한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문학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창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둔다. 문학은 독자 스스로가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인 변화를 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교육성을 갖고 있다면 전래동화 역시 교육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이어야만 한다. 전래동화 속에는 직접적인 훈화가 아닌 간접적인 교훈이 숨어 있다. 동화를 읽는 어린이들은 동화 속에 담긴 사건을 통해 감동을 받고, 건전한 국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강소천은 “동화가 형식면에 있어서 언어교육이란 점도 중요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상상력의 미화, 정의감의 육성, 동정심의 양성, 더 크게 말하면 인생의 암시를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¹²⁹⁾고 하였다.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 주고, 경험을 확산시켜 풍부하게 해 준다. 또 사고력 및 창의력을 길러 주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폭넓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문학이다.

제주 전래동화 중에는 가치갈등의 사건이 들어 있어 어린이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동화들은 여러 화소가 결합하고, 탈락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만들어 낸다. 이 사건들이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통해 가치갈등의 양상을 제공하고, 해결의 지혜를 갖게 한다.

제주 선인들의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설화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다. 이러한 관계를 적절히 보여주는 설화들이 있다.

129) 姜小泉(1962), “童話의 指導와 鑑賞”, 「兒童文學의 指導와 鑑賞」, 대한교육연합회, p. 79.

<선문대 할망>, <설명뒤 할망>으로도 불리는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과 오름, 바다, 섬 등을 만든 神人이다. 신화 <천지왕본풀이>가 우주 세계와 인간이 사는 도리를 만든 이야기라면, <삼성신화>는 인간의 출현을 알려주는 것이고,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직접 만든 창조자로 제주의 자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전래동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천지창조 신화와 제주도를 개척시킨 설문대 할망 전설, 땅 속에서 神人이 용출했다는 삼성신화를 통해 제주도 설화가 본토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이 설화들이 전래동화에 수용되어 어린이들에게 제주의 얼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주 설화 중에서 날개달린 아기장수와 풍수지리를 동시에 수용한 전설은 <베락구룡>과 <장수무덤>, <산방산이야기> 3편이 있다. <베락구룡>에서는 날개돋은 아기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묘를 옮기자 벼락이 떨어져 연못이 되었다고 했다. <산방산 이야기>에서는 가뭄이 들어 산방산 금장지에 묻은 무덤을 파 보니 날개달린 아기장수가 묻혀 있었다는 화소가 수용되어 가뭄과 무덤과의 관계 즉 풍수사상에 대한 제주 선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풍수사상은 <고전적>이나 <변씨 입도선묘>, <개잡아 얻은 뽕자리> 등의 전래동화에도 잘 드러난다. 풍수사상은 <의리 있는 개무덤>에서 개가 주인을 위해 명당을 골라 준다는 이야기에다 수용되어 있어 제주 선인들의 풍수사상이 동물과도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장수 이야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날개달린 아기장수와 기인 전설로 분류되며, 후자를 더 세분하여 장사전설, 여결전설, 오뉘힘내기전설, 기인전설, 해학적 인물전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계층별로도 분류하여, '奴僕장사와 一般장사'¹³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의 인물 중에서 제주도민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전설은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과 <奴僕 전설>이다.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에서는 날개가 잘린 후, ① 시름시름 앓다 죽는 형(밀양 박씨) ② 장사로 일생을 사는 형(한연 한배임제), ③ 날개를 자르자 벼락이 내려 못이 되는 풍수지리 수용형(베락구룡), ④ 역적으로 몰려 관군에 의해 사살당하는 형(태흥리 아기장사) ⑤ 날개를 잘리지 않고 업적을 세우는 형(오찰방) ⑥ 날개의 지짐을 피해 날아간 부대각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날개달린 아기장수 이야기는 우리 나라 각 지방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¹³¹⁾ 그런데 본토 전설의

130) 현길언·김영화는 제주의 장사를 (A) 奴僕장사와 (B) 일반장사로 나누었는데, (A) 전설은 막산이, 논하니, 정운디, 새샘이 전설이고, (B)는 날개 달린 아기장사, 오뉘힘내기, 오찰방, 심돌부대각, 한연한배임제 등에 대한 전설로 구분하고 있다. 현길언·김영화(1980),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 考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131) 김수업은 한국정신문화원에서 만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아기장수 이야기가 213편임을 밝히고 있다. (김수업(1994), "아기장수 이야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아기장수들은 날개가 잘리거나 불로 지져버린 결과 좌절하여 아기장수의 분신인 용마가 비상하지 못하고 물 속에 잠겨 죽어 버리는데 반해, 제주 전래동화의 장수들은 날개가 잘리거나 지짐을 당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장수로서의 일생을 마친다. 풍수사상과 관련이 있는 <배락구룡>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수들은 평범한 장사로 생애를 마친다. 한편 오찰방은 날개달린 아기장수와 오늬 힘내기 전설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작품이다.

또 奴僕전설에서는 ① 종의 신분 ② 초인적인 힘의 소유자 ③ 항상 허기짐 ④ 추방과 죽음의 절차를 밟고 있다. <막산이>, <정운디>, <오찬이> <논하니>, <새샘이> 등 초인적인 노동력을 가진 장사들이 대식가인 까닭에 추방되어 도둑이 되거나 좌절하는 등 불행한 생애를 마치고 있다.

제주 설화에 장사의 좌절을 수용한 것이 많음은 고종달 전설에서 맥을 찾을 수 있다. 고종달은 왕후지지가 날 것을 염려한 중국왕이 파견하여 단철·단맥·단수를 함으로써 생수도 나지 않고, 인물도 나지 않는 고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숙명을 제주인들의 가슴에 심어 놓았다. 이러한 생각은 <아흔아홉골>, <일출봉> 전설에도 나타나는데, 사나운 동물을 없앴으로서 훌륭한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믿고 있는 제주 선인들이 고난과 좌절을 통해 체념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래동화에 수용된 전설에는 제주 사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전설도 있다. <채뚝뚝이>나 <문곡성과 명인들>, <한연한배임재>, <오찰방>, <가령 양장의>, <월계진좌수>, <좌조의>, <고부윤>등은 서울·중국·곡성 등에서 지혜나 의술 등을 펼쳐 제주인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이런 전설이 생겨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섬이라는 환경에서 늘 홀대와 무시를 당하고 살아온 제주 선인들의 저항의식이 이야기의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종달이>에서 준엄한 복수를 당하듯이 <오찰방>에서도 말에서 내리게 하여 찰방벼슬밖에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승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으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제주 선인들의 겪었던 좌절은 복수라는 형태로 분출, 제주민의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바둑을 두다가 날아가 정승을 죽였지만 바둑을 두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혐의에서 벗어나고 있어 제주민의 지혜로움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제주 설화 중에는 중국과 얽힌 전설들도 수용되어 있다. 고종달과 비양도, 정방폭포 등이 그것인데, 고종달(胡宗凡)의 斷脈(斷血·斷水) 전설에서는 제주 선인들의 불모성(不毛性)과 폐쇄성이 들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 제주도가 풍수지리상 왕후지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중국왕이 고종달을 보내 단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장샘> <거슨샘이와 노단샘이>, <행기물>, <용머리>, <물징거>, <광양당신>, <차귀도> 등 자연전설에 수용되어 있어 샘의 생성 유래와 관계가 깊다. 제주의 맥을 끊고 돌아가는 고종달을 '한라산신', '광양당신', '오백장군'이 응징하고 있어 제

주도민이 외래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자기방어, 경계와 거부 반응 등을 보이고 있다. 또 <아흔아홉 골>에서도 제주도에 장수가 날 것을 염려한 중국왕이 사람을 보내 사나운 짐승이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는 큰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제주 선인들은 제주인이 운명적으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국인 중국의 영향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이 팽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활동력과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제주의 사회상을 반영하듯 <힘센 남매>, <오찰방>, <시흥리 현씨 남매>, <문만호 며느리> <힘센 할망> 등의 전래동화에서는 여장부들이 남성과의 힘내기에서 승리한다. 여성인 누이들은 남성인 동생을 이기며, 청년들도 들기 어려운 들들을 손쉽게 들어 내팽개친다. 이 전래동화에서 억눌리며 살아온 여성들이 저항의식을 내보이고 있으며,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 설화의 이러한 인물들을 전래동화에 수용하여 전승시키는 것은 제주 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어린이들에게 전승시켜 제주의 얼을 이어받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전래동화를 전승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인 면과 더불어 조상의 얼을 전승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전래동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된다.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래동화에서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이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동물이나 무생물들인 주인공들이 말을 하고, 요술을 부리며,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기가 가슴이나 겨드랑이로 태어나기도 한다. 또 용궁이나 천상세계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변신한다. 그런데 아무도 설화를 두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래동화 속에 환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환상이란 想像力の 所産으로 現實世界가 아닌 架空의 世界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이며 사건인 것이다.”¹³²⁾ 전래동화 속에 담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지는 이유도 환상성의 세계를 용인하기 때문이다. 전래동화의 진수는 바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사실들을 상상의 세계에서 통쾌하게 펼쳐 주는 환상성에 있다. 이 환상성은 독자 또는 청자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화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신화의 특성상 환상적인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리적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비현실 세계인 천상계와 지하계, 수중계가 모두 활동공간이 된다. 또한 공간 이동이 매우 자유롭다. 이를테면 옥황은 현실세계에 사는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임명하고, 사라도령은 원강암이를 데리고 걸어서 서천 꽃밭으로 가는데

132) 구인환 외(1973), 「兒童文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5.

그 꽃밭은 천상계에 있다. 또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줄을 타고 올라간 것 등 지리적, 공간적 이동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설화에서 환상성의 강화를 위해 초자연물이 등장하고 있다. 초자연물은 사건을 일으키거나 종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주인공의 행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등 사건 전개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 설화에서 환상성을 강화하는 소재 중 대표적인 것은 꽃이다. <꽃감관>에서 보듯이 옥황에는 서천꽃밭이 있어 신기한 능력을 가진 꽃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꽃은 제주 설화 중 <산신과 마마신>, <꽃감관>, <자청비>, <남선비> 이야기에 들어있는데, 억울하게 죽은 인물을 환생시키거나 주인공으로 하여금 공적을 세우게 한다. 서천꽃밭에서 자라는 이 꽃들은 범상한 것들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 효능을 가지고 있어 사건을 반전시키거나 해피 엔딩으로 이끌어갈 등을 해소시켜 준다. <번성꽃>, <환생꽃>, <수레멜망약심꽃>, <멸망꽃>, <도환생꽃>, <삿살꽃> <살살꽃> 등으로 명명된 이 꽃들은 죽은 자들의 살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생명을 되살려 놓으며, 심지어는 적군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초월적 효능을 지닌 꽃은 독자를 동화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갈 만큼 환상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꽃을 통해 삶과 삶과 생명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사건은 설화의 전승자나 청자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도 남는다. 현

전설에서도 <설문대 할망>을 비롯하여 <백록담>의 신선의 세계, <용궁올래>와 <산호해녀>에서의 용궁의 세계, 신의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산방덕이>, <날개달린 아기장수>들의 출현, 산을 오르내리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오찰방>과 <막산이>, <논하니>, <고대각>, <고삭불> 등의 초인적인 장사들과 눈이 네 개나 되는 <괴범천총>이나 <이좌수> 등은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기에 적절한 것들이다.

민담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와 같이 권선징악의 요소와 환상적인 요소를 골고루 갖춘 것들이 많다. <여우잡은 이순풍>에서는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가 이순풍의 피에 넘어가 개에게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고, 술병 속에서 나온 병둥이는 장사가 되어 괴물을 죽이고,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등 환상적인 요소를 가진 민담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제주 설화를 제주 전래동화 속에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화는 오랜 세월동안 구비 전승되어 오다가 전래동화로 수용되었다. 전승에는 화자와 청자의 대면과 장소, 시간 등의 제약이 따르며,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래동화집이 간행되기에 이르렀지만, 전승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하여 구연을 듣는 것이다. 그래야 청자는 구연자의 말씨, 표정, 몸짓, 환경 등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화자는 구연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효과적으로 구연할 수 있다. 또 전래동화집에 말씨나 표정, 몸짓, 청중의 반응 등 구연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면 어린이들은 흥미

를 읽기 쉽다. 사투리를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 적을 때는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써야 한다. 너무 긴 문장이나 어려운 어휘 등은 적합한 어휘나 문장으로 고치고, 표준말로 적어야 한다. 또 독서연령을 고려하여 발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전래동화의 내용은 “어린이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야만적 생활(미신에 의한 老幼의 살해·약탈·결혼 등)이나 성인적 생활(추악한 물욕, 음란한 색정)은 제거되어야 한다.”¹³³⁾ 또 지나치게 반도덕적인 것은 현재의 도덕관에 맞게 고쳐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도 교훈성을 감안하여 알맞게 고쳐야 한다. 또한 이야기의 배열이 효과를 감퇴시키거나 사건의 통일을 해치는 내용은 개작할 필요가 있다. 신화 <자청비>와 같이 화소가 지나치게 많고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난잡한 것이 있을 경우, 어린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을 때, 독서연령에 맞지 않을 때는 이야기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너무 짧은 이야기는 화소를 확대하여 길게 늘여야 한다. 짧은 이야기는 화소의 수가 적기 때문인데,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기 쉽다. 또 독서연령을 고려하여 적당한 길이의 전래동화로 개작하는 것은 동화를 더욱 흥미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래동화에서는 주제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 전설을 수용한 전래동화에서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화소를 수용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전래동화는 독자가 읽고 나서 주제를 깨닫거나 흥미를 느껴야 한다.

또한 이야기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사건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순 명쾌한 줄거리로 재구성해야 하며, 이야기의 주제나 의미가 하나로 통일되게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짧은 이야기 등은 확대하여 길게 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작가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전래동화를 전승시킨다는 면만 강조하여 설화를 수용하면 전래동화의 원형이 깨지고, 어린이들을 전래동화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거둘 것이다. 전래동화 수용 방향을 이원수는 “옛날의 도덕과 오늘날의 도덕과는 서로 약간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칭찬한 일이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덕에 비추어 좋지 않은 내용의 동화는 신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전래동화가 여러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인 만큼 내용이 차차 여러 갈래로 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되도록 내용에 있어서 대중적이 될 수 있게 하고, 문장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나라 전래동화집으로서 여러분이 읽기에 편하고 흥미롭게 하려 애썼습시다.”¹³⁴⁾라고 하여 개작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전래동화의 전승방향을 네 가지로 논의한다.

133) 이재철, 앞의 책, p. 178.

134) 이원수(1977), 「한국전래동화집」, 계몽사, pp. 219-220; 최운식, 앞의 책, p. 275에서 재인용.

첫째는 내용이다. 즉 현재의 도덕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설화는 전래동화로 개작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조상들이 남긴 설화라 할지라도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효용가치가 없으면 전래동화로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사회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는 설화나 성과 관련된 사건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문장이다. 전래동화집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씌어진 문학작품을 모은 책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래동화일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여 서술한다면 독자인 어린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싫증을 느낄 것이다. 전래동화의 문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 작품과 같이 읽기 편하고 흥미있는 문장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래동화에서 자세한 상황묘사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전래동화의 원형에서 멀어지게 한다. 구전되어 온 동화는 사건 중심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장면의 묘사 없이 사건에 충실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창작동화를 쓰던 작가들은 습관과 지나친 창작열로 상황묘사를 자세히 하는 경우가 있다. 전래동화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순 소박한 구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상황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어휘력과 독해력에 알맞는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셋째는 전래동화로 수용할 때,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대로 화소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허구가 삽입되어 전래동화의 원형을 상실한다면 전래동화의 전승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없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문장을 바꾸고, 화소를 변형시키지만 전래동화의 원형에서 벗어나다면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전래동화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탈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전래동화의 도입부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는 것은 설화나 전래동화의 정형이다. '옛날 옛날에',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년전' 등은 전래동화가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임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시대적 배경을 탈락시키는 것은 전래동화의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 창작동화의 도입부처럼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 역시 전래동화의 원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래동화는 3인칭 객관점 시점으로 진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칭 시점에서 씌어진 전래동화가 있다. 전승자는 등장인물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지않고 바깥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동작·대화만으로 전래동화를 서술해야 한다.

넷째는 남이 개작한 것을 그대로 옮겨 써서는 안 된다. 전래동화집이 간행되기까지는 채록자·표준어 개작자·전래동화 개작자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한 편의 설화나 전래동화를 보고 전래동화로 개작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원형에서 멀어진 설화나 전래동화를 수용하여 다시 전래동화로 개작한다면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된다. 전래동화를 쓸 때에는 여러 편의 설화나 전래동화를 읽고 나서 이야기의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린이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써야 한다.

전래동화를 전승한다는 것은 이야기나 사건만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이 남긴 정신을 함께 전승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전승자가 전래동화의 중요성과 개작에 따른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전래동화의 전승자는 어린이의 정서와 교훈성, 상상력, 어휘 등을 바로 인식한 후 재화에 참여해야 하며, 전래동화의 기본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작품을 쓰는데 힘써야 하겠다.

V. 결 론

필자는 지금까지 제주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제주설화의 수용 양상과 작가의 변용의식과 독자의 수용의식에 대하여 고찰해 왔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전래동화는 '제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중 동심을 밑바탕으로 꾸며진 일정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선인들의 정신과 생활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학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핵가족화로 인해 화자와 청자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래동화의 전승의 장이 끊기고 있다. 이러한 전래동화 단절의 문제점은 전래동화집 출판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전래동화집은 전래동화의 원형에서 벗어나거나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래동화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 연구는 제주 전래동화집에 실린 동화를 토대로 설화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동화작가들이 고유의 설화에 대한 의식과 그 동화를 읽은 어린이들의 수용 의식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또 원형 설화가 작가들의 손을 거친 후 나타나는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전래동화집은 8종 12권에 166편의 전래동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신화와 전설, 민담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설문대 할망>을 비롯한 몇몇 설화는 여러 전래동화집에 실려 있는데, 신화를 수용한 제주 전래동화에서는 어린이의 정서와 맞지 않은 화소들이 축소되어 이야기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고, 인물의 탈락이 두드러졌다. 또 전래동화의 주제는 신화나 전설, 민담의 주제중에 권선징악과 교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과 생성유래를 다룬 동화가 많았다. 또 선악의 대결이나 건강부약의 양상이 나타나는 전래동화는 많지 않았다. 동화 속의 인물들은 남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중심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등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화가 전래동화로 변용되면서 확대와 축소가 이루어졌다. 사건이 단순하거나 어린이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화소를 확대하기도 하며, 비교육적인 화소들은 축소되어 인물과 사건이 탈락되었다. 또 교육적인 배려로 도입화소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었다. 전래동화에 대한 작가의 변용의식은 제주 전래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읽히려는 애향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전래동화 원형에서는 이탈되었지만 부차적인 요소를 생략하고 감동적인 사건을 어린이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하여 창작동화처럼 변이시킨 것도 있으며, 시대적·지리적 배경이 탈락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독서연령을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어휘를 사용하

여 전래동화의 맥을 끊어 놓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동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들의 생활을 수용한 전래동화도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어린이들은 전래동화를 좋아하며, 주로 책과 교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 전래동화와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많으며, 제주 전래동화에 대한 인식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래동화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 것들이 많았는데,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강한 자극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로 <설문대 할망>, <삼성신화>, <오백장군>, <수월봉과 녹고물> 등이다. 어린이들이 이처럼 슬픈 동화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제주 전래동화의 주제 중 교훈적인 내용이 50%로 한국전래동화 71.5%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래동화는 조상들이 남긴 삶과 얼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며, 교육적 배려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에 알맞기 때문에 계속하여 전승되어야 한다. 전래동화집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래동화집을 발간하는 데에는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표준말, 적합한 어휘, 정확한 문장으로 설화를 충실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화소의 침삭도 어린이들의 정서와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여 첨가하거나 탈락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래동화의 환상성을 살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힘써야 한다.

이 논문은 제주 설화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제주 전래동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제주 전래동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미흡하고, 유형별 변용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설화 및 전래동화집

- 강정훈(1974), 「구슬을 먹는 아이」, 관광제주.
관광제주편(1974), 「힘센 종 막산이」, 관광제주.
秦學熙(1976), 「濟州道 民譚」, 濟州民俗研究所.
_____(1993), 「제주도전설」, 백록.
장영주(1991), 「민족전래동화 6·7·9」, 아동문예사.
제주아동문학협회(1990), 「알동네 웃동네」, 영주문학사.
_____(1992), 「탐라가 탐나요」, 영주문학사.
박재형(1992), 「제주도전래동화」, 대교출판.
손춘익(1997), 「한국전래동화」, 우리교육사.
최범서(1997), 「옛날이야기 오돌또기」, 청솔.
현길언(1984), 「제주도 이야기 1·2」, 창작과 비평사.
현용준(1976), 「제주도 신화」, 서문당.
_____(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_____(1996), 「濟州道民譚」, 제주문화.
현용준외(1985), 「濟州說話 集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도 편(1985), 「濟州道 傳說集」, 濟州道.
현용준·김영돈(1980-83), 「韓國口傳文學人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 저 서

- 고시홍외(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구인환(1973), 「兒童文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돈(1993),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김천혜(1990), 「소설구조의 이론」, 文學과 女性社.
박화목(1989), 「아동문학개론」, 민문고.
손동인(1984),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손진태(1947),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N. 프라이, 임철규역(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왕빈(1980), 「신화학 입문」, 금란출판사.
유영대(1987), 「민담 형태론」, 대방출판사.
이부영(1995), 「韓國民譚의 深層分析」, 集文堂.
이상현(1976), 「韓國兒童文學論」, 同和藝術選書.

이재철(1983), 「兒童文學概論」, 瑞文堂.
 임재해(1991), 「설화작품의 현상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장덕순(1973),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병립(1966), 「아동의 행동원리」, 법문사.
 정동화의(1984), 「國語科 教育論」, 선일문화사.
 조동일(1977),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_____(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좌혜경(1995),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최운식(1991), 「韓國說話研究」, 集文堂.
 최운식·김기창(1988),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최철·설성경(1984), 「설화·소설의 연구」, 정음사.
 현길언(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현용준(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赤松智城·秋集隆(1937), 「朝鮮巫俗의 研究」 上卷, 大阪屋號書店.

3. 논 문

강소천(1962), “동화의 지도와 감상”, 아동문학의 지도와 감상, 대한교육연합회.
 고석희(1985), “제주도 변신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경중(1995), “전래동화의 현대적 수용방안”,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호.
 김만석(1995), “전래동화의 이질성 문제와 해결방도”, 한국아동문학연구 제4호.
 김수업(1994), “아기장수 이야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영석(1993), “제주도 풍수 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영화(1994), “김유신설화의 변이와 수용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주연(1985), “한국 전래동화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현우(1983), “한국설화에 나타난 잉태 모티브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혜숙(1991),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소재영(1994),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 연구” 숭실어문 제 11집, 숭실대학교 숭실어문연구회.
 양효진(1994), “흑부리 할아버지 설화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윤자(1976), “현대동화에 미친 신화 및 전래동화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성진(1986), “한구전래동화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장영주(1992), “제주 전래동화의 제3세대 정신”, 제주문학 22집, 제주문인협회.
 _____(1995), “전래동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방숙(1985), “한국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에 나타난 남녀 주인공상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조상조(1983), “신화와 고소설에 나타난 재생의 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최인학(1996), “옛날 이야기와 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연구 제5호.

최희순(1973), “한국전래동화와 어린이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치관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허성애(199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현길언·김영화(1980),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정신 고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현승환(1992), “내 복에 산다」系 설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현용준·김영돈(1980), “한국전승동요에 드러난 청소년의 의식”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2집.

제민일보 “濟州島”, 1995년 11월 7일.

<Abstract>

A Study on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 Mainly about the Receptive Features of the Tales of Che-ju -

Park, Je-hy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eong-sook

This study began with the intention to clarify the receptive features that happen when the tales in Che-ju are handed down as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nd establish the object of the handing down. So, on the basis of the fairy tales given in the collec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I have analyzed the receptive features of the tales and compared the tale writers' consciousness about the native tales with the receptive consciousness of the children who had read the fairy tales and studied the features of the archetype tales that would be changed by the writers. The main content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main discourse are as follows.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can be defined as the tales with fixed structures that had been made up on the basis of the mind of a child among the tales that had been handed down in Che-ju, and we use the word 'Che-ju' with the intention to differentiate the fairy tales of Che-ju from the fairy tales of the other areas.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include both the tales that are borrowed and changed into a standard language and the tales of which writers maintain the main events but add something.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accept myths, legends and folk tales. The subject of the fairy tales is mostly the promotion of virtue and reproof of vice and it is instructive. Many fairy tales that accept legends clarify the origin of the creation or treat the frustration of eccentric persons. Also, they show the restraint of strength and the incitement of weakness or the confrontation of virtue and vice. And many characters are male adults. There are many tales that don't show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the places among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nd it seems that because the traditional fairy tales have the main structure of the events, the secondary backgrounds are omitted from the basic form.

The number of the fairy tales that are given in the collection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are one hundred sixty five and the writers choose instructive, interesting tales and accept them redundantly. Most tales accept legends and the rate that the tales accept folk tales is the least. The tales accept narrative propositions in order to improve instructive effects, and take up the listener's consciousness into the past by emphasizing 'once upon a time' repeatedly. Also, the addition and the omission of narrative propositions are done. Difficult vocabularies, contents with sexual problems, violent actions are reconstructed, and especially the omission of narrative propositions in myths is prominent. The tales with simple events are added to narrative propositions, so they help children to understand the tales. Moreover, because the writer create or accept the introduction which is like that of a creative fairy tale, a tale is beyond the type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The children who are fairy tale readers like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but they are poor at making a distinction and recognizing other genres. Also, because children contact traditional fairy tales by reading books, there is a problem in handing down the tales. But there is an advantage that many children can contact fairy tales not losing the archetype of the tales. Children's favorite fairy tales are imaginative or unhappy ending tales. This seems that because conflicts are not solved the tales create the phenomenon of identification.

Because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can develop children's ability to judge values and imagination, and because they can hand down the spirit of the ancestors in Che-ju, we should hand down the tales. So, writers must join the work of handing down the tales with right consciousness. The traditional fairy tales of Che-ju must hand down the proper contents to the children's emotion, and the writers must deal with their adaptation of the tales emphasizing on the efforts to achieve understandable sentences and the events that isn't beyond the archetype of the tales, and diminish the faults of the adaptation.

부 록

<부록 1> 제주 전래동화 수록 현황	89
<부록 2> 제주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	93
<부록 3> 제주 설화 분석	100
<부록 4> 질문지	127

<부록 1>

제주 전래동화 수록 현황

번호	전래동화	제주이 아기 1·2	구슬을 먹은아 이	힘센 종 막산이	알동네 웃동네 외	민족전 래동화 6·8· 9	제주도 전래동 화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오돌또 기
1	이 세상과 소별왕	○			○	○			
2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		○	○	○	○		○
3	삼승할망					○			
4	무당의 조상이야기	○				○			
5	사만이	○	○			○	○		○
6	자청비	○	○			○	○		○
7	가문장아기		○						
8	남선비		○			○			
9	허웅아기		○			○	○		
10	삼성신화(삼성혈)				○	○	○	○	○
11	세화본향당신					○			
12	호근본향당신					○			
13	사계큰물당신					○			
14	예촌, 보목본향당신					○			
15	상창 하르방당신					○			
16	중문본향당신					○			
17	광양당신					○			
18	영동할망					○			
19	보목리 조록이당				○	○	○		
20	할망당					○			
21	구슬할망					○			
22	팔용당과 팔사당	○							
23	아혼아홉골	○		○	○	○	○		
24	오백장군				○	○	○		
25	산방산 이야기	○				○			
26	비양도				○	○			
27	소죽은 못					○			
28	가릿뱅디				○		○		
29	절부암	○		○	○	○	○		
30	군산에 얹힌 이야기	○							
31	수월봉과 녹고물				○	○	○		
32	산방산과 방철스님				○	○			
33	외돌괴와 범섬				○	○			
34	이여도				○	○	○		
35	관덕정				○	○			
36	제주의 고려장				○	○	○		
37	늘우시 동산					○			
38	파랑도					○			
39	탐지					○			
40	백록담과 산방산				○		○		

번호	전래동화	제주도 이야기 1·2	구슬을 먹은 아이	힘센 증 막산이	알동네 웃동네 탐라가 탐나요	민족전 래동화 6·8·9	제주도 전래동 화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오돌또 기
41	신선의 놀이터 백록담					○			
42	유반석 무반석	○			○	○			○
43	섬섬과 뱀	○			○	○			
44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			○	○			
45	천제연과 효자	○			○	○			○
46	천지연	○			○	○			
47	열녀바위				○				
48	뱀을 죽여엿앤 서련	○			○	○	○		○
49	애기엿개 바위				○	○	○		
50	용궁올레와 칼선도리				○		○		
51	여우물				○				
52	용궁의 세 왕자와 매오름				○				
53	용머리 바위		○		○				
54	용두암					○			
55	지장샘				○				○
56	용연과 고대정				○	○			
57	방선문과 선비				○	○	○		
58	의리있는 개무덤(귀덕)	○							
59	신도 충견 무덤					○			
60	개무덤(성읍)				○			○	
61	여우잡은 개							○	
62	바당에서 건진 돌하르방							○	
63	변씨 입도 선묘					○			
64	소잡아 얻은 뿔자리	○		○					
65	장수무덤	○							○
66	아기엿개(군산)		○						
67	피이리가 한동리가 된까닭								○
68	여우혈				○	○			
69	은호골					○			
70	광정당과 이목사	○			○	○			
71	고종달이	○				○	○		○
72	감목관 김씨	○				○			○
73	배 큰 정서방	○				○			
74	고전적				○	○			
75	인색한 좌수	○							○
76	돌하르방					○			
77	고성홍효자						○		○
78	신촌 효부				○	○	○		
79	오찰방	○		○		○			
80	아기장수의 죽음	○				○			○
81	날개들은 박씨					○			
82	날개들은 아기의 죽음	○				○	○		

번호	전래동화	제주 도이야기 1·2	구슬 을 먹은 아이	힘센 종 막산이	알동네 웃동네 탐라가 탐나요	민족전 래동화 6·8· 9	제주도 전래동 화	힘센할 망과 피많은 하르방	오돌 또기
83	해적을 무찌른 장사 한씨	○							
84	김통정 장군	○				○		○	○
85	장수가 못된 장사	○							
86	김명헌 참판					○			
87	가령 양장의	○							
88	홍리 고대각	○				○			
89	설문대 할망	○	○	○	○	○	○		
90	설문대 하르방				○				
91	괴범천총				○		○		
92	이좌수의 눈	○				○			○
93	고성목과 산방덕	○							
94	산방덕이		○			○	○		○
95	거짓말 잘 하는 변인태	○			○	○			○
96	대정고을 장사들	○							○
97	힘센 종 막산이	○		○		○		○	
98	논하니	○							○
99	구슬을 먹는 아이		○			○			○
100	장사 구운문	○			○	○			
101	해녀와 신하					○			
102	문만호 며느리						○		
103	매고 할망						○		○
104	들음돌과 할망							○	
105	용왕을 욕한 강선장							○	
106	채뚝뚝이				○	○			
107	고부운					○			
108	열녀 김천덕					○			
109	계참 박규안					○			
110	힘센 남매	○		○					
111	산호 해녀				○				
112	문곡성과 명인들					○			○
113	양선달					○			○
114	기지가 뛰어난 현유학 훈장				○	○		○	
115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	○			
116	효자인 서자	○				○			
117	왕비의 병을 고친 좌조의				○				
118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				
119	고삭불 장사				○		○	○	
120	의녀 김만덕					○			
121	귀달린 뱀과 안판관					○			
122	힘센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	○
123	송씨댁 장사며느리								○
124	부래각							○	○

번호	전래동화	제주 동요 1·2	구슬 먹은 아이	힘센 종막 산이	알동네 웃따 가요	민족 동화 6·8·9	제주 도전 동화	힘센 망과 은하 방	오돌 또기
125	슬기로 나쁜풍속을 고치다								○
126	도적떼를 살린 고행방							○	○
127	의로운 당팃당장							○	
128	오돌또기					○			○
129	백중제					○			
130	얇은뱀이와 황금	○				○			
131	여우잡은 이순풍		○			○	○		
132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			○			
133	산신령의 말(왕지네)		○						
134	모관양반		○			○			
135	호랑이 잡은 열부	○							
136	장원급제한 어부의 아들	○		○		○			
137	여우잡은 소금장수	○		○					
138	나뭇꾼과 산삼	○		○		○			
139	용감한 병등이	○	○	○					
140	도깨비의 은방맹이	○	○	○		○			
141	까마귀 모르는 제사					○			
142	꼬부랑 나팔					○			
143	머리자른 효부					○			
144	은혜깊은 노루	○							
145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							
146	가짜 신랑 이야기	○				○			
147	정승과 정시					○			
148	저승할망					○			
149	무지개					○			
150	정월명절					○			
151	사라진 도깨비							○	
152	달아난 도깨비							○	
153	도깨비 형제					○			
154	생불 도깨비					○			
155	더벅머리 도깨비					○			
156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		○				
157	갑돌이의 일생					○			
158	저승에 다녀온 강씨				○				
159	1천년된 쥐와 3년된 수탉								○
160	도깨비불을 쫓은 거육대							○	
161	도깨비 무서워 하지 않는 소							○	
162	다시 살아난 아기							○	
163	참빗으로 변한 도깨비							○	
164	도깨비를 잘 모시면							○	
165	노루 때린 막대기							○	

< 부록 2 >

제주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

번호	전래동화	신 화	주 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신화	동화	신화	동화		
1	이 세상과 소별왕	천지개벽 (천지왕본풀이)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5 여 1	남 3 여 1	48	33		태초 지상과 천상 세계
2	한라산 신이 된 소국성	송당본풀이	생성유래 권선징악	남 6 여 4	남 4 여 4	62	32	소국성 오랑캐	한라산 송당
3	삼승함망	삼승함망 (삼승함망본풀이)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5 여 3	남 3 여 4	52	18	마마신 삼승함망	동해·서해 용궁 인간세상
4	무당의 조상 이야기	초공과 유씨부인 (조공본풀이)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15 여 7 삼천선비	남 7 여 3 많은 선비	130	81	삼형제 삼천선비	천하·지하세 계, 대정고을, 서울, 황금산 도단평
5	사만이	(스만이본풀이)	권선징악	남 6 여 2	남 5 여 2	31	17		주년국
6	자청비	자청비(세경본풀이)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8 여 5	남 3 여 2	142	59	자청비와 정수남	천상·천하 세계
7	가튼장 아기	가튼장아기 (삼공본풀이)	권선징악	남 5 여 5	남 5 여 5	59	22		
8	남선비	남선비(문선본풀이)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8 여 3	남 8 여 3	56	25	칠형제와 노닐저대	여산고을 오동나라
9	허웅아기	허웅아기	권선징악	남 2 여 1	남 2 여 1	16	16		
10	삼성신화 (삼성혈)	삼성신화	생성유래	남 3 여 3	남 3 여 3	12	23		
11	세화본향당신	세화본향당본풀이	"	남 3 여 2	남 3 여 2	5	13	백주또 삼천선비	세화리
12	호근본향당신	호근여드렛당본풀이	생성유래	남 4	남 4	4	5		호근리
13	사계큰물당신	사계큰물당본풀이	"	남 1	남 1	4	3		사계리
14	예촌·보목본 향당신	예촌·보목본향당신	"	남 3 여 2	남 4 여 1	7	7		보목리
15	상창 하르방당신	상창하르방당본풀이	"	남 13	남 11	9	9		상창리
16	중문본향당신	중문본향당신	"	남 3 여 4	남 3 여 4	11	14		중문리
17	광양당신	광양당신	권선징악 생성유래	남 5	남 3	11	5	고종달 광양당신	
18	영등함망	연등함망	"	여 1	여 1	5	15		비양도수원
19	보목리 조록이당	보목리 조록이당	"	남 9 여 1	남 9 여 1	14	18	9형제 섬의 노인	보목리
20	활망당		"	여 1	여 1		6		
21	구슬함망	구슬함망	충성·보은	남 2 여 1	남 2 여 1	18	14		신촌

번호	전래동화	전 설	주 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전설	동화	전설	동화		
22	판용당과 팔사당	판용당과팔사당	허욕을 금지	남 2	남 2	7	7		중문동
23	아혼아홉골	아혼아홉골	동물의 몰락	남 1	남 1	8	19		아혼아홉골
24	오백장군	오백장군	생성유래	남 500 여 1	남 500 여 1	13	16		한라산, 차귀도
25	산방산 이야기	산방산 금장지	명당 발복	남 1	남 1	8	8		산방산
26	비양도	비양도	생성유래	여 1	여 1	5	12		비양도
27	소죽은 못	쇠죽은 못	생성유래 원인·이유	남 1 여 1	남 1 여 1	11	7		하가리
28	가릿뱅디	가릿뱅디	생성유래	남 2	남 2	16	11		평대리와 입산봉
29	절부암	절부암	열녀	남 2 여 1	남 2 여 1	10	14		용수리, 차귀도
30	군산에 얹힌 이 이야기	군산	생성유래	남 2 제자들	남 2 제자들	20	12		창천리
31	수월봉과 녹고 물	수월봉과 녹고 물	효도	남 2 여 2	남 2 여 2	15	15		고산리 수월봉
32	산방산과 방철스님	산방산과 방철 스님	정신일도 하사불성	남 2 여 1	남 2 여 1	19	22		산방산, 중국, 금 강산
33	외돌괴와 범섬	외돌괴와 범섬	생성유래		몽고군 고려군		27	몽고군 고려군	제주도내 와 범섬, 외 돌괴
34	이여도	이여도	생성유래				13		
35	관덕정	관덕정	생성유래	남 2 목수들	남 2 목수들	11	11		관덕정
36	채주의 고려장	기건목사	명판관의 업적	남 3	남 3	15	17		새중, 한라 산 백록 담
37	늑우시 동산	장영주 채록	생성유래		남 1 여 1		8		중국, 늑우시동 산 당파선교지, 당률,대비인산
38	파랑도	장영주 채록	생성유래·이유				9		파랑도
39	탐지	장영주채록	허욕금지		남 2 마을사람		6		
40	백록담과 산방산	백록담· 산방산	생성유래·원인· 이유	남 2 신선 2	남 2 신선 2	4	9		백록담 산방산
41	신선이 놀이터 백록담	백록담	허욕금지	남 2 여 1	남 2	12	15		백록담
42	유반석 무반석	유반석 무반석	문·무반의 우열 가름	남 1	남 1	19	17	동동사람 서동사람	화순리
43	섣섬과 뱀	섣섬과 뱀	동물의 몰락	남 1	남 1	14	9		섣섬
44	진나라 서벌과 정방폭포	정방폭포와 서벌 과차	생성유래·원인· 이유	남 2 남녀 각 500명	남 2 남녀 각 500명	17	17		중국 정방폭포

번호	전 래 동 화	전 설	주 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전설	동화	전설	동화		
45	천제연과 효자	천제연과 효자	지성감천, 효도	남 2 여 1	남 2 여 1	28	12		천제연
46	천지연	천지연	웅정	남 1 여 1	남 1 여 1	27	15	순천 명문	천지연 법환리
47	열녀바위	열녀바위	생성유래	남 1 여 1	남 1 여 1	11	14		호근리
48	김녕뱀을 죽인 서련	김녕사굴	명판관의 업적	남 1 여 1	남 1 여 1	10	15	목사 뱀	김녕리
49	아기업개 바위	가파도 아기업개 바위	생성유래	여 3	여 3	9	12		가파도
50	용궁울래와 칼선도리	용궁울래와 칼선도 리	효도	남 1 여 2	남 1 여 2	17	14		신평리
51	여우물	여우물	동물의 물락	남 1 여 1	남 1 여 1	7	15	관원 여우	서귀포와 환리
52	용궁 새 왕자 와 매표	매표	생성유래 · 이유	남 4 거북이	남 4 거북이	17	17		표선리
53	용두암	용두암	생성유래 · 이유	남 2	남 2	7	19	한라산	용두암
54	용머리 바위	용머리	생성유래 · 이유	남 1	남 1	10	11		용두암
55	지장생	지장생	생성유래 · 이유	남 2	남 2	15	28	물신 고종달	홍로
56	용연과 고대정	용소와 기우제	지성이면 감천	남 3	남 3	10	21		용연
57	방선문과 선비	방선문	허욕금지	남 1 선녀들	남 1 선녀들	7	13		방선문
58	의리있는 개무덤	명당과 명구의 무 덤	명당발복	남 1	남 1	4	9		귀덕리
59	신도충견의 무덤	신도 충견 무덤	충성심	남 2	남 2	15	13		신도리
60	개무덤(성읍)	개무덤	충성심	남 1	남 1	19	14		성읍리
61	여우잡은 개	이청장물	충성심	남 1	남 1	11	4	개, 여우	
62	바당에서 건진 돌하르방	서문하르방	생성유래	남 1	남 1	5	5		김녕리
63	변씨 입도선묘	변택입도선묘	명당 발복	남 2	남 2	7	10		노형동
64	소잡아 얻은 뿔자리	소잡아 얻은 뿔자 리	명당 발복	남 3 여 1	남 3 여 1	12	12		
65	장수무덤	뜻을 못표 죽은 날개달린 아기장수	생성유래	남 2 여 1	남 2 여 1	9	10		태흥리
66	아기업개	강정훈채록	생성유래		남 3 여 2		12		옛날 군산
67	괴이리가 한동 리가 된 까닭	괴이리	생성유래	남 2	남 2	11	4		한동리
68	여우혈	진거사와 여우혈	명당 발복		남 5 여 1		12		예월읍 금성리

번호	전래동화	전설	주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전설	동화	전설	동화		
69	은호골	장영주채록	명당발복		남 3 후손들		9		곽지리
70	광정당과 이목사	광정당 말무덤	미신타파	남 2	남 2	12	23	이목사 광정당 넙	
71	고종달이	고종달	단백	남 3 여 1	남 3 여 1	9	22		종달리, 화북리
72	감목관 김씨	감목관 김덕	충성심	남 3 여 1	남 4 여 1	30	14		의거리
73	배 큰 정서방	말머리	장수의 좌절	남 3 여 1	남 3 여 1	9	28		다끄내
74	고전적	고전적	멸시금지	남 3	남 3	17	15		가물계
75	인색한 죄수	가시오름 강별장	허욕금지	남 2	남 2	14	18	강당장 스님	가시오름
76	돌하르방	돌함으방 (龜仲石)	생성 유래		남 2	28	17		영조 30년
77	고성 홍효자	고성 홍효자	효도	남 3 여 1	남 3 여 1	21	21		현종, 고성, 도랑 쉬
78	신촌 효부	신촌김대효부	효도	남 1 여 2	남 1 여 2	11	11		신촌
79	오찰방	오찰방	장수의 좌절	남 6 여 2	남 6 여 1	27	34	오찰방 대 신	대정고을
80	아기장수의 죽음	배락구룡	장수의 좌절	남 2 여 1	남 2 여 1	11	11		다호동
81	날개들은 박씨	날개돋친 밀양박 씨	장수의 좌절	남 2 여 3	남 2 여 1	10	13		외도동
82	날개들은 아기의 죽음	날개달린 아기장수	장수의 좌절 통수지리	남 3 여 1	남 3 여 1	14	20		강정동
83	해적율 무찌른 장 사한씨	한연한배임재	장수의 업적	남 3 여 1	남 3 여 1	25	30	한연, 수적 청년	김녕
84	김통정 장군	김통정장군	장수의 좌절	남 2 여 1	남 2 여 1	29	27		고려 고성리
85	장수가 못된 장수	홍업선	장수의 좌절	남 2 여 1	남 2 여 1	10	10		신암리
86	김명현 참판	김명현 참판	자성이면 감천	남 2	남 2	9	9		중문
87	가령 양장의	가령양장의	은혜배품	남 3	남 3	27	21		가령
88	홍리 고대각	홍리고대각	장수의 업적	남 2 여 1	남 2	26	10		홍리
89	설문대 할망	설문대할망	기인의 좌절	여 1 마을사 람	여 1 마을사람	22	18		신촌
90	설문대 하르방	설문대하르방	기인의 행적	남 1 여 1	남 1 여 1	5	30		섬지코지
91	괴범천총	괴범천총	기인의 행적	남 3 여 1	남 3 여 1	28	13		400년전 한동 굴머 뿔

번호	전래동화	전설	주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전설	동화	전설	동화		
92	이좌수의 눈	무남발 이좌수	기인의 행적	남 4 여 1	남 4 여 1	38	15	이좌수 여우	속중 중문리
93	고성목과 산방덕	고성목과 산방덕	허욕금지	남 2 여 1	남 2 여 1	11	16		화순리
94	산방덕이	산방덕이	생성유래	남 2 여 1	남 2 여 1	8	17		산방산
95	거짓말 참하는 변인태	서귀진 변인태	멸시금지	남 2 여 1	남 2	17	14		서귀진, 제주 시(성안)
96	대정고을 장사들	달밭 정운디, 새샘이와 정운디	장수의 좌절	남 3	남 3	40	45	새샘이 정운디	대정고을
97	힘센 종 막산이	막산이	장수의 좌절	남 3	남 3	23	33		창천리
98	논하니	논하니	장수의 업적	남 2 여 1	남 2 여 1	14	10		의귀리
99	구슬을 먹는 아이	월계 진좌수	명의를 업적	남 5 여 3	남 4 여 2	21	17		명월리
100	장사 구운문	장사 구운문	장사의 업적	남 3	남 3	18	12		화순리
101	해녀와 신하	해녀의 시조	생성유래	남 3 여 1	남 3 여 1	17	13		
102	문만호 며느리	문만호 며느리	장사의 업적	남 1 여 1	남 1 여 1	11	11	며느리 청년들	새화리
103	매고 할망	매고할망	웅장	남 2 여 1	남 2 여 1	28	20	매고와 남편	광령리
104	들음들과 할망	심들강씨 할망	멸시금지	여 1 청년들	여 1 청년들	5	5	할망 청년들	
105	용왕을 욕한 강선장	심술곳은 강선장	멸시금지	남 1	남 1	4	7		
106	채뚝뚝이	채뚝뚝이	기지	남 2	남 2	18	13	채뚝뚝 이, 상인	구한말 대정현
107	고부윤	고부윤	기지	남 3	남 3	11	11		정의
108	열녀 김천덕	열녀 김천덕	열부	남 4 여 1	남 4 여 1	12	12	김천덕 선비	
109	계참 박규안	계참 박규안	재능인의 좌절	남 2	남 2	7	7		
110	힘센 남매	시흥리 현씨 남매	형제 우애	남 2 여 1	남 2 여 1	14	18	누이 동생	시흥리
111	산호 해녀	산호 해녀	보은	여 2	여 2	10	38		모슬포
112	문곡성과 명인들	문곡성과 명인들	기인의 업적	남 4	남 4	20	11		전남 곡성
113	양선달	양판관	정신일도 하사불 성	남 3 여 2	남 3 여 2	34	20		오라리
114	기지가 뛰어난 현유 학 훈장	현유학	기지	남 2	남 2	27	10		효돈
115	힘과 기예가 뛰어 난 강씨	대포리 강씨	멸시금지	남 1 청년들	남 1 청년들	23	10	강씨 청년들	대포리

번호	전 래 동 화	전 설 민 담	주 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전설 민담	동화	전설 민담	동화		
116	효자인 서자	홍로 오서자	지성이면 감천 효도	남 2 친척	남 2 친척	11	19		홍로, 효돈
117	왕비의 병을 고친 좌조의	명의 좌조의	명의의 업적	남 2 여 1	남 2 여 1	11	17		종달리, 한경면
118	한순이 달순이 신선담	한순이 달순이 신선 담	보은	남 2 여 2	남 2 여 2	21	17		동북리
119	고삭불 장사	고삭불 장사	장사의 업적	남 2 여 4	남 2 여 4	16	16		상명리
120	의녀 김만덕	만덕합방	보은	남 1 여 1	남 3 여 1	4	11		제주시 한양
121	귀달린 뱀과 안판관	안판관	허욕금지	남 6	남 6	11	11		선흘리, 남읍 리, 가시리
122	힘센 할망과 피많은 하르방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 방	기지	남 1 여 1	남 1 여 1	13	13	며느리 청년들	신평리
123	송씨대 장사며느리	넋기 송씨대 며느리	멸시금지	남 2 여 1	남 2 여 1	12	7		하천리
124	부래각	심돌 부래각	멸시금지	남 2	남 3	17	14		시흥리
125	슬기로 나쁜 풍속을 고치다	난미 김씨	기지	남 2	남 2	10	8		난산리
126	도적떼를 살린 고 형방	어진 고평방	보은	남 2	남 2	21			성의현
127	의로운 당팃당장	당팃당장	장사의 업적	남 2	남 2	12	12		
128	오돌또기	오돌또기	이별의 한	남 2 여 1	남 2 여 1	25	9		
129	백중제	백중제	보은	남 2	남 2	10	10	백중 우항상제	차컷뱅뒤
130	얇은뱅이와 황금	눈봉사와 얇은뱅이	허욕금지	남 3	남 3	14	10		
131	여우잡은 이순풍	이순풍과 여우	동물의 몰락	남 2	남 2	24	17	이순풍 여우	
132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형제의 우애	남 2 여 2	남 2 여 2	33	20		
133	산신령의 말	왕지네	짐승의 몰락과 형제의 우애		남 4 여 1	17	17	형과 아우	
134	모관양반	모관양반과 사냥꾼	해학적 기지	남 3 여 4	남 5 여 7	25	18		모관
135	호랑이 잡은 열부	용감한 열부	열부	남 1 여 1	남 1 여 1	11	11	열부 호랑이	
136	장원급제한 어부의 아들	보재기	고난극복	남 4 여 1 선비들	남 4 여 3 선비들	19	25	어부 아들 선비들	
137	여우잡은 소금장수	여우잡은 소금장수	징벌	남 3	남 3	26	26	여우 총각	
138	나뭇꾼과 산삼	나뭇꾼과 산삼	용정	남 4 여 2	남 4 여 2	27	27	나뭇꾼 패거리	
139	용감한 병둥이	용감한 병둥이	정신일도 하사불 성	남 2 여 2	남 2 여 2	22	22	괴물 병둥이	

번호	전 래 농 화	민 담	주 제	인물의 수		화소의 수		대결	배경
				민담	동화	민담	동화		
140	도깨비의 은방맹이	은덩두렁 은방맹이	허욕금지	남 2 여 1	남 2 여 1	31	32	형과 도깨비	
141	까마귀 모르는 제사	까마귀 모른 제사	열부	남 2 여 2	남 2 여 2	18	18		
142	꼬부랑 나팔	꼬부랑나팔	정신일도 하사 불성	남 1 여 1	남 1 여 1	18	18	노인 호랑이	
143	머리자른 효부	머리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	효도	남 2 여 1	남 2 여 1	18	14		대정골
144	은혜값은 노루	현길언 채록	보은		남 1	9	9		
145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현길언 채록	살생금지		남 2	15	15		
146	가짜 신랑 이야기	현길언채록	허욕금지		남 3 여 1	20	20		
147	정승과 정시	정승과 정시	명당 발복	남 2 여 1	남 2 여 1	10	10		
148	저승합방	장영주채록	권선징악		남 3 여 4	38	16		
149	무지개	*	생성유래		남 8	22	22		
150	정월명절	*	새시풍습			13	13		
151	사라진 도깨비	*	허욕금지		남 3	4	7		
152	달아난 도깨비	산도깨비	도깨비 장난	남 1	남 1	10	6		
153	도깨비 형제	*	도깨비의 장난		남 2	10	10		
154	생불도깨비	산도깨비	허욕금지	남 1	남 1	13	7		
155	더벅머리도깨비	장영주채록	소원성취		남 1	34	34		
156	이상한 나라의 생명수	독일국 정명수	권선징악, 효도	남 2 여 2	남 2 여 2	32	28	형과 동생	
157	갑돌이의 일생	장영주 채록	권선징악		남 1 여 1	19	19		목적원
158	저승에 다녀온 강씨	저승에 다녀온 강씨	운명	남 4	남 5 여 1	7	18		
159	1천년 된 쥐와 3년된 수탉	천년 묵은 쥐와 삼년 된 수탉	권선징악	남 3 여 2		8	8	부자, 쥐	
160	도깨비불을 쫓은 거육대		생성유래		남 1	6	6		
161	도깨비불을 무시워하지 않는 소		도깨비 장난		남 1	4	4		
162	다시 살아난 아기		도깨비 장난		남 2 여 2	4	4		
163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		생성유래		여 1	5	5		
164	도깨비불 잘 모시면		신앙		남 1	5	5		
165	노루때린 막대기	노루 때린 막대기	해학	남 2	남 2	8	8		

<부록 3>

제주 설화 분석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	천지개벽	1. 도수문장이 하늘과 땅을 갈랐다. 2. 산수 일월은 없으나 별이 생겼다. 3.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혼인했는데, 수명장자에게 푸대접받아 저주했다. 4. 이마와 뒷머리에 눈이 두 개인 청의동자가 태어났다. 5. 도수문장이 눈 두 개를 때어내자 일월이 두 개씩 생겨 백성들이 힘들어 했다. 6. 천지왕이 소별왕과 대별왕을 낳았다. 7. 대별왕은 해를, 소별왕은 달을 쏘아 하나로 만들었다. 8. 귀신은 어두운 데서 살게 했다.	권선징악 생성유래	신화	도수분장, 청의동자,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남 5 여 1		48	해, 달, 별이 생김, 팔벌레, 솔개 생김, 박줄을 타고 하늘에 오름, 송파가루를 뿌려 짐승들이 말 못하게 됨	태초 현실 세계와 천상 세계
2	소천국과 백주	1. 한라산에 소천국이 살았다. 2. 상자에서 나온 백주와 혼인하여 송당에 정착해 17남매를 낳았다. 3. 백주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었다. 4. 점심을 잃고 소를 잡아먹었다. 5. 이혼한 후 소국성을 낳았다. 6. 버릇없는 소국성을 무죄상자에 넣었다. 7. 용왕의 셋째딸과 혼인하였다. 8. 강남천자국에 달아 살다가 오랑캐를 물리치고 고향으로 가겠다 하였다. 9. 귀향하자 소천국은 죽고, 백주는 은신하고, 소국성은 한라산 산신이 되었다.	생성유래	신화	소천국, 백주, 소국성, 용왕, 셋째공주, 천자국왕	남 6 여 4	소국성과 오랑캐	33	백주또가 상자에서 나옴, 용궁에 도착하여 용왕위 셋째딸과 결혼함	한라산
3	삼승할망	1. 동해용왕부인이 관음사에 빌어 딸을 낳았다. 2. 버릇이 없어 석함에 넣어 띄워보냈다. 3. 임박사에게 발견되어 혼인하고 잉태했으나 난산으로 출산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4. 아내를 잃게된 임박사가 빌자 옥황상제가 명진국 따님아기를 불렀다. 5. 명진국 따님아기는 인간세상에서 동해용왕의 따님을 만나 다두었다. 6.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꽃씨를 심었는데,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 가지가 번성해 삼승할망이 되었다. 7. 저승할망이 된 동해용왕의 딸이 심술을 부려 화의를 하였다. 8. 생복왕이 된 명진국따님 아기는 많은 아기를 잉태시켰다. 9. 대병상 마마신이 심술을 부려 화가 났다. 10. 마마신의 아내 서신국 마누라가 출산 못해 애를 먹자 마마신이 삼승할망에게 빌었다. 11. 마마신이 빌자 해산시켜 주었다.	권선징악 생성유래	신화	동해용왕, 용왕부인, 동해용왕따님아기, 명진국따님아기, 임박사, 옥황상제, 마마신, 서신국마누라	남 5 여 3	마마신과 삼승할망	52	석함이 아래와 위 삼년다님.	동해, 서해, 천상, 인간, 세상
		1. 초공은 석가모니의 손자이고, 천하 임정국, 지하 집진국의 아들이다. 2. 어머니는 조지맹왕 아기씨이고, 본맹두와 신맹두, 삼맹두의 아버지이다. 3. 부부인, 임정국 대감과 집진국 부인은 자식이 없어 근심이 많았다. 4. 거지부부가 아기를 놓고 양천대소하는 것을 보고 상심하여 앓아 누웠다. 5. 권재삼문을 받으러 온 스님이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6. 100일 불공을 드렸는데, 보시가 한 근이 모자라 딸을 낳았다.								

번호	세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4	초공과 유씨부인	7. 아기씨가 15세 되는 해에 옥황상제의 분부로 집을 떠나게 된 부부는 딸을 자물쇠로 가두고 종에게 맡기고 갔다. 8. 도단 땅에서 삼천 선비가 공부하는데 아기씨에게 권재삼문 받아오기 내기를 했다. 9. 주자선생이 중의 복장으로 권재삼문을 받으러 가서 아기씨의 명을 길게 해주겠다고 하며, 주술로 자물쇠를 열었다. 10. 주자선생이 손으로 머리를 쓸자 아기씨는 임신을 하고, 고깔과 장삼을 끊어두었다. 11. 아기씨의 임신을 눈치챈 종이 편지를 보내자 부부가 돌아와 몸이 이상하다고 물으니 핍제를 대었다. 12. 어머니가 보니 세 쌍둥이가 배 속에 있어 계집종과 암소와 함께 내쫓았다. 13. 칼선다리, 애선다리, 등진다리를 건너 대정고을에 왔다. 14. 바닷가에 당도 울고 있다가 강아지의 인도로 거북을 타고 물을 건넜다. 15. 주자선생을 만났으나 기뻐하지 않으며 버를 까라고 하니 참새들이 도와주었다. 16. 삼형제는 겨드랑이와 가슴으로 탄생하여 자랐는데, 호래자식이라 놀림을 받아 아버지를 찾았다. 17. 여덟살이 되자 산천서당에 가서 심부름을 하며 공부하였는데, 재에 글을 쓰며 공부하여 갯부기삼형제라는 말을 들었다. 18. 열 다섯에 과거보러 가는 선비를 따라 서울로 갔다. 19. 선비들은 삼형제를 때어놓기 위해 배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가 버렸다. 20. 배좌수는 배나무에 청룡·황룡이 어우러진 꿈을 꾸고 삼형제에게 서울로 갈 돈 열냥을 주었다. 21. 삼형제는 팔장수의 도움으로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하였으나 삼천선비의 흉계로 고기를 먹지 않아 낙방되었다. 22. 환소기 시험에 다시 합격, 고향으로 향했다. 23. 삼천선비의 꼬임에 넘어간 종은 아기씨를 가두고 죽었다고 울었다. 24. 삼형제는 울다가 모친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외조부께 도움을 청했다. 25. 도단땅으로 부친을 찾아가니 부친은 반가이 맞으며 무당이 되라고 하였다. 26. 시왕맞이 굿을 잘 먹은 부친은 모친이 삼천제석궁에 갇혀있음을 알려주었다. 27. 너사매아들과 사형제가 되고 오동나무와 쇠가죽으로 북·장고를 만들어 두드려 모친이 풀려나고 너사매도령은 악기의 신이 되었다. 28. 삼형제는 동해바다의 쇠철이를 데려다 천문, 상잔, 칼을 만들어 삼천선비에게 원수갚고 무당이 되었다. 29. 유성승 따님아기가 육관대사에게서 받은 엽전을 노릇돌 밑에 감추었다가 신병으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 엽전을 찾아 병이 나았다. 30. 자부장자 딸아기가 죽자 유씨부인이 굿을 하여 살려주고 심방선생이 되었다.	권선 징악 생성 유래	신화	초공, 석가 여래, 석가 모니, 임정 국, 짐진 국, 조지 맹왕 아기 씨, 본맹 두, 신맹 두, 삼맹 두, 거지 부부, 스님, 아기 씨, 종, 주자 선생, 세쌍 둥이, 서당 선생, 배좌 수, 팔죽 장수, 너사 매아 들, 유정 승 따님 아기, 자부 장자 딸아 기	남 15 여 7	삼형 제와 삼천 선비	130	머리물 세 번 쏟았는 데 세쌍 둥이를 임신. 에 비추 어보고 새 쌍둥 이의 임 신을 알 다. 청룡 과 이 어 러짐.	옛날 옛적 천하 세계, 지하 세계, 대정 고을, 서술, 황금 산도단 땅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5	사만이	1. 소사만이라는 남자가 살았는데 하루는 아내가 머리를 잘라 쌀을 사오라고 하였다. 2. 남편은 머리를 팔아 충을 샀다. 3. 사냥을 간 사만이는 백관을 만나 고이 모시자 짐승이 잘 잡혀 부자가 됐다. 4. 꿈에 저승차사가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백발노인이 시키는 대로 저승차사를 대접한다. 5. 대접을 받은 저승차사는 삼십년을 삼천년으로 고쳐 버려 삼천년을 살았다.	권선징악	사만아, 아내, 백발노인, 저승차사, 염라대왕	남 6 여 1		31		옛날 옛적 주년 국
6	자청비	1. 김진국 대감이 자식이 없어 애통 태운다. 2. 동개남 은중절에서 불공을 들여 자청비가 태어났다. 3. 문도령이 글공부를 가다가 빨래하는 자청비에게 물을 청한다. 4. 남장한 자청비는 문도령을 따라가 함께 공부하나 피를 내어 여자인 것을 들리지 않는다. 5. 결혼하기 위해 돌아가는 문도령에게 편지를 써서 여자임을 알린다. 6. 문도령과 성 동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7. 정수남에게 여러 번 성적으로 회통을 당하고 유혹당한 후 정수남을 죽인다. 8. 하인을 죽였다고 박대를 당한 자청비는 문도령을 찾아나선다. 9. 부영이로 변한 정수남을 잡아 꽃감관의 셋째 딸의 사위가 된다. 10. 서천꽃밭에서 도환생꽃을 가지고 정수남을 살렸으나 부모가 다시 내쫓아, 비단을 짜는 주모함망의 수양 딸이 되었다. 11. 자청비를 만나러 왔던 문도령은 자청비가 바늘로 손을 찌르자 화를 내며 가버렸다. 12. 선녀를 도와주고 문도령을 만나 불 위를 걷는 시험을 통과하여 결혼하고, 약혼했던 서수왕따님은 새의 몸으로 환생하였다. 13. 문도령을 서천꽃밭 막내딸에게 보내자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아 편지를 보내 돌아오게 하였다. 14.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푸대접하려는 계락을 알고 문도령을 죽인다. 15. 자청비는 도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리고 멸망꽃으로 적군을 무찌른다. 16. 문도령과 자청비는 오곡씨앗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신이 되고, 정수남은 축산신이 되었다.	권선징악 신화 생성유래	김진국대감, 자지, 국부인, 소사, 자청비, 도령, 수남, 감관, 내딸, 모할머니, 옥황궁녀, 느진덕정, 하님, 서수왕따님, 천자,	남 8 여 5	자청비와 정수남	142	서수왕따님이 새로 변한, 도환생꽃으로 문도령을 살리고, 멸망꽃으로 적군을 무찌름, 빼살아나는 꽃, 살살아나는 꽃, 도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림, 농경신과 축산신이 됨	
7	가문장아기 · 마통이	1. 가난한 부부가 딸 삼형제를 데리고 살았다. 2. 가문장아기는 배꼽밑의 선 덕택으로 산다고 대답하여 쫓겨난다. 3. 부모는 봉사가 되고, 거짓말을 한 언니들은 지네와 버섯이 된다. 4. 가문장아기는 마통이네 집에서 하루밤을 쉬어가게 되었는데, 형들은 무관심했으나 셋째 마통이가 가문장아기를 반겨주고 결혼했다. 5. 가문장아기는 마케던 구덩이에서 금덩이를 캐어 팔아오도록하여 부자가 된다. 6.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맹인잔치를 열어 부모를 만나 효도를 하며 살았다.	권선징악	가난한 부부, 은장아기, 못장아기, 감은장장아기, 마통이	남 4 여 4		59	가문장아기의 저 부모는 봉사가, 언니들은 지네와 마구덩이에서 금발견	옛날 옛적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8	남선비	1. 남선비가 곡식장사하러 오동나라에 갔다. 2. 노일제대귀일의 딸 씨에 넘어가 거지가 되어 얻어 먹는 신세가 되었다. 3. 남편을 찾아나선 여산부인은 새끼는 아이의 도움으로 남선비를 찾았다. 4. 노일제대는 여산부인을 죽이고 변장하여 남선비를 속였다. 5. 남선비가 돌아오자 똑똑한 막내 녹디생인이 어머니를 의심했다. 6. 아들들을 죽이려는 귀일의 딸은 배가 아프다며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낫겠다고하여 남선비는 칼을 갈았다. 7. 혈통과 피를 내어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드니 아버지는 정살귀신이 되고, 어머니는 변소귀신이 되었다. 8. 서천꽃밭에 가서 각종 꽃을 가져다 어머니를 살렸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신화	남선비, 여산부인, 노일제대귀의 딸, 녹디생인, 여섯형제	남 8 여 2	칠형제와 노일제대	56	각종꽃을 가져다 어머니를 살린다. 아버지는 정살귀신, 제모는 죽간신이 됨	옛날옛적 여산고을 오동나라
9	허웅아기	1. 허웅아기는 나이는 어렸으나 살림살이를 잘하여 저승왕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2. 허웅아기가 사정하여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게 되었다. 3. 이웃집 할머니의 꼬임에 빠져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4. 저승차사가 와 허웅아기를 잡아갔기 때문에 대신 이승으로 올 수 없었다.	권선징악	신화	허웅아기, 남편, 아기, 이웃집 할머니, 저승차사	남 2 여 3		19	낮에는 저승에서 살고 밤에는 이승에서 살기	
10	삼성혈	1. 고·양·부씨 삼인이 솟아나왔다. 2. 환을 쏘아 삼 곳을 정했다. 3. 동쪽 해안에 떠오른 상자에서 나온 세 공주와 결혼하였다. 4. 공주가 가지고 온 씨앗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조	전설	고·양·부, 세 공주	남 4 여 3		7	땅속에서 세 신인이 솟아남	옛날 삼성혈
11	세화본향낭	1. 백주또는 서울 남산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부모의 눈밖에 나서 용왕천자국 외삼촌한테 수청부인으로 들어갔다. 2. 백주또가 일곱삼촌에게서 일곱 부술 주머니를 얻고 돌아와 사죄를 해도 다시 쫓겨났다. 3. 느린덕정하님을 데리고 집나와 한라산에 사는 외할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4. 삼천선비가 노는 것을 보고 악기를 빌려오라고 보냈더니 삼천선비가 욕을 했다. 5. 백주또가 부술주머니에 거 청가무를 꺼내 뿌리자 삼천선비가 죽어갔다. 6. 유식한 선비가 빌어 부술을 거두니 삼천 선비가 살아났다. 7. 영암에서 배를 타고 조천에서 내려 정중부인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8. 한라산으로 가다가 허선장의 딸을 만나 대접을 받았다. 9. 외할아버지를 찾아 한라산을 돌아다니다 비자남곳에서 포수를 만났다. 10. 포수의 꼬임에 넘어간 백주또는 팔목을 차르고, 외할아버지 천자남을 찾아갔다. 11. 천자남은 피뎌세를 맡고, 화를 내며 간마리 자손과 세화리 자손이 어울리지 말도록 하였다. 12. 백주또는 일곱 주머니로 풍운조화를 주도록하여 재를 받아 먹었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당신화	임정국, 백주또, 외삼촌, 느린덕정하님, 정중부인, 허선장 따님아기, 포수, 천자남	남 4 여 3	백주또와 삼천선비	27	청가무를 부리니 삼천선비가 죽어감, 부술을 거두니 삼천 선비가 살아남. 일곱주머니로 풍운조화를 일으켰다.	서울 남산, 제주도, 영암, 한라산, 개미목, 백록담, 비자남곳, 간마리, 새화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 수	환상	배경
12	호근분향당	1. 한라산에서 태어나 애비국화로산또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스스로 솟아났다. 2. 날이 밝자 한라산을 내려오다 고공산에서 세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3. 경치가 좋은 호근농 당신이 되었다.	생성 유래	신화	애비국화로산또	남 4		3		한라산 시오름 고공산 호근리
13	사계큰물당신	1. 한라산에서 저절로 솟아났다. 2. 사슴을 잡아먹고 사계리 큰물에 좌정하였다.	생성 유래	신화	큰물당신	남 1		2		사계리 큰물
14	예춘보목당신	1. 백록담에서 솟아난 보로뭇님이 신증부인과 결혼하여 살 곳을 찾아 떠났다. 2. 칠오름에 도착해 보니 세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3. 바둑대기에서 이긴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는 예춘당신이 되었다. 4. 바둑에서 진 부부는 아랫마을 보목리의 당신인데 화살을 잘 쏘았다.	생성 유래	신화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 보로뭇님부부	남 4 여 1		4		예춘 보목
15	상창하르방당신	1.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아홉 형제가 태어나 각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 2. 긴 이름을 가진 여덟째 동생은 서쪽 산등성이를 타고 내렸다. 3. 동광리 당신을 만나 환초기 경계에서 이겼다. 4. 당동산에 좌정하여 뱀으로 변신하였다. 5. 사냥을 가던 새 포수가 뱀을 만나 모셔서 당신이 되었다.	생성 유래	신화	아홉형제, 황서국서, 유포수, 강포수, 김포수	남 13		6		한라산, 수산리, 예춘, 애월 수산, 예춘, 중문동, 하모동, 일파리, 종달리, 동광리,
16	중문본향당신	1. 한라산 서쪽에서 태어난 신들의 다섯째로 진궁부인을 아내로 맞았다. 2. 아들이 태어났는데, 버릇이 없어 돌합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 3. 동해용왕이 발견하여 막내딸이 돌합 뚜껑을 열었다. 4. 동해용왕이 막내사위가 되었다. 5. 사위를 대접하다 보니 창고가 비어 왕은 딸과 사위를 내보냈다. 6. 부모를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여 같이 살다가 며느리를 위해 분가를 해주었는데, 중문동에 불목당을 만들어 주었다.	생성 유래	신화	다섯째 아들, 진궁부인, 동해용왕, 네 딸	남 2 여 5	고종 탕 광양 당신	11		돌합 이 물에 뜨다. 용왕 의 사위 가 되자
17	광양당신	1. 송나라 왕이 지리서를 보고 물혈을 끓고 오라고 하였다. 2. 고종달은 종달리 이름을 듣고 화가 나서 물징거의 혈을 끓였다. 3. 화북농에서 농부가 노인이 시킨대로 마차 아래에다 불을 감추었다. 4. 개를 데리고 온 고종달은 행기물을 찾지 못하고 지리서를 닦으며 가버렸다. 5. 광양당신이 매로 변하여 고종달이 탄 배를 부서뜨려 고종달은 죽었다. 6. 고려 조정에서 공을 알고 광양왕을 작위를 봉했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신화	송나라왕, 고종달, 노인	남 3		13	매로 변한 광양 당신 이 배를 부수 다.	종달리, 화북농, 광양, 차귀도

번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 수	환상	배경
18	영등할망	1. 포목장사가 제주도 들어오다 풍파를 만나 죽어 영등할망이 되었다. 2. 영등할망이 미역씨를 골고루 뿌려주면 대풍을 만난다. 3. 지금도 음력 2월 15일에는 배를 만들어 영등할망을 띄워보낸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신화	포목장사	여 1		5		비양도, 협재, 명월, 고내, 애월
19	보목리 조륙이낭	1. 아홉형제가 고기잡으러 다녔는데, 외눈백이 섬에 표류하였다. 2. 늙은 노파에게 사정하여 저녁을 먹었는데, 막내는 맛이 이상하여 먹지 않았다. 3. 사람을 잡는 부부라는 걸 알고 벽을 뚫고 도망을 갔다. 4.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도망을 갈 수 있었으나 말을 듣지 않고 돌아보았다가 섬으로 다시 돌아갔다. 5. 노인의 도움으로 보목리로 돌아온 형제들은 당신으로 모셨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신화	아홉형제, 부부, 노인	남 11 여 1	9형제와 섬의 노인	15	말을 하자 배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보목리
20	할망당	1. 애월면 상가리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당에 갈 제 물을 할아버지가 먹어버렸다. 2. 할머니의 험담대로 할아버지는 종기가 나자 당에 가서 자결해 버렸다. 3. 부인이 따라 죽으니 할망당으로 모셨다.	권선징악 생성 유래	신화	부부	남 2 여 1		6		애월읍 고내봉, 상가리
21	구슬할망	1. 신촌에 사는 김사공이 진상바치러 서울에 갔다가 울고 있는 허정승 딸을 만났다. 2. 제주도로 내려온 허정승 따님은 해녀가 되어 결혼을 하였다. 3. 진주를 임금님께 드리자 칠색 구슬을 하사해 주셨다. 4. 딸 아홉을 낳아 죽은 후 고방에서 상을 차려 주니 딸을 위하는 조상이 되었다.	충성과 보은	조상 신화	김사공, 허정승 딸, 임금, 딸 아홉	남 2 여 10		18		옛날 신촌
22	팔용당과 팔사낭	1. 위씨가 기와집을 짓고 호화롭게 살았다. 2. 팔용당라는 말에 목사가 괘씸하게 생각했다. 3. 팔사당으로 이름을 지으니 망해버렸다.	허욕 금지	자연 전설	목사 부자	남 2		3		중문
23	아흔아홉꾼	1. 이 골짜기에 맹수가 있었다. 2. 중국에서 스님이 건너와 대국 동물대왕 입대라고 소리쳤다. 3. 스님이 불경을 외고 명령을 내리자 맹수가 사라졌다. 4. 맹수가 살 수 없는 섬이 되었다.	동물의 물라	자연 전설	스님	남 1		8	맹수 사라짐	옛날 아흔아홉꾼
24	오백장군	1. 아들 오백형제를 데리고 사는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다. 2. 어머니가 죽을 꿈이다 빠져 죽었다. 3. 죽을 먹던 작은 아들이 어머니의 뼈다귀를 발견하였다. 4. 막내는 차귀섬으로 달려가 울다가 바위가 되었고, 형들은 오백장군이 되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어머니, 아들 오백형제	남 500 여 1		13	오백 아들이 바위가 됨	옛날 한라산 차귀도
25	산방산 금정지	1. 가뭄이 들어 산방산에 무덤을 썼다고 찾아다녔다. 2. 무덤을 찾아 파보니 날개를 단 사람이 묻혀 있었다. 3. 날개를 자르고 이장을 하니 비가 내렸다.	명당 발복	자연 전설	날개 달린 사람	남 1		8	날개 달린 사람이 썩지 않고 묻혀 있었다.	옛날 화순리 산방산
26	비양도	1. 중국에서 떠돌던 섬이 떠내려왔다. 2. 임신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자 섬이 멈추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해녀	여 1		5	섬이 돌 아 다님	옛날 비양도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 수	환상	배경
27	쇠죽은 못	1. 과부가 머슴에게 발을 갈게 하였다. 2. 머슴이 일은 안하고 잠만 자니 화가 나서 여덟마지기 물 단속에 갈았다. 3. 목이 말라 물을 먹던 소와 여인이 죽어버렸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과부, 하인	남 1 여 1		11		옛날 쇠죽은 못
28	가릿뱅디	1. 평대리 장서방이 마소를 키르는 데 한 마리씩 사라졌다. 2. 감시를 했더니 하얀 개가 소를 물고 사라졌다. 3. 사냥꾼을 시켜 개가 나타나자 활로 쏘았으나 빗맞았다. 4. 개는 김녕 입산봉에 숨어버렸다. 5. 가릿뱅디의 물이 마르고 입산봉에 물이 흘러나왔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장서방, 사냥꾼	남 2		16	하얀 개가 숨어 든 곳에 물이 솟아남	옛날 평대리 김녕 입산봉
29	절부암	1. 용수리에 대나무를 엮어 사는 총각이 있었다. 2. 고씨 처녀와 결혼했는데, 죽도로 대나무를 베러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다. 3. 석달이나 기다리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다. 4. 신체우라는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면 열너비를 세워 주겠다고 하였다. 5. 과거에 급제한 신체우는 열너비를 세우고, 부덤을 만들어 주었다.	열녀	자연 전설	강사철, 고씨부인, 신체우	남 2 여 1		10	아내가 죽자 남편이 채가 오름.	옛날 용수리 차귀도
30	군산	1. 창천리 강씨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동해용왕 아들이 따라 배웠다. 2. 동해용왕 아들에게 넷물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 3. 7일간 밝을 내다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다 보다가 불티에 눈이 다쳤다. 4. 중국 곤륜산(서산)이 옮겨온 것이라고 하였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강씨, 동해용왕 아들	남 2		20	동해왕의 아들이 배움 곤륜산이 이동	고려 목종 때 창천리 창고내
31	수월봉과 녹고물	1. 수월이와 녹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2. 어머니가 병들어 지성으로 간호를 했으나 낫지 않았다. 3. 스님이 백 가지 약초를 가르쳐 주었다. 4. 남매는 구십구 가지 약초를 구했으나 오갈피를 구할 수 없었다. 5. 절벽에서 오갈피를 발견. 캐다가 수월이는 떨어져 죽고, 녹고의 눈물이 샘물이 되었다.	효도	자연 전설	녹고, 수월, 어머니, 스님	남 2 여 2		15		350여 년전 고산리
32	산방산과 방철스님	1. 고단이는 산방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려 아기를 낳았다. 2. 부친과 모친이 갑자기 운명하여 사고부친이 되었다. 3. 고승이 데려다 길러 글공부를 시켰다. 4. 귀동이는 방철스님이 되어 명산대찰과 중국을 여행하고 금강산에서 1000일 기도를 하였다. 5. 빛이 비추고 가슴이 시원해져 바닷가로 갔다가 전복을 보았다. 6. 관세음여주 진주를 먹자 눈이 밝아졌다. 7. 제주로 내려와 생복이 되었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자연 전설		남 2 여 1		13		사계리 산방산 중국 금강산
33	외돌개와 범섬	1. 원나라가 망해도 목호가 돌아가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 2. 최영장군이 난을 평정하기 위해 들어왔다. 3. 목호들은 범섬으로 대피하여 저항하였다. 4. 외돌개를 장군으로 꾸며 적군의 기를 꺾었다. 5. 배를 연결하여 쳐들어가 목호를 물리쳤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최영장군, 목호 등	남 다수	몽고군고려군	30		제주도 범섬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34	이여도	1. 조천의 고동지가 중국으로 말을 진상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 2. 표류하다가 과부들만 사는 섬에 닿았다. 3. 고향을 그리다 중국상선을 타고 돌아왔다. 4. 한 여인이 따라와 여돗할망이 되었다.	생성 유래	전설	고동지, 과부	남 1 여 다수		14	과부의 섬, 여돗할망신이 됨	옛날 조천
35	관덕정	1. 세종 때 관덕정을 짓는데 자꾸 무너졌다. 2. 스님의 말을 듣고 술장수가 지나가자 소리를 질러 술장수가 술에 깔려 죽었다. 3. 그 후로 관덕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스님, 목수, 술장수	남 3		11		세종 30년(1644) 제주도
36	기건목사	1. 이방이 아버지를 산에 버리면서 신선이 된다고 하였다. 2.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다. 3. 독약을 먹은 뱀이 죽어 다시는 노인을 산에 버리지 않게 되었다.	명판, 관의 업적	역사 전설	이방, 기건목사	남 3		15		세종 때 제주도
37	늘우시동산	1. 전쟁을 피해 당태자가 광지리 진모살 동쪽에 도착했다. 2. 당태자가 죽자 부인은 남편 무덤을 찾아가 울었다. 3. 남편의 무덤을 울며 넘었다는 동산이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당태자, 부인	남 1 여 1		8		
38	파랑도	1. 생각하는 섬이 있었다. 2. 행복한 섬이 되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9		
151	탐지	1.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안하무인으로 지내며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 2. 관가에서는 집을 못 짓게 그 곳에 탐을 세우도록 하였다. 3. 탐의 기운을 안 승려가 탐을 세워 마을이 망할 거라고 하였다. 4. 탐을 부수니 하얀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허욕 금지	민담	고씨, 노승	남 2		7		
40	산방산	1.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한라산으로 올라갔다. 2. 사슴을 쏘려다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쏘았다. 3.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산봉우리를 뽑아 던졌다. 4. 봉우리가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사냥꾼, 옥황상제	남 1		6	옥황상제가 봉우리를 뽑아 던짐	옛날 산방산
41	백록담	1. 백록담은 한라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 흰사슴을 타고 다니다 물을 먹던 곳이다. 2. 교래리에 살던 포수가 사냥을 갔다가 사슴을 잡았는데, 백록이었다. 3. 살모를 빌어 겨우 목숨을 구했다.	생성 유래 이유	전설	사냥꾼	남 2	동동 사람과 셋동 사람	12	신선이 백록과 사는 곳	옛날 백록담
42	유반석 무반석	1. 화순리 동동네에는 양반이 살고, 셋동네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다. 2. 학식이 높은 동동네 사람들이 힘이 센 셋동네 사람들에게 물리고 있었다. 3. 유반들이 물리고 있는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한 옥지사람이 무반석이 유반석보다 불빛이 더 밝은 것을 발견하였다. 4. 힘내기 경기를 하면서 피를 내어 무반석을 넘어뜨리자 청비둘기 한쌍이 날아갔다. 5. 화가 난 셋동네 사람들이 유반석을 밀어도 끄떡하지 않았다.	문·무반의 우열 가림	자연 전설	유반, 무반, 옥지 사람	남 1		19	유반석과 무반석에서 빛이 나옴, 무반석에서 청비둘기가 날아감	옛날 화순리
43	설희과 뱀	1. 설희에 큰뱀이 용이 되게 해달라고 용왕께 빌었다. 2. 용왕은 정성이 가득하여 용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며 구슬을 찾으라고 하였다. 3. 뱀은 구슬을 찾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동물의 몰락	자연 전설	용왕	남 1		14	용이 되려는 뱀이 구슬을 찾지 못함	오랜 옛날 설희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44	정방폭포	1. 진시황은 죽고 싶지 않아 신하들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2. 한라산 불로초를 캐러 서벌과 남녀 각 500명을 보냈다. 3. 한라산을 돌아다녔으나 불로초는 없었다. 4. 서씨일행이 지나갔다는 글을 정방폭포에 남기고 떠나갔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진시황, 서벌	남 2		17		중국 진시황 때, 정방폭포
45	천세연과 효자	1. 농부가 자식이 없어 천세연에서 빌어 아기를 갖게 되었다. 2. 아기는 비상하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상이 끝난 후,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3. 어머니가 병이 들자 천세연에 가서 삼년 동안 빌었다. 4.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후,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5. 삶은이는 글공부를 멈추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	효도	자연 전설	농부, 어머니	남 2 여 1		28	효자 청년의 정성에 감동하여 천지신명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줌	옛날 천세연
46	천지연	1. 명문이라는 총각과 순천이라는 처녀가 살았다. 2. 순천이는 법환리 강씨 댁으로 시집을 가서 청송이 자라났다. 3. 친정나들이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폭포걸을 지나게 되었는데 명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4. 순천이를 괴롭히는 명문을 천지연에서 쫓아오른 용이 나찌채 가버렸다. 5. 여의주를 얻는 순천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웅장	자연 전설	명문, 순천	남 1 여 1	순천, 명문	27	교룡이 구해주고 여의주를 줌	서귀진
47	열녀바위	1. 귀한 집 며느리가 임신하기 위해 절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스님에게 몸을 더럽혔다. 2. 임신을 한 며느리는 울다가 자결하여 돌이 되었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며느리, 스님	남 1 여 1		11	며느리가 울다가 돌이 되었다	옛날 서귀포시 호근리
48	김녕뱀굴	1. 굴 속에 엄청나게 큰 뱀이 살아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처녀를 세물로 바쳤다. 2. 서련판관이 뱀을 죽였다. 3. 서련판관은 무당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죽었다.	명판관의 업적	자연 전설	서련, 처녀	남 1 여 1	목사와 뱀	10	커다란 뱀이 처녀를 세물로 먹음	옛날 동김녕리
49	가파도 애기업개바위	1. 모슬포의 한 주인이 애기업개를 데리고 해산불을 캐러 가파도에 갔다. 2. 배를 띄우려면 풍량이 일어 돌아오지 못했다. 3. 꿈에 애기업은 여인을 두고 떠나라고 하여, 선주는 애기업개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배를 띄웠다. 4. 삼년 후에 가 보니 돌이 서 있었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선주, 애기업개	여 3		9	애기업개가 바위가 됨	옛날 가파도
50	용궁올레와 칼선도리	1. 송씨 해녀가 선복을 잡다가 정신이 잃었다. 2. 강아지를 따라 남해용궁에 갔다. 3. 뒤를 돌아보았다가 수문장에게 들켰는데,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니 놓아주었다. 4. 강아지를 따라 돌아왔다.	효도	자연 전설	송씨 해녀, 미녀, 수문장	남 1 여 2		17	용궁과 미녀	옛날 신평리
51	여우물	1. 여우가 자주 나타나는 물가를 관원이 지나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2. 관원은 눈치를 채고 여인을 붙잡아 몽꽁 묶었다. 3. 개가 백년 묵은 여우를 죽였다.	동물의 몰락	자연 전설	관원, 여인	남 1 여 1	관원, 여우	7	여우가 마녀로 둔갑함	옛날 서귀포와 법환리 사이의 여우물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52	용궁의 세 왕자와 매오름	1. 남해용왕의 세 아들이 죄를 지어 제주도로 귀양을 왔다. 2. 용왕의 명령을 거북이가 와서 보니 아주 궁핍하게 살고 있었다. 3. 왕자들에게 대접한 사람이 없자 돌발과 가시덤불로 만들라고 하고 물에 잠기게 하려고 했다. 4. 박씨를 준 사람은 매로 변신 매오름에 올라가도록 했다. 5. 바닷물이 차오르자 고기를 본 매가 고기를 먹으려 하자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용왕 세 왕자 박씨 준 사람	남 5		7		제주도 매오름
53	용두암	1. 용연에 용이 살았다. 2. 한라산에서 놀다가 한라산 신이 쓴 화살에 맞았다. 3. 화가 난 용이 한라산을 쳐다보며 돌이 되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신선 용		용 한라산신	5		용연 한라산
54	용머리	1. 제주도에 왕후지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달을 보냈다. 2. 산방산 용머리가 왕후지지라는 것을 안 고종달이 용머리를 끊으니 피를 흘리며 울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진시황, 고종달	남 2		10	바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신음 함	옛날 진시황 때, 안덕면 용머리
55	지장샘	1. 중국의 왕비가 죽어 제주에서 후궁을 맞아들였는데 알을 다섯 개나 낳았다. 2. 알에서 오백장군이 나와 걱정이 된 진시황은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제주에 장군혈을 떠야 한다고 하였다. 3. 고종달을 보냈는데 종달리에 도착하여 제 이름과 같은 걸 알고 물혈을 떴다. 4. 서흥리에서 농부가 밭을 가는 데 한 노인이 늦그릇의 물을 숨겨달라고 하였다. 5. 고종달이가 개를 데리고 와서 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6. 고종달이는 화를 내며 가버렸다.	생성 유래 이유	자연 전설	고종달, 농부, 노인	남 3	물신 고종달	29	말혈의 피가 솟구쳐 말이 작아짐,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 책에 실림	옛날 중국 서흥리
56	용연과 고대성	1. 제주에 가뭄이 들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2. 고대정은 술김에 한 말이었지만 재물을 차려주면 기우제를 올린다고 하였다. 3. 용연에서 7일 동안 굶주리며 애원하자 마침내 비가 내렸다.	지성 이면 감천	역사 전설	고대정	남 1		10		
57	방선문과 선비	1.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자 선비가 숨어서 보았다. 2. 옥황상제가 그 사실을 알고 선비를 잡아왔다. 3. 선비는 사슴이 되어 한라산을 지키게 되었다.	허욕 금지	자연 전설	선비 옥황선녀 오방신장	남 3 여 1		5		아라동 백록담
58	명당과 명구의 부딪	1. 개를 기르던 금악리 강씨가 죽었다. 2. 후손들이 똥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3. 개가 지관유를 끌고 가서 똥자리를 가리켰다. 4. 그 곳이 옥녀금채형 명당이었다.	명당 발복	자연 전설		남 2		4		금악리
59	신도충견부딪	1. 신도리 사람이 정의현에서 곡식을 꾸어먹었다가 갚고 돌아가는데 개가 따라왔다. 2. 개가 사냥을 잘해 팔라고 했으나 팔지않았다. 3. 상을 당한 기간에만 빌려주며 짐승을 잡으면 똥자리를 달라고 했다.	충성	인물 전설	신도 사람, 도적, 사냥꾼	남 3		15		신도리 정의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4. 개가 짐승을 잡을 때마다 뒷다리를 주인에게 갔다 주었다. 5. 주인이 병이 나자 눈물을 흘리다가 주인이 죽자 같이 죽었다.								
59	개 무덤	1. 성읍리 사람이 서촌에서 곡식을 꾸어먹었다가 갖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2. 강아지가 복에 그을린 채 불타는 메밀짚더미에서 나오더니 따라왔다. 3. 사냥을 잘해 팔라고 했으나 팔지않았다. 4. 상을 당한 기간에만 빌려주며 짐승을 잡으면 뒷다리를 달라고 했다. 5. 개가 짐승을 잡을 때마다 뒷다리를 주인에게 갔다 주었다. 6. 주인이 병이 나자 눈물을 흘리다가 주인이 죽자 같이 죽었다.	충성	인물 전설	신도, 사람, 도적, 사냥꾼	남 3		19		신도리 정의
61	이 청장물	1. 강정리 도릿동네에 형과 아우가 살았다. 2. 형이 대정고을에 가다가 이청장물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3. 여우귀신인 줄 알고 여인을 몸에 개에게 물려 죽게 했다.	동불의 몰락	자연 전설	형	남 1	형과 여우	11	여우의 변신	옛날 강정리
62	서문하르방	1. 윤씨 영감이 살아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먹물이 올라와 성장에 버렸다. 2. 자식들이 병이 들자 돌을 모시지 않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3. 돌을 주워다 모시고 자식없는 부인들이 빌기만 하면 아들을 낳는 기자석이 되었다.	생성 유래 이유	역사 전설	윤씨	남 1		9		옛날 김녕리
63	변씨 입도선묘	1. 변씨가 제주에 들어와 도형동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다. 2. 변씨가 죽었으나 관을 팔 돈이 없어 지게 송장을 하여 함박이굴에 묻었다. 3. 유명한 지관이 지나다 변씨 산을 보고 금개판을 했으면 발복할 산이라고 하였다. 4. 보릿집으로 덮여묻었기 때문에 금개판이 되어 자손들이 발복하였다.	명당 발복	신앙 전설	변씨 지관	남 2		11	사실적	500년 전 제주시 노형동
64	소잡아 얻은 뿔자리	1. 흙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지관을 모셔오라고 하였다. 2. 강훈장은 아들을 따라 오다가 외삼촌네 소를 잡으라고 하였다. 3. 모친이 동생네로 달려가 사정하자 승낙을 했다. 4. 소를 먹은 훈장은 소뿔마리를 부릴 터를 봐주었다.	명당 발복	자연 전설	강훈장 어머니 아들 외삼촌	남 3 여 1		12		
65	날개 달린 아기 장수	1. 태흥리 묵은 가름에서 아기를 낳았다. 2. 아기가 날개달린 것을 알고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3. 관가에 알려 관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생성 유래	역사 전설	날개 달린 아기	남 2 여 1		15		태흥리
66	아기 업개	1. 밭에 간 모친이 돌아오지 않아 애기업개는 애기를 업고 밭이 있는 군산으로 갔다. 2.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3. 호랑이가 애기업개를 삼키려 하자 비명소리를 들은 신선이 아이들을 돌로 만들어 버렸다. 4. 어머니는 돌이 된 아이들을 보며 울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애기 업개 어머니	남 3 여 2		12		군산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67	피이리	1. 외국배가 파선되었으나 구해주지 않아 동사했다. 2. 도채비불이 날아와 자주 불이 났다. 3. 마을 이름을 한동리로 고치자 불이 안나고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	생성 유래	자연 전설	파선당 한외국 선원 마을 유지					한동리
68	여우혈	1. 귀양온 진거사가 김창호 하르방 댁에서 하룻밤을 유숙했다. 2. 진거사의 도움으로 아들이 모실개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 3. 진거사의 말을 듣고 땅을 파보니 기와가 나와 집을 짓기 시작했다. 4. 파지 말라고 한 쇠꼬챙이를 파니 피가 나왔다. 5. 사냥꾼이 도둑을 화살로 쏘았는데 여우가 죽어있었다.	명당 발복	자연 전설	남 5 여 1			12		
69	은호골	1. 명지관에게 배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었다가 세 사람만 남았다. 2. 지관은 자신이 죽으면 호랑이가 몸을 숨긴 곳에 묘를 쓰도록 했다. 3. 무덤을 파보니 관앞에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 급히 덮었다.	명당 발복	자연 전설	명지관 세 사람	남 4		9		
70	광정당과 이목사	1. 영천 이목사가 제주에 와보니 굶는 집이 많았다. 2. 제주를 돌면서 절과 당을 부수었다. 3. 덕수리 광정당을 지나게 되자 말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4. 목사가 고집을 부려 말을 타고 가자 말이 죽어버렸다. 5. 포수를 시켜 이 당의 뱀을 죽였다. 6. 꿈에 나타난 노인을 본 이목사는 김녕으로 달려가 관총을 손보아주었다. 7. 얼마 후, 노인이 나타나 급히 제주를 떠나라고 했다. 8. 목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난파하고, 두 아들은 죽었다.	미신 타파	인물 전설	이형상 노인	남 2	이목사와 광정당 뱀	12		덕수리 김녕리
71	고종달이	1. 중국의 진시황이 제주에서 인물이 날 것을 염려했다. 2. 고종달은 종달리로 들어와 물정거의 물을 끌어버렸다.	풍수 지리	인물 전설	고종달 진시황	남 2		9		종달리 물정거
72	감목관 김태	1. 김택이 제주에 들어와 수망리에서 초라하게 살았다. 2. 호종단이 물을 얻어먹고 묘자리를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3. 발이 간지러워 발을 떼자 청비둘기가 날아갔다. 4. 날이 자꾸 흐려 걱정이 많았는데, 사냥꾼이 지나가다 독수리를 쏜다 여우가 떨어졌다. 5. 길가던 여자가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하자 말일 한 마리씩 늘어났다. 6. 장인은 말을 태운 집이라며 말을 찾아가지 않아 말 부자가 되었다.	충성	인물 전설	김책 사냥꾼 호종단 장인	남 4		30	여우의 변신	수망리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73	말머리	1. 다끄내에 배 큰 정서방이 살았는데 힘이 장사여서 판가에서는 죽이려고 하였다. 2. 정서방에게 한 섬의 밥과 소를 먹이고, 바다에 던졌다. 3. 정서방이 죽자 백마가 나왔다가 들어가 말머리라 한다.	장수의 좌절	장수 전설	정서방, 부모	남 2 여 1		15	배서방이 죽자 하얀 말이 나왔다가 들	옛날 용담동 다끄내 어감
74	고전적	1. 엄한 강훈장 밑에서 공부했는데, 강훈장은 한양에 가서도 엄하게 가르쳐 암행어사를 만들었다. 3. 암행어사는 제주에 내려온 김에 스승을 찾으러 돌아갔다. 4. 암행어사는 묘소가 나쁜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고전적을 불렀다. 5. 고전적은 쇠고행이로 지른 스승을 애먹이기 위하여 묘자리를 썼다는 말을 했다. 6. 어사는 꾸짖고 달래서 좋은 자리를 가리키라고 하여 어사가 앉은 자리를 가리키자 지리를 잘 본다고 칭찬하며 한양으로 데려갔다. 7. 어사가 시키는 데로 권세있는 집의 묘자리를 보아 주어 전적벼슬을 얻었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고전적, 김훈장, 암행어사	남 3		17		옛날 두모
75	가시오름강당장	1. 강당장은 부자였으나 구두쇠였는데, 말 백 두를 기르고 싶어했다. 2.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오자 허벅 속의 슈탈을 가져가라고 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3. 중은 강당장네 선묘를 보며 부자는 나나 말 백필은 못 갖겠다는 말을 했다. 4. 강당장이 뒷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자 홍사가 나는 자리를 소개해 주어 망해버렸다.	허욕 금지	역사 전설	강당장, 중	남 2 강당장 스님		14		옛날 가시리
76	돌하르방	1. 제주 목사 김몽규는 돌병사를 세워 성을 지키려고 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 2. 삼을 수령을 불러 돌사람을 만들라고 하였다. 3. 여러 이름을 가졌으나 돌하르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생성 유래 이유	역사 전설	김몽규	남 1				조선 영조 30년 제주
77	고성홍효자	1. 아버지가 병이 나자 온갖 고생하며 간병을 했다. 2. 홍효자는 살생을 하지 않아 이가 많았다. 3. 홍효자를 관탕먹인 말총장수는 바다가 거칠어 돌아갈 수 없어 홍효자에게 빌어야 돌아갈 수 있었다. 4. 현종 임금님이 승하 도랑쉬에서 향을 사르자 한양에 향냄새가 진동했다.	효도	역사 전설	홍효자, 아버지, 상인	남 3		21	도랑쉬에서 사향큰 향냄새가 서고성리울에서 서울났다.	현종
78	신촌김댁효부	1.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2. 암행어사가 사실을 알기 위해 머물렀다. 3. 시어머니가 참기름을 오줌항아리에 버렸는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사과했다. 4. 어사가 정말 착하다고 하며 효부로 봉했다.	효도	역사 전설	시어머니, 며느리, 암행어사	남 1 여 2		11		옛날 신촌리
79	오찰방	1. 오찰방의 아버지는 부인이 임신을 하자 소 열 마리를 먹여 딸을 낳았다. 2. 다시 임신을 하자 소 아홉 마리를 먹이고 아들을 낳았다. 3. 오찰방이 말썽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쫓아가자 산방산을 단숨에 올라갔다. 4. 술을 먹고 옷을 벗겨보니 날개가 달려 있어서 모른 채 했다.	장수의 좌절	인물 전설	오찰방, 아버지, 지독대신	남 4 여 1	오찰방과 대신	27		산방산 서울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5. 서울에 올라가 도둑을 잡겠다고 했는데, 피리를 부는 소년 도적을 잡았다. 6. 오찰방이 임금을 뵈러갔는데 대신의 말을 듣고 절어서 갔기 때문에 찰방벼슬을 얻었다. 7. 너무 억울한 오찰방은 강지에서 바둑을 두다가 날아가 대신을 죽이고 돌아오자 오찰방을 의심하였다. 8. 오찰방을 문초하였으니 바둑을 둔 것이 인정되어 벌을 받지 않았다.								
80	벼락 구렁	1. 다호부락에 아들을 낳아 열일곱이 되었다. 2. 성안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금방 돌아와 의심하였다. 3. 술을 먹고 옷을 벗겨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4. 날개를 자르니 벼락이 내리고 못이 생겼다.	장수의 좌절	자연 전설	아들 부모	남 2 여 2		11	아들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림, 벼락치고 연못이 생김	옛날 도두동 다호부락
81	날개 달린 밀양 박씨	1. 외도동에 밀양박씨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다 아들을 낳았다. 2. 삼승환망이 목욕을 시키다 날개달린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했다. 3. 나라소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저녁에 인두로 날개를 지저버리자 아프더니 죽어버렸다.	장수의 좌절	역사 전설	박씨, 아내, 삼승환망, 날개달린 아기	남 2 여 3		10	날개달린 아이	130년 전 외도 2동
82	날개 달린 아기 장수	1. 강정 김댁에 젊은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날개가 있어 날아다녔다. 2. 역적이 되는 것이 두려워 궁리를 하다가 아버지 묘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3. 묘를 파자 황새가 날아올랐고, 쌍둥이는 죽어버렸다.	장수의 좌절 풍수 지리	역사 전설	강진 김씨, 아내, 쌍둥이	남 3 여 1		14	날개달린 아이	옛날 강정리
83	한연한 배인 새	1. 장군이 난 자리에 묘자리를 썼다. 2. 김녕 한씨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날아다녔다. 3. 아버지는 두려워 아기가 잠든 틈에 지저버렸다. 4. 힘이 세어 수적을 물리쳤다. 5. 벽파진에서 일을 하다가 시비거는 사람들을 혼내어 고발을 당했다. 6. 조정에서는 공을 알고 돌려보내주었다.	장수의 업적	역사 전설	한씨, 아들,	남 1 여 1	한연과 청년	25	날개달린 아이	옛날 육지 김녕리
84	김통정 장군	1. 지령이와 정을 통한 과부가 김통정을 낳았다. 2. 삼별초 난에 김통정 장군이 항파두리에 성을 쌓았다. 3. 김방경 장군이 잡으러 와서 성을 공격했다. 4. 아기업개 때문에 성이 무너지자 장군은 쇠방석을 던지고 날아가 앉았다. 5. 김방경은 모기가 되어 비늘 틈으로 김통정을 죽고 자식들은 매새끼였다. 6. 죽은 아기업개의 피가 흘러 흙붉은 오류이 되었다.	장수의 좌절	역사 전설	김통정, 김방경	남 2		29	비늘이 둘은 김통정을 모기로 변장해서 죽임, 피가 흘러 흙붉은 오류이 됨	700여 년 전 성산고성리 애월고성리
85	홍업선	1. 신엄리에서 태어났는데 예사사람과 다르고 힘이 세었다. 2. 짚신을 일찍 팔고 돌아와 의심을 했다. 3. 술에 취한 아들의 옷을 벗기고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4. 역적으로 물리는 게 두려워 날개를 잘라버렸다. 5. 진보다 발랄하지는 못해도 힘이 장사였다.	장수의 좌절	역사 전설	홍업선, 부모	남 2 여 1		10	날개달린 아이	300년 전 신엄리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91	괴법천총	1. 키가 크고 쌍둥이를 가지고 있어 호랑이 같이 무서운 사나이가 있었다. 2. 쳐다보기만 해도 닭이 죽고 목사가 혼이 났다. 3. 순력행사를 하던 목사 일행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4. 시체가 떠오르는 해안을 행원사람에게 맞겼다. 5. 합덕리 당을 불살랐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보낸 화덕진군이 불을 집었다.	기인의행적	역사전설	괴법천총, 목사, 장인, 아내	남 3 여 1	범천총과 목사	28	노동자가 개인사람	400년 전 한동리 굴미와
92	무남발이좌수(2)	1. 이좌수는 노동자가 들썩인데, 여든에 난 아들이다. 2. 예순난 양아들을 색달리로 보내 열입곱살 난 처녀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하였다. 3. 처녀는 오줌을 받아오면 시집을 가겠다고 하여 결혼을 했는데 복상사했다. 4. 이좌수를 낳았는데 눈에 충기가 있고 영리했다. 5. 제주목사가 눈싸움을 해서 졌다. 6. 좌수벼슬을 얻어 대정현에 출입할 때, 여우가 변장을 하여 나타나자 여우를 묶어 개를 불러 죽였다. 7. 신성방은 친구였는데 죽어서 제삿날에 들려 술을 대접하자 죄를 지어 저승에 가지못하니 월평강씨에게 갚아달라고 부탁하였다. 8. 제사에 간 신성방은 채소에 뱀(머리)이 있어 끓고 왔다고 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9. 아들을 불러 꾸짖고 보리를 갚도록했다. 10. 죽을 날을 알고 인사를 드린 후 저승사자를 따라갔다.	기인의행적	역사전설	이좌수 아버지, 양아들, 처녀, 색시, 이좌수, 신성방	남 4 여 1	이좌수와 여우	38	노동자가 개인사람, 제사에 간 신성방이 이좌수와 애기함,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음	숙종 때 중문리
93	고성목과산방덕	1. 화순리에 고성목이란 천민 부자가 산방덕을 첩으로 삼았다. 2. 고성목이 호화롭게 살자 관에서 조사해보니 집터가 위험인물이 나올 집터였다. 3. 고성목을 골탕먹이기 위해 낸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 관에서 잡아들었다. 4. 산방덕은 잡으러 올 것이 두려워 산방굴사로 날아가 버렸다.	허욕금지	역사전설	고성목, 산방덕, 관원	남 2 여 1		11	산방덕이가 산방굴사로 날아감.	옛날 화순리
94	산방덕이	1. 산방산신의 딸 산방덕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애원을 하여 허락을 받았다. 2. 고승이라는 총각이 산에 갔다가 쓰러진 산방덕이를 발견하여 데려다 간호를 하였다. 3.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4. 사또가 산방덕이를 좋아하여 고승을 잡아다 고문을 하였다. 5. 산방덕이는 후회하여 산으로 도망을 가 바위가 되었다. 6. 사람이 된 것을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성유래	역사전설	고승, 산방덕이, 사또	남 2 여 1		8	산신의 딸이 되었다.	옛날 산방굴사
95	서귀진변인태	1. 서귀진 하인 변인태는 지모가 뛰어나고 거짓말을 잘 하였다. 2. 서귀진 조방장이 부인을 신촌에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3. 피를 내어 부인과 동침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4. 목사가 먹음 고기를 피를 내어 다 먹었다.	말시금지	역사전설	변인태, 조방장	남 2		17		서귀진 신촌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관상	배경
96	새샘이와 정운디	1. 새샘이는 힘이 장사였으나 가난하여 도둑이 되었다. 2. 님은 광이라는 굴에 살면서 곡식과 마소를 털어먹었다. 3. 원님은 정운디의 소문을 듣고 도둑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4. 정운디는 실컷 먹어 힘을 기르고 나서 장정 서른 명을 데리고 넓은광으로 갔다. 5. 뽕을 내어 소고기를 먹다가 칼을 뿌러뜨리고 새샘이의 오른팔을 뿌러뜨려 잡아왔다. 6. 정운디는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원수를 갚으려 새샘이의 왼팔을 잘라 새샘이를 사로잡았다.	장수의 좌절	역사 전설	새샘이, 원님, 정운디	남 3	새샘이 정운디	18		옛날 대정팔(넓은광)
97	막산이	1. 이좌수네 집에 힘이 센 종 막산이가 살았다. 2. 늙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했는데, 제삿날에도 도둑질을 하러 갔다. 3. 1 정보의 밭에 심은 조를 울안으로 던져버렸다. 4. 강씨집으로 옮긴 막산이는 오십 명 분의 음식을 먹고 하루에 논을 다 만들었다. 5. 막산이의 식량을 댈 수 없어 내보내자 막산이는 산에 올라가 강도가 되었다가 굶어죽었다.	장수의 좌절	역사 전설	막산이, 이좌수, 강씨	남 3		23		300년 전 중문리
98	논하니	1. 논하니는 힘이 장사였는데 배를 채워보지 못했다. 2. 백사람이 먹을 점심을 먹고 혼자서 풀을 베었다. 3. 선 사람이 먹을 점심을 먹고 풀을 전부 뜯었다. 4. 제삿날밤에 혼자서 산디를 모두 베어노았다.	장수의 업적	역사 전설	논하니, 상전	남 2		14		옛날 남원면의 귀리
99	월계진좌수	1. 서당에 갔다오는데 처녀가 불렀다. 2. 처녀와 구슬 놀이를 하느라 공부를 못해 훈장에게 꾸중을 들었다. 3. 소년은 훈장이 시키는 대로 구슬을 삼켰다. 4. 여우가 좋아와 훈장에게로 달려갔는데 하늘과 땅을 보지 않아 의술만 능하게 되었다. 5. 산모에게 침을 주어 살려주기도 하고 아침에 문지방을 살라먹게 하여 얘기를 날게 하였다. 6. 외발주인과 정을 통한 사내는 죽고 남편은 살아날 것이라고하여 그대로 되었다. 7. 배를 찢던 여인에게 침을, 소년의 어머니에게는 해갈물을 먹이고 살렸다. 8. 의원들이 무시하였으나 정승의 어머니를 고치고 임금님의 등창을 거미로 고쳐 좌수벼슬을 얻었다.	명인의 업적	역사 전설	진좌수, 처녀, 훈장, 출산한 여인, 3 대정교을 여인, 외발주인, 명주씨, 죽은 여인, 술먹고 죽은 사람, 소년, 정승, 임금, 사공, 동네 사람.	남 13 여 5			여우 처녀와 놀았다. 문지방을 살라먹게하여 얘기를 낳았다.	조선 조 한류 명월리 서울
100	장사 구운문	1. 화순리에 힘이 세고 걸음이 빠른 구운문이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 2. 왜구가 쳐들어와 모관 관아에 알려달라고 하자 밥을 먹고 낮잠을 잤는데, 어느새 다녀왔다. 3. 국쇠가 보리를 먹어 구운문이 연못에 매다박았다. 4. 보리밭 주인이 공을 갚으려 하자 보리 모두를 한 집에 지고 갔다.	장사의 업적	역사 전설	구운문	남 3		18		옛날 화순리
101	해녀의 시조	1. 임금이 혼자 사는 까닭을 물었다. 2. 정승의 부인은 온갖 고생을 하며 남편을 공부시켜 과거에 급제하였다. 3. 제주도를 가다가 풍랑이 일어 세비를 뿜아 아내가 뿜었다. 4. 아내는 물에 빠져 죽어 해녀의 시조가 되었다.	생성 유래 열부	전설	정승, 임금, 부인, 사공	남 3 여 1		17	풍랑이 일자 저고리로 타지말아야 할 사람을 고를	옛날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현상	배경
102	문만호며느리	1. 동네 청년들이 들들들기 내기를 하였다. 감녕에서 시집을 온 문만호 며느리는 들들을 보며 한 번 들어보고자 하였다. 2. 새벽에 물을 길러가다가 눈을 이웃밭으로 던져 버렸다. 3. 돌던진 것을 들켜 시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여중부의행적	역사 전설	문만호 며느리	여 1 남 1	문만호며느리 청년	11		150년 전 구좌읍 세화리, 감녕리
103	매고함방	1. 광령리에 매고함방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다. 2. 이웃집 포수가 매고를 차지하기 위해 계락을 꾸며 사냥을 가서 매고남편을 죽였다. 3. 시치미를 떼 포수는 매고를 도와주다 결혼을 하여 아들 아홉 형제를 낳아 잘 살았다. 4. 아내가 소르자 남편을 죽인 것을 말하자 확인을 하고나서 관가에 고발하였다. 5. 매고는 남편을 때려죽이고 아들은 태워죽이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버렸다.	웅장	역사 전설	매고 남편 새남 편 사또	남 3 여 1	매고 남편	28		옛날 애월읍 광령리
104	심돌강씨함방	1. 강씨 함방은 힘이 아주 세었다. 2. 물을 길러 가다가 밭에 채이는 돌을 옆눈발으로 던져버렸다. 3. 청년들이 애먹는 것을 보고 강씨 함방이 갖거리로 내던져 주었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강씨 함방	여 1	함방 청년	5		1백년 전 시흥리
105	용왕을욕한강선장	1. 힘이 세고 심돌이 굶은 강선장이 남을 괴롭히곤 하였다. 2. 바람이 불때마다 용왕을 욕하였다. 3.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강씨	남 1		4		
106	채뚝뚝이	1. 채구석은 매우 뚝뚝하여 채뚝뚝이라고 불리었다. 2. 진사교지를 받고자 서울로 올라가 모자를 사서 말했는데, 주인이 다른 모자를 내놓았다. 3. 채구석은 모자에 바늘을 꽂아두어 모자를 찾은 서울 사람에게 뽕피를 주었다.	기지	역사 전설	채구 석, 모자 상인	남 2	채뚝 뚝이 와 상인	18		한말 대정현
107	고부윤	1. 정의향교 고부윤이 변변히 과거에 낙방하였다. 2. 한양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맞은 사람의 등에 새겨진 글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3. 고부윤을 불러 풀었더니 담뱃대를 굴 가운데 놓아 뚫이불하여 부윤이라는 벼술을 주었다.	기지	역사 전설	고부 윤 임금 신하	남 3		11		정의 서울
108	열녀김천덕	1. 진상품을 신고 가던 남편이 죽었으나 남편을 그리며 살았다. 2. 여수라는 이가 미모에 반해 부친을 졸랐으나 김천덕은 허락하지 않았다. 3. 한 선비가 손목을 잡자 목을 매달아 죽어 열녀가 되었다.	열부	역사 전설	관연 군여 수선 비부 친김 천덕	남 4 여 1	김천 덕 선비	12		병월전
109	계삼박과안	1. 추사의 제자가 되어 섬겼다. 2. 추사 선생이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자 따라가서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 하였다. 3. 시기한 한양 선비들이 죽여 버렸다.	재능 인의 좌절	추사 선생 전설	추사 박과 안선 비들	남 2		7		한양
110	시흥리현씨남매	1. 소 열마리를 먹고 팔을 놓고, 아홉 마리를 먹어 아들을 낳았다. 2. 딸은 물을 길고 오다가 사슴을 잡았다. 3. 아들이 씨름대회에 가자 누나를 보냈다. 4. 동생이 이기자 물매를 주려는 김녕사람들을 부마시키기 위하여 누나가 씨름을 하여 이겼다.	형제 우애	역사 전설	아버지, 누나, 동생	남 2 여 1	누이 남동 생	14		500년 전 시흥리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11	산호해녀	1. 모슬포 해녀가 거북이를 살려주었다. 2. 용머리 해안으로 들어가자 대월이 보여 들어갔다. 3. 할머니가 나와 후히 대접을 했다. 4. 산호꽃을 주어 마마를 앓지 않았다.	보은	역사 전설	해녀	여 2		10	용궁에서 산호꽃을 가지고 올	옛날 모슬포
112	문곡성과 명인들	1. 영조 때, 고홍진은 풍수, 진국태는 의술, 문영후는 점술로 유명하였다. 2. 셋이 육지에 나가 곡성 대감댁에서 머물게 되었다. 3. 곡성대감은 차례 대로 시험을 하였는데, 고전적은 명당자리를, 문영후는 업전음, 진국태는 며느리의 병을 알아맞추었다. 4. 문영후에게 군수벼슬을 내렸다.	기인의 업적	역사 전설	고홍진, 진국태, 문영후, 곡성대감	남 4		20		영조 때 제주, 곡성
113	양판관	1. 오라리에서 태어나 계모 밑에서 자라 부랑아가 되었다. 2. 말고기가 먹고 싶어 말을 다치게 하고 잡아먹었다. 3. 장가를 가도 박대하는 아버지를 끌려주자 집을 마련해 주었다. 4. 아내는 장기나 바둑을 두라고 하였다. 5. 놀기가 심심하다고 말을 갈라갔다가 과거시험 때 문에 싸우는 것을 구경한 후 화살을 사주면 과거를 보겠다고 하였다. 6. 계모의 도움으로 무명을 마련하고 화살을 가지고 성내로 가서 선담벼슬을 땀다. 7. 육지의 도둑떼를 소탕하여 포도대장이 되었다. 8. 도둑의 두목을 생포하고 돌아오자 판관벼슬을 주었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역사 전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양판관, 이웃 부부	남 3 여 2		34		옛날 오라리
114	현유학	1. 현훈장은 어려서부터 영리하였다.. 2. 훈장이나 기생 등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3. 보성 감생원이 거만하자 왜구를 핑계로 꿀탕을 먹였다. 4. 이완용이 예조좌랑으로 제주에 왔을 때, 몸을 치장했다가 창피를 당했다고 한다.	기치	역사 전설	현훈장, 감생원	남 2		27		조선조 말 효돈
115	대포리 강씨	1. 무명을 팔리 넷기에 갔다가 들음돌 위에 앉았다. 2. 돌을 혀로 핥으라는 말에 던져버렸다. 3. 통소불기내기를 하자 호박잎을 뜯어다 연청이입에 붙이고 통소를 불었다. 4. 마을 청년들이 무명을 팔아주어 돌아왔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강씨	남 1	강씨 청년들	23		옛날 중문대포리
116	오서자	1. 오서자가 고성리에 양자로 갔으나 생가의 제사에 빠지지 않았다. 2. 제사에 가다가 비가 와서 골충 안에서 잠을 자다가 백발노인을 만났다. 3. 효돈천에서 죽은 노루를 발견하여 제삿집에 가니 놀라며 제관으로 배려해 주었다. 4. 무덤을 청소하고 비석인자에게 알려주니 사례하였다.	지성 이면 감천	역사 전설	오서자, 백발노인	남 2		11	무덤이 임자가 나타나 사례를 하였다.	옛날 홍로
117	명의 좌조의	1. 종달리 출신으로 명의 좌조의가 있었다. 2. 왕비가 종기가 나서 고치지 못하자 좌조의가 휴과 쌀밥을 섞어 약을 만들어 왕에게 드렸다. 3. 왕비의 병이 낫자 종달리 땅을 사주었는데, 고산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명의 의 업적	역사 전설	좌조의, 왕, 왕비	남 2 여 1		10		조선조 종달리 한양 고산리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18	한순이, 달순이, 신선달	1. 동북사람들이 북촌바다에 떠오른 시체를 치웠는데, 해조류를 가져왔다가 남정네들이 잡혀갔다. 2. 신씨 청년이 나서서 사건을 무마했다. 3. 신씨 청년이 과거에 합격하자 조정에서는 놀잇군을 보내어 축하를 했다. 4. 한순이와 달순이는 배가 얹어져 죽고 말았다. 5. 꿈에 영혼이 나타나 서우젓소리로 위로해달라고 하였다. 6. 굿을 하여 조상신으로 섬기자 부자가 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	보은	역사 전설	신선 달, 한순 이, 달순 이	남 1 여 2		21	꿈에 나타났 다.	동북리
119	고삭불장사	1. 상명리에 고삭불 장사가 있었는데, 처가집에 가니 풀뽕 일꾼을 빌지 못해 애틀 애틀 먹고 있었다. 2. 고삭불이 열 두 일꾼이 먹을 점심을 먹고 잠을 자서 장모가 화를 냈다. 3. 고삭불은 삼시간에 출을 다 베고 묶고 날랐다. 4. 사위가 소라를 못 먹었다고 불평하여 잡아다 주었는데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다. 5. 흉년이 들어 장인이 쌀을 주자 지고 가는데 도적떼가 덤벼으나 당해낼 수 없어 도망을 갔다.	장수 의 업적	역사 전설	고삭 불, 장모, 장인	남 2 여 41		16		상명리
120	의녀 김만덕	1. 부모를 여의고 교방에서 살다가 근면하여 재산을 많이 모았다. 2. 갑인년 흉년이 들자 재산을 내놓아 쌀을 사다가 백성들을 먹였다. 3. 목사가 앓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4. 임금은 금강산을 구경시켜 주었다.	보은	역사 전설	김만 덕 임금 체제 공	남 2 여 1		4		성내 금강산
121	안판관	1. 안씨 성을 가진 삼형제가 안동에서 들어와 한라산 구경을 하였다. 2. 삼형제가 소나기를 피해 서 있는데 귀달린 뱀이 나왔다. 3. 막내가 뱀을 모시자 부자가 되었다. 4. 부자가 된 막내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해달라고 빌었다. 5. 뱀을 모시게 된 부당은 부자가 되었다.	허곡 금지	역사 전설	안판 관 삼형 제 무당 중	남 5		11		안동 한라산
122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1. 오백이 터에 힘센 할망과 기지가 뛰어난 하르방이 살았다. 2. 하르방은 할머니에게 당하고 살았으나 그 때마다 기지로 쟁피를 당하지 않았다. 3. 술담근 것을 조사나온 일경에게 들켜자 자수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여 위기를 넘겼다.	기진	역사 전설	할망, 하르 방	남 1 여 1		13		
123	넋기 송씨 때 며느리	1.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힘이 장사였다. 2. 물을 길러 가다가 청년들이 들음들을 드는 곳을 지나다 욕을 들었다. 3. 송씨 며느리는 물을 번쩍 들고 상덕동산 밑으로 던져버렸다. 4. 청년들이 사정을 하자 동산 위로 올려놓았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며느 리	남 2	며느 리와 청년	12		성읍리 하천리
124	심늬 부대각	1. 부대각은 몸이 아주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2. 아들보다도 아주 컸고, 돼지추렴을 해도 남기는 법이 없었다. 3. 강경장에 쌀을 사러갔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부대각을 끌어내지 못하여 사과를 하였다. 4. 수적을 만나도 오히려 수적의 물건까지 빼앗고 돌아왔다.	멸시 금지	역사 전설	부대 각, 부주 사,	남 2		17		옛날 시흥리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25	난미김씨	1. 부락재를 올리고 나면 정의현감에게 재물을 바쳤다. 2. 김씨는 심부름을 가면서 모두 먹어 버렸다. 3. 매가 재물을 먹어 버렸다고 매를 잡아달라고 하소연했다. 4.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다.	기지	역사 전설	난미 김씨	남 2		10		난산리
126	어진고형방	1. 정의현에서는 도둑 때문에 꿀치를 앓았는데, 흥년이 든 해에 도둑들을 잡았다. 2. 고형방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묶도록 하여, 도둑들을 놓아주었다. 3. 제주목에 장계를 가지고 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고형방이 나갔다. 4. 고형방은 도적떼에 잡혀갔는데, 두목은 극진히 모셨다. 5. 고형방은 무사히 제주목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다.	보은	역사 전설	고형방, 도둑 두목	남 2		21		옛날 정의현
127	토산당팻당장	1. 키가 크고 힘이 센 당팻당장은 심술이 고약했다. 2. 아버지 관을 손수 짜서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 3. 집짓기는 데도 도와주지 않고 소를 빌려주지 않아 재물을 모두 지고 내려오면서 동네 집들을 허물어버렸다. 4. 그제서야 겁이 난 동네 사람들은 도와주었다. 5. 묘지싸움이 나자 당팻당장은 나서서 해결하고, 산감이 방아를 같이 쓰자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을 갔다.	장수의 업적	역사 전설	당팻 장장, 산감	남 2		18		150년전 표선면 토 산리
128	오돌또기	1. 김복수라는 총각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 안남땅으로 표류하였다. 2. 유구나라에서 표류해온 임춘향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 3. 일본에서 온 사신들을 따라간 김복수는 처남 임춘영을 만났다. 4. 유구로 돌아가다가 한라산을 보고 식수를 핑계로 상륙을 하였다. 5. 기다리던 임행은 가버리고 김복수는 임춘향을 그리며 슬픈 노래를 부렀다.	이별 의 한	전설	김복 수, 임춘 향, 임춘 영	남 5 여 5		25		옛날 중산 간 마을
129	백중재	1. 백중이라는 목동이 옥황상제가 거북이를 불러 벌을 내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2. 백중이가 옥황상제의 흉내를 내어 거북이에게 바라는 불지 않도록 말했다. 3. 옥황상제가 노하여 잡아들이려고 하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4. 대풍작을 맞은 농민들이 백중의 혼을 위로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보은	신화	백중 옥황 상제	남 2	백중 옥황 상제	10	옥황 상제 의 을 은 불이 가 씨를 조정 함	옛날 차곶방 뒤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30	눈 봉 사 와 얌 은 뱅 이	1. 봉사와 얌은뱅이가 서로 도우며 살기로 하였다. 2. 목이 말라 우물에 갔다가 얌은뱅이가 금덩이를 보았는데, 봉사는 아니라고 다투었다. 3. 밥을 얻어 먹으며 황금애기를 하여 주인이 달려갔더니 구렁이만 있었다. 4. 주인이 화가 나서 때리자 다시 우물에 갔더니 분명한 황금이었다. 5. 두 사람은 금덩이를 절에 바치고, 때린 주인은 손이 썩어 죽었다고 하였다. 6. 봉사는 눈이 보이고 얌은뱅이는 일어섰다.	허욕 금지	민담	봉사, 얌은뱅이, 주인	남 3		14	욕심 많은 사람에게서는 황금이 뱀으로 보임.	옛날
131	이 순 풍 과 여 우	1. 이순풍은 배심 좋은 노인인데 들일을 갔다가 해골을 머리에 쓰는 여우를 보았다. 2. 노인으로 변장한 여우가 간 마을에는 괴질이 돌아 노인은 큰 돈을 받고 고쳐줬다. 3. 이순풍은 여우를 죽이려고 하다가 여인으로 둔갑한 여우에게 걸려 황소가 되었다. 4. 여우는 황소를 못 살게 굴다가 팔아버리며 배추를 멀리하라고 하였다. 5. 이순풍이 배추를 먹자 사람이 되었는데, 여우를 찾지 못했다. 6. 이순풍은 개를 길렀는데, 대정고육에 갔다가 냇가에서 그릇을 씻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릇을 씻는 소리가 여우의 발톱소리였다. 7. 여자를 위로하여 말에 태운 후 단단히 묶고 집으로 돌아오자 개들이 달려들었다. 8. 여우는 귀 한쪽을 물어 뜯기고 달아났다. 9. 한 노인이 시냇가를 지나는데 족제비와 이순풍에게 귀를 뜯긴 여우가 말하고 있었다.	동물의 몰락	민담	이순풍, 여우	남 2	이순풍, 여우	24	여인으로 변장한 여우, 사람이 황소가 됨	옛날
132	아 구 봉 이 와 두 루 봉 이	1. 형제가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산에 딸기를 따라갔다. 2. 어머니는 형에게 이끌려 다니다 죽어버렸다. 3. 장사를 치르려고 하나 쌀이 없어 도둑질을 갔다가 형 때문에 들켰다. 4. 사람들을 부르러간 형이 욕하여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5. 동생이 동네사람을 부르러 가고, 형은 죽에 똥을 싸 사람들이 모두 가버렸다. 6. 두 형제만 장사를 지내기로 하고 묘자리를 찾는데 형은 어머니의 시체를 잃어버렸다. 7. 봄을 질러 어머니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내고 나서 헤어졌다. 8. 동생은 부잣집 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다. 9. 동생은 형을 찾기 위해 걸인잔치를 열었는데, 마지막 날 형이 와서 행복하게 살았다.	형제 의우애	민담	형, 동생, 어머니	남 2 여 2		33		옛날
133	왕 지 네	1. 형과 동생이 다투다가 동생을 때리자 눈알이 튀어나와 봉사가 되어버렸다. 2. 산신령이 주는 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 3. 부잣집 딸이 병이 들은 걸 보고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4. 치네가 숲북 위에 떨어져 죽자 처녀의 병이 나았다. 5. 결혼하고 우물을 발견하였다. 6. 형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다.	형제 의우애	민담	형, 동생, 노인, 처녀	남 3 여 1	형 아우	17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34	모관양반	1. 사냥하다가 들른 마을에서 사위로 대접을 받았다. 2.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사정하는 주인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여 가지고 나왔다. 3. 가짜신랑 노릇으로 다시 재물을 얻었다. 4. 우연히 목침으로 사슴을 잡아 사냥꾼들에게 비싼 값에 목침을 팔았다. 5. 화가 난 사냥꾼을 쌀 몇 알로 밥을 짓는다고 속였다. 6. 죽은 사람을 살리는 피리라고 다시 속였다. 7. 무덤 속에서 사냥꾼의 엉덩이에 뱀자를 새겼다. 8. 사냥꾼을 놓아주었다.	해학적 기지	민담	모관 양반 부인 사냥 꾼 계집 애 노 인 장 모 노 인 의 딸 신 부	남 3 여 4		25		모관
135	호랑이 잡은 열부	1. 도부장수가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하루밤 유숙하게 되었다. 2. 여자가 남편의 옷이라는 걸 알고 도부장수에게 남편을 죽였다고 하였다. 3. 도부장수의 말을 들은 여자는 남편의 원수를 갚으러 갔다. 4. 호랑이가 도망치고 남편의 시체를 찾았다. 5. 호랑이가 쫓아오자 도끼로 쳐서 죽였다. 6. 도부장수가 돌아오다 보니 불을 질러 타죽었다.	열부 극복	민담	도부 장수 여인	남 1 여 1	열부 호랑 이	11		
136	보재 기	1. 가난한 어부가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싶어 사정을 하였다. 2. 선생은 냉방에서 혼자 글을 읽도록 했는데 후생들과 친해졌다. 3. 과거보러 가는데 어부아들을 땀어 뜨리려고 감따기, 입맞추기를 시켰다. 4. 어부의 아들은 급제를 하여 정승이 사위가 되었다. 5.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셨다.	고난 극복	민담	어부, 아들, 훈장, 정승, 셋째 딸	남 4 여 1		19		옛날
137	여우 잡은 소금 창수	1. 소금을 팔러 다니는 총각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가 보니 여우가 해골을 쓰며 웃고 있었다. 2. 여우를 따라 상가로 간 총각은 여우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3. 여우가 쓰러지자 총각은 몽둥이가 여우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몽둥이를 비싼 값에 팔고 도망가 버렸다. 5. 몽둥이를 산 젊은이는 비단옷을 입은 양반을 때려 혼이 났다.	용정	민담	총각 젊은 이	남 2	여우 총각	26		
138	나뭇 꾼과 산삼	1. 나무꾼이 배가 고파 앉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동여리가 간지러워 깨보니 부 같은 게 있었다. 2. 가벼운 걸음으로 내려오니 주막여자가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3. 두 패거리가 싸워 이긴 대장이 주막여자를 차지하게 되었다. 4. 나뭇꾼이 패거리를 모두 물리쳐서 부부가 되었다. 5. 노인이 부 같은 걸 사러와서 비싼값에 팔았다. 6. 그래서야 산삼이라는 걸 알았다.	행운	민담	나뭇 꾼 과부 주막 여자 노인 패거 리	남 2 여 2	나뭇 꾼 패거 리	27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39	용감한 병동이	1. 자식이 없는 부부네 집 술병에서 귀여운 아기가 나왔다. 2. 병동이는 대식가이며 힘이 장사인 젊은이가 되었다. 3. 병동이는 살길을 찾아 다니다 굴 속에 있는 판 세상을 발견하였다. 4. 처녀를 만나 괴물이 잡으러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 5. 병동이는 괴물을 베어 뿔나무에 매달아 놓았는데 사라져 버렸다. 6. 다시 괴물을 발견하여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처녀와 결혼하였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민담	병동이 부부 처녀	남 2 여 2	괴물 병동이	22		
140	은덩두령 은방맹이	1. 한 과부가 형제를 두었는데 계삿날이 돌아오자 작은 아들을 큰 아들에게 보냈다. 2.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을 풀어보니 물개똥이어서 버렸다. 3. 어머니의 구중에 물개똥 속에 있는 보리쌀 한 알을 가져다 씻어 끓인 물로 요기를 했다. 4. 나무를 하러갔다가 새들이 일러주는데로 기와집에 갔는데, 도깨비들이 와서 은덩두령과 은방맹이로 재주를 부렸다. 5. 작은 아들이 밤을 깨물자 도깨비들이 달아났다. 6. 작은 아들은 은덩두령과 은방맹이를 가져다가 부자가 되었다. 7. 형은 밤새물을 가지고 도깨비집에 갔다가 잡혀서 남근이 서른다섯 자나 늘어버렸다. 8. 동생은 은방맹이로 남근을 줄여주었다. 9. 형은 강아지 목을 비틀어 죽였다가 대나무에서 쏘아진 개똥벼락에 맞아 죽고 아내도 자살하였다.	허욕 금지	민담	과부 형 아우	남 2 여 1	형과 도깨비	31	은덩두령과 은방맹이로 요술을 부림 남자의 뿔을 늘이고 줄임	옛날
141	까마귀 모르는 제사	1. 부훈장이 여인의 비명을 듣고 가보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2. 부훈장이 침을 놓자 눈을 뜬 사람은 새혼을 하라고 유언했다. 3. 재혼한 여자는 남편 몰래 제사를 지냈다.	열부	민담	부훈장 여인 남편	남 2 여 2		18		
142	고부랑 나팔	1. 호랑이를 잡는 고부랑 나팔을 갖은 노인이 있었다. 2. 제주도도로 들어와 사는 노인이 하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다. 3. 호랑이가 지나가다 노인이 깨면 잡아먹을 요량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4. 노인은 죽은 척 하다가 고부랑 나팔을 호랑이 입에 밀어넣어 목숨을 건졌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민담	노인 아내	남 1 여 1	노인 호랑이	18		
143	머리찰라 시부모 생일차 린 효부	1. 대정현에 가난한 선비집안이 있었다. 2. 시아버지 생일잔치를 열기 위해 머리를 찼었다. 3. 잔치를 본 여사가 사정을 들어보니 효성스러운 며느리였다. 4. 선비에게는 과거급제를 시키고, 며느리에게는 효부를 내렸다.	효도	민담	시아 버지, 며느리	남 1 여 1		18		옛날 대정현
144	은혜값 은 노루	1. 농부가 메밀타작을 하는데 노루가 달려와 메밀짚 속으로 숨어 목숨을 구했다. 2. 노루노루를 따라간 농부는 노루가 가리키는 곳에 집을 지어 부자가 되었다.	보은	민담	농부	남 1		9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45	돼지로 태어난 어머니	1. 스님이 정육점을 하는 사람에게 짐승을 그만 죽이라고 타일렀다. 2. 돼지를 끌어낼 수 없어 보살에게 알렸다. 3. 보살은 돼지가 어머니라고 말했다. 4. 그후로 정육점을 치우고 부처님을 믿었다.	살생 금지	민담	정육점 주인 스님 보살	남 2 여 1		15		
146	가짜 신랑 이야기	1. 예쁘고 재주가 뛰어난 처녀가 있어 총각들이 좋아했다. 2. 강판서는 며느리로 삼고 싶으나 아들이 나쁜 짓을 일삼았다. 3. 처녀 부친은 글재주로 사귀도록 하자고 하였다. 4. 강판서는 감영에 갇혀 있는 사람의 영리한 아들을 쫓아서 처녀네 집으로 보냈다. 5. 가짜신랑의 말을 들은 신부는 남편으로 삼고 행복하게 살았다.	허욕 금지	민담	처녀 부친 강판서 아들	남 3 여 1		20		
147	정승과 정시	1. 가르쳐 준 사람에게 해가 되는 명당을 발견한 지관은 어긋나게 묘를 쓰도록하였으나 바로 썩 버려서 죽었다. 2. 며느리는 지관의 유언대로 머리와 몸을 따로 잘라 머리를 물통 속에 넣었다. 3.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쳤는데 지관 아들은 더 잘 살았다. 4. 지관의 묘를 파헤쳐 목이 없는 것을 안 사람들이 며느리를 다그쳤다. 5. 물통을 열자 황소 한 마리가 뛰어나와 죽이자 비가 내렸다.	명당 발복	민담	지관 아들 며느리	남 2 여 1		10		
148	저승 할망	1. 한 소년이 흥역을 하여 굶을 했는데 한 할머니가 소년이 사흘 뒤에 죽을 거라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하였다. 2. 저승할망을 찾아가다가 여러 사람이 점을 쳐달라고 부탁을 한다. 3. 바다에서 뱀이 건네준다. 4. 저승할망을 만나 점을 치고 돌아오며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5. 뱀에게 먹힐 처녀를 구해주어 아내로 삼고 가지고 온 과일로 어머니를 칠게하여 부자로 살았다.	권선징악	신화	소년 어머니, 노파, 무당, 연자에 인 사람, 절 신선은 사람, 처녀	남 3 여 6		38	뱀을 타고 물속으로 들어감, 뱀이 아광주를 주고 용이 됨.	옛날
149	무지개	1. 옥황상제는 일곱 아들에게 무지개 색으로 이름을 지었다. 2. 버릇없는 왕자들이 대신의 수염을 뽑아 버렸다. 3. 아이들이 노는 걸 본 왕자들은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하늘 문이 닫혀 돌아갈 수 없었다. 4. 왕자가 뱀을 어기고 세상으로 내려간 걸 안 옥황상제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6. 무지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왕자들이 빛을 내는 것이다.	생성유래	민담	옥황상제 일곱 왕자	남 8		22		
150	정월명절	1.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2. 일년 중 제일 한가한 날이다. 3.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다.	세시풍습	설명문				13		
151	사라진 도깨비	1. 짐노인이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깨비를 만났다. 2. 도깨비라는 걸 안 노인은 도깨비를 잡아 담배쌈지에 넣었다. 3. 집에 와서 보니 참뱀이 들어 있었다.	도깨비 장난	민담	짐노인	남 1		4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52	달아난 도깨비	1. 도깨비불 모시면 제가 주인노릇을 하려고 한다. 2. 한 사람이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도깨비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3. 관덕정을 떼어오라는 주인의 말대로 하지 못한 도깨비는 부끄러워 가버렸다.	해학 기지	민담	주인	남 2		10		
153	도채비 형제	1. 형제가 비를 맞으며 길을 가는데 도채비가 나타났다. 2. 도채비를 따라가다가 물에도 빠지고 가시덤불속을 걸었다. 3. 다른 사람들도 형제와 같이 도깨비 때문에 혼이 났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민담	형제	남 2		10		
154	생물도채비	1. 도채비는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죽은 도채비와 산 도채비가 있었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산도채비는 부인과 동침을 하기도 한다. 3. 산도채비를 물리치고 싶은 사람이 관덕정을 뜯어 오라고 하였다. 4. 관덕정을 뜯지 못한 도채비는 도망을 가버려서 저절로 물리쳐졌다.	허욕 금지	민담	한경 변 사람	남 1		13		
155	더벅머리도채비	1. 혼장을 따라 다니는 도채비는 더벅머리였다. 2. 혼장을 따라 서당에 갔는데 공부할 못하는 아이들이 매를 맞았다. 3. 아이들에게 이름이 있는 것을 부러워한 도채비는 목욕을 했다. 4. 도채비가 나타나지 않으니 혼장은 난처했다. 5. 혼장은 도채비에게 부씨 성을 지어주었다. 6. 도채비는 부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과 고기를 주었다.	도깨비 소위 성취	민담	혼장	남 1		34		
156	독일국정명수	1. 한 과부가 아들 형제가 두었는데, 큰아들은 장가를 보내고, 작은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2. 과부가 아파 형을 찾아가자 형이 화를 내며 쫓아내고, 집을 지어 형님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었다. 3. 동생은 하늘에 빌고 배를 타고 열흘을 가니 독일국에 도착하였다. 4. 약방주인이 지어주는 정명수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이 빼앗고, 눈을 후벼 파고 배에 구멍을 뚫어버렸다. 5. 동생은 판자에 의지하여 떠내려가다 육지에 닿았다. 6. 소나무 통소를 만들어 부니 사람들이 도와주고, 부영이가 잠자리를 돌려주었다. 7.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도 읽지못해 한탄하며 울다가 눈을 치니 눈이 보였다. 8. 너무 기쁜 나머지 통소를 부니 그 소리에 반한 공주와 결혼하여 고향으로 향했다. 9. 형은 다시 동생의 배를 습격하였다. 10. 비둘기 떼가 날아와 모래를 뿌려 동생은 이기고 어머니와 만날 수 있었다.	효도 권선 징악	민담	과부, 형, 아들, 공주	남 2 여 2	형과 동생	32	부영이가 도와준 기도를 물리침	옛날

번호	제목	주요내용	주제	구분	인물	남녀	대결	화소수	환상	배경
157	갑돌이의 일생	1. 갑돌이는 자식을 낳고 싶어 친지신명에게 빌어 쌍둥이를 낳았다. 2. 부자가 된 갑돌이는 거만해졌다. 3. 석순이는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 4. 벌을 받는 꿈을 꾸 갑돌이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권선징악	민담	갑돌이 석순이	남 1 여 1		19		
158	저승에 다녀온 강씨	1. 일과리 강씨가 갑자기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났다. 2. 열라대왕이 구역리 강씨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저승 사자들이 잘못 데려가 돌려보냈다. 3. 돌아오다가 구역리 강씨를 만났다.	윤명	민담	강씨	남 2		18		구역리 일과리
159	천 년 묵은 쥐와 삼 년 묵은 수탉	1. 어떤 부자가 천 년 묵은 쥐와 삼 년 묵은 수탉을 길렀다. 2. 아들이 장가가는 날 쥐는 신랑으로, 닭은 말이 되어 먼저 갔다. 3. 진짜 신랑은 쫓겨나 과부 마을에서 즐겁게 살았으나 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4. 스님에게서 고양이를 얻어 집으로 가지고 오자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5. 신부의 배를 누르자 쥐새끼가 나왔다.	권선징악	민담	부자 아들 며느리	남 2 여 1	부자와 쥐	8	쥐와 수탉의 변신	
160	도깨비 물을 끓여 거북대	1. 바닷가에 있는 돌하르방을 거북대라 한다. 2. 도깨비불이 나타나 마을에 불질렀다. 3.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무로 사람처럼 만들어 새우니 불이 나지 않았다. 4. 돌하르방이 생겨났다.	생성유래	민담	점쟁이	남 1		6		
161	도깨비 불부서 워하지 않은 소	1. 한 노인이 소를 몰고 돌아오는데 소가 움직이지 않았다. 2. 도깨비라는 걸 알아차린 노인은 짐을 가볍게 했다. 3. 소는 힘차게 도깨비 곁을 지났다.		민담	노인	남 1		4		
162	다시 살아난 아기	1. 세 살 난 아기가 갑자기 죽어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살아났다. 2. 늙은 거지가 동냥을 왔다가 아기에게 도깨비 귀신이 붙었다고 하였다. 3. 사탕수수떡을 해서 바닷가로 가서 빌자 아기 몸에서 도깨비 귀신이 나왔다.	도깨비의 행패	민담	아기 거지 부부	남 3 여 1		4		
163	참빛으로 변한 도깨비	1. 도깨비가 힘센 아주머니를 꺾으려고 하였다. 2. 도깨비 모가지불 잡고 집에 와 보니 참빛이었다.	도깨비 장난	민담	아주머니	여 1		5	변신	
164	도깨비를 잡으려면	1. 죽은 도깨비는 밤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을 놀린다. 2. 5년 동안 청성을 드린 사람에게 도깨비가 집터를 잡아주었다. 3. 도깨비가 잡아준 땅에 집을 지으니 3대에 걸쳐 큰 부자가 되었다.	신앙	민담	부자	남 1		5		
165	노루에 린막대 기암년 우려먹는다	1. 상주가 상망읍 지내는데 노루가 먹이를 찾아 내려왔다. 2. 상주가 노루를 죽이자 그걸 본 사람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였다. 3. 삼년 상이 끝난 때까지 그 얘기를 하여 술을 얻어 먹었다.	해학	민담	상주 친구	남 2		8		

<부록 4>

설문지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제주 전래동화를 얼마나 알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1. 몇 학년입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2. 제주 전래동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 ① 웃어른들이 얘기해 주어서 들어서 알았다.
- ② 책에서 읽었다.
- ③ 친구들이 얘기해 주었다.
3. 웃어른이 얘기해 주었다면 누가 해주었는가요? ()
- ① 할아버지나 할머니
- ② 아버지나 어머니
- ③ 형이나 언니
- ④ 선생님
4. 제주 전래동화는 재미 있습니까? ()
- ① 아주 재미있다.
- ② 재미있는 편이다.
- ③ 재미없다.
- ④ 모르겠다.

5. 아주 재미있거나 재미있는 편이라면 특히 어떤 제주 전래동화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제주 전래동화의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6. 위 전래동화가 재미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특히 재미있었습니까?

7. 알고 있는 제주 전래동화의 제목을 모두 쓰세요. 제목을 모르면 주인공 이름을 쓰셔도
좋아요.
